

星武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제43호 | 2014. 7.

Trusted Partnerships



© Airbus Defence & Space

대한민국에 진출한 이래 40여년, 롤스-로이스는 현재 500여대 이상의 엔진을 350여대 항공기에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C-130 수송기에 제공드리는 엔진과 서비스를 들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Trent 700 엔진을 장착한 A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수준의 역량을 제공드릴 것입니다. 동종 시장 선두주자인 Trent 700 엔진은 최상의 고온/고고도 성능과 더불어 비교를 불허하는 연료 효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Trent 700엔진은 지난 4년 동안의 A330 판매 대수 중 70% 이상에 채택되었으며, 전세계 여러 항공사의운용을 통해 수백만 비행시간을 축적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Trent 700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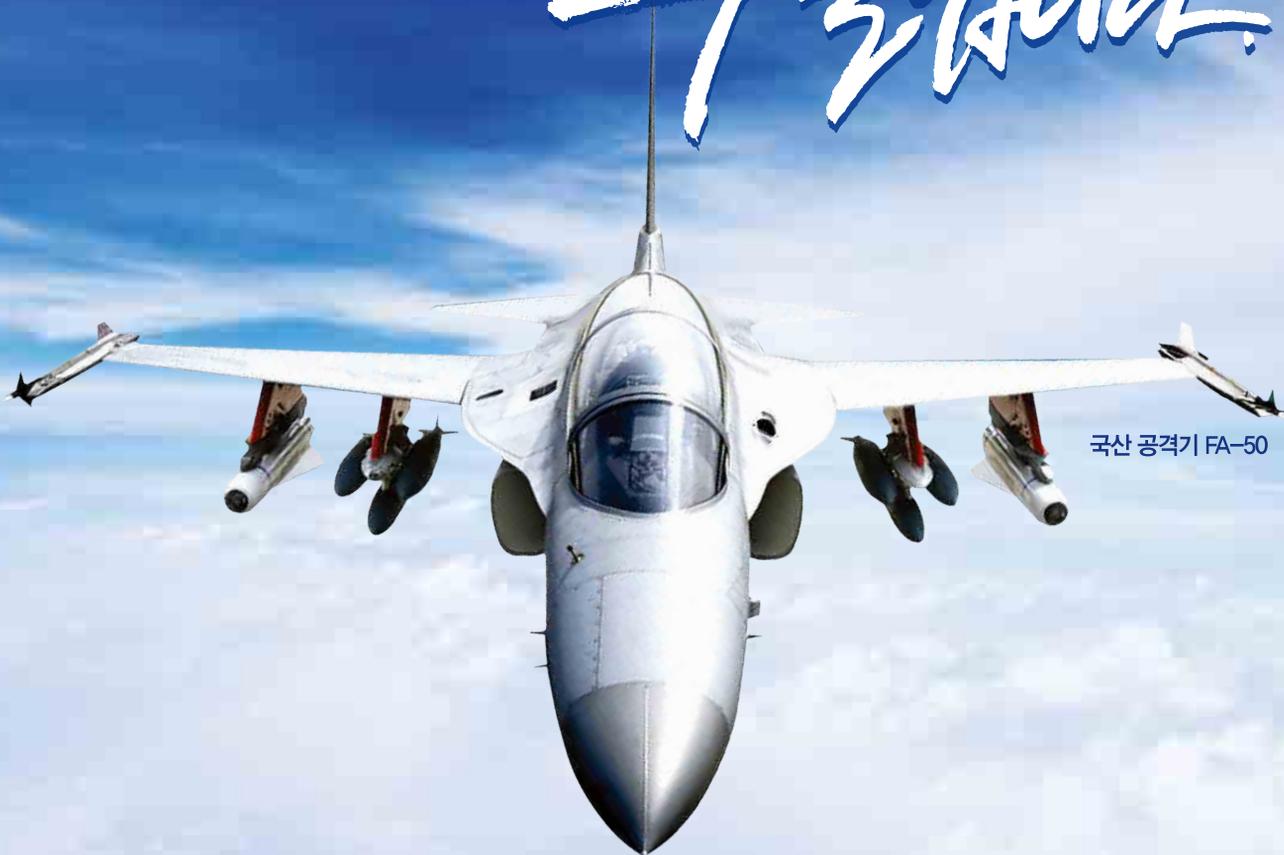
Trusted to deliver excellence.



Rolls-Royce



대한민국을
수출합니다.



국산 공격기 FA-50

5개국 129대 26억 달러

(2014년 6월 30일 현재 국산 항공기 누적 수출량)

KT-1, T-50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 KF-X의 성공적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완벽한 타이완 여행을 즐긴다

[에어부산 가오슝 주4회 운항]

AIR BUSAN

중정기념관



고궁박물관



예류



지우편



용호탑



일월담



타이루거



아이허



아리산 고산열차

Kaohsiung

가오슝



어롄비



불광산사

부 산

[BX795] 수/목/토/일 10:50 (출발) - 12:40 (도착)

[BX796] 수/목/토/일 13:35 (출발) - 17:05 (도착)

가오슝

AIR BUSAN

airbusan.com / 1666-3060

RAYTHEON AESA
레이더 기술

실전에서 입증된 장점

어떠한 전술 플랫폼에도 적용이 가능하고, 실전에서 입증된 Raytheon의 다중모드 AESA 레이더 기술은 비교할 수 없는 탐색, 추적, 조준 및 자체 보호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전투기 승무원들로 하여금 궁극적인 작전상 우위를 점하게 해줄 것입니다.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은 레이티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레이티온은 MCRC, 패트리엇, F-15K APG-63(V)1, KF-16 AESA, AMRAAM, AIM-9X, HARM, Maverick, GBU-28/24/12, SM-2, RAM, Phalanx, TOW 미사일을 공급하여 한국군에 정밀교전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정밀 센서기술에 기반한 레이티온의 무기체계는 미래에도 한국군의 전투능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Raytheon



기술

이 모든 요구에 신뢰로 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랫&휘트니의 힘.™



준비태세



믿음



신뢰

전세계 29 개국의 군이 8,500 여 개의 프랫&휘트니 엔진을 사용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pw.utc.com 참조.



Military Engines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OYSTER PERPETUAL GMT-MASTER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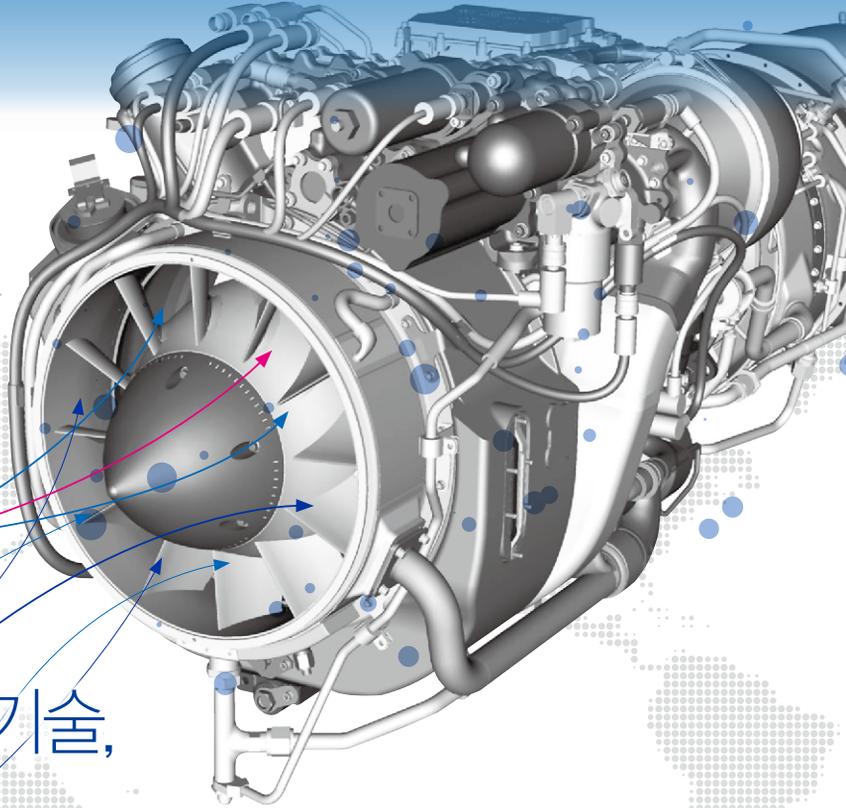
ROLEX

THE WORLD LEADER IN INTELLIGENT ENERGY SYSTEM



한국형 수리온 헬기의 힘,
삼성/GE 공동개발

T700-701K TURBOSHAFT ENGINE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제조업체로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생산사업과 한국형 헬기엔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주국방과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터보압축기, 발전기 등 에너지 장비분야에서 삼성테크윈만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50 Golden Eagle / F404 Engine



F- 15K Slam Eagle / F100/F110 Engine



KUH 수리온 헬기 / T700-701K Engine/STA-150-APU



Ship to Ship Missile / SS-760K



SAMSUNG

삼성테크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R&D센터 파워시스템 사업부 | 대표전화 031-7147-7000

www.samsungtechwin.co.kr



Green Energy Leader

Energy Transparency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Infrastructure Siting

Energy Efficiency & Mitigation Strategy

Renewable Energy Use & Advocacy

사업분야

- 태양광발전사업
- 풍력발전사업



특징

- 공군 출신 예비역 중심으로 사업 운영

대표이사

- 공군 39기 임관
- 포항공대 박사 및 고려대 MBA
- 포항공대 전략 및 기술협력 센터장



KF-X의 무한한 가능성

GE는 이천오백만 시간 이상의 전투기 및 공격기 비행경험을 보유하며, 어떠한 항공기 형상에도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추력을 갖춘 엔진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T-50, 인도 LCA, SAAB Gripen 등 다양하고 검증된 독자 항공기의 통합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KF-X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지원합니다.

Imagination at work.



검증된 성능

그리펜 - 현재 운용 중인 세계 최첨단 전투기

현대의 전투 임무는 다양한 역할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며, 군은 빠르고 유연한 전개가 가능한 고도의 가용성을 갖춘 자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펜은 세계 3개 대륙에서 검증된 실적과 독보적인 최첨단 성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인 그리펜은 표적식별, 추적, 정밀타격 임무 간에 즉각적인 임무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펜은 검증된 전진기지 운영 능력과 유연한 전개 능력 그리고 자체적인 미래 성장 잠재력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펜은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가장 높은 가용성을 갖고 있으며 수명주기비용은 가장 낮습니다.

그리펜은 스마트 전투기입니다.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됐으며 혁신적인 기술로 보강된 그리펜은 동급 전투기 중에서 최첨단 전투기이며 SAAB의 첨단 의지를 완벽하게 구현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www.saabgroup.com/korea



SAAB

Contents

14 공군소식

19 모교소식

23 총동창회 소식

43 회원논단 및 제언

- | | | |
|----|---------------------|-----|
| 44 |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의 ... | 전영훈 |
| 52 | 전투기사업 공군 원하는 방향... | 이대열 |
| 58 | 국방과 공군력에 대한 단상 | 최영훈 |
| 64 |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제언 | 신보현 |

70 회원기고

- | | | |
|-----|------------------------|-----|
| 72 | 공사 2기생 60년전 생도 시절 회고 | 고영근 |
| 76 | 12기 사관 50주년, 그 발자취 | 배기준 |
| 86 | 2013년 최우수 조종사 소감문 | 박근형 |
| 88 | 2013년도 탑건 소감문 | 김태석 |
| 90 |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 김진현 |
| 93 |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 이정우 |
| 96 | 보라매의 길 | 이윤우 |
| 98 | 피고지고 시늬이 | 김영부 |
| 99 | 남경의 녀 | 이희용 |
| 106 |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 이종학 |
| 112 | 10기사관의 관악산 찬가 | 이은봉 |
| 116 | 이창운 대장의 충정 | 김동기 |
| 120 | An Unfogettable Memory | 박성국 |
| 124 | 환갑을 지나 암벽을 오르는가 | 금기연 |

128	여명21기 산우회 히말라야 트래킹	여명21기 등산원정대
133	귀거래의 호연지기를 꿈꾸며	최병운
139	국선도 수련기	장창연
142	꿈을 가꾸는 농부의 길	서성도
147	나도 홀로 여행 할 수 있다!	유원봉
160	밤하늘의 보석	하원훈
168	장군과 모나리자의 만남	신문식
173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허두기
176	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	장석원
182	사찰속에 깃든 의미	오진교

186 동문동정

193 총동창회 알림

194	정기총회
198	회비 납부 안내
199	평생회비 납부현황
202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203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6	전역자 현황
210	주소 변경
212	각 기생회 임원현황
213	편집후기/기고안내

발행일자 | 2014년 7월 [43호]

발행처 | 공사총동창회 전화_02.823.1091 군_923.7570

발행인 | 공사총동창회장

편집/디자인/인쇄 | 흥림출판사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사총동창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교 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우 리—는 피 끓—는 배 달 의—아— 들
2.우 리—는 하 늘—을 배 우 는—젊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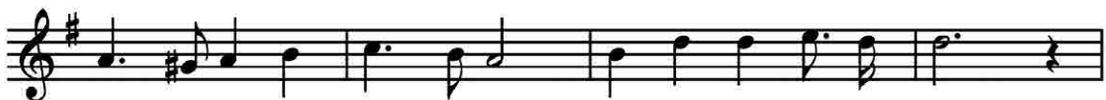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이 룩 해



누 리에 떨—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를 지—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 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美 태평양공군사령부(Pacific Air Force)가 주관하는 레드플래그 알래스카(Red Flag Alaska) 훈련이 2013년 8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12일간 실시했다.

훈련 참가를 위해 공군 F-15K 전투기 여섯 대가 지난 8월 2일(금) 새벽 4시 30분, 대구기지를 이륙해 美 공군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美 알래스카주의 아일슨공군기지(Eielson

Air Force Base)에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우리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한반도를 벗어나 해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 전투기들은 미 알래스카주의 아일슨공군기지까지 약 3,900NM(약 7,223Km)를 논스톱으로 비행했다. 8시간이 꼬박 걸리는 이 비행을 위해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135 6대가 7차례에 걸쳐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공군은 국제 평화 유지 역할 증대에 따른 해외 작전능력을 신장하고,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연합훈련 참가를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참가 기종도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전 전투기(F-15K, (K)F-16, F-X)로 확대하고, 전투기 외에도 C-130, CN-235, E-737 등의 참가도 추진한다. 차후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전투기의 해외연합훈련 참가는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군, 필리핀 긴급 구호지원 임무 완수하고 복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불리는 ‘하이옌’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 상륙한 것은 2013년 11월 9일(토). 민간차원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긴급 구호팀과 물자 수송을 위해 공군은 11월 14일(목) 새벽, 15특수임무비행단 C-130 수송기 2대로 첫 긴급공수 작전을 시작했다. 15일(금)에는 2진이 출발해 구호인력 및 물자 수송임무를 완수

하고 16일(토)에 복귀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구호를 위해 네 차례에 걸쳐 C-130 수송기와 지원 요원들을 파견했던 공군 지원전력 4진이 최종 임무를 완수하고 11월 30일(토), 김해기지로 복귀했다.

그간 공군 C-130 수송기는 구호물품 전달 뿐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던 타클로반 현지인들을 안전한 마닐라와 세부지역까지 대피시키는 임무도 동시에 수행했다. 타클로반과 세부, 마닐라를 오가며 수송작전을 펼쳤던 공군 지원전력은 11월 17일(일)부터 28일(목)까지 총 72회의 비행을 통해, 1,937명(한국 222, 필리핀 1,551, UN 등 164)의 인원을 수송하고, 274.5톤(구호품 248, 기타 장비 26.5)의 물자를 적시에 수송했다.



「2013 최우수조종사」에 F-15K 조종사 박근형 소령



공군은 1월 28일(화) 공군본부에서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2013년 최우수 조종사』에 대한 시상식을 실시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지난 1년 간 일선에서 활약한 모든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비행경력과 작전참가 횟수, 비행안전 기여도는 물론 전문지식, 체력평가, 군인 정신 등이며, 총

1,0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해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동일기종 상하급자, 동기생 설문조사 등을 통한 ‘핵심역량 평가’를 실시해 강한 정신력과 필승의 신념이 투철한 조종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평가 결과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의 비행대장인 박근형 소령(공사 47기, 주기종 F-15K)이 1,000점 만점 중 825.4점을 획득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싱가포르 상공에 태극 그리는 블랙이글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2월 11일(화)부터 16일(일)까지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기동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축하비행을 선보였다.

한편, 지난 2월 4일(화) 블랙이글은 항공기를 분해·운송 후 현지 재조립의 과정을 거쳤던 2012년 영

국 에어쇼 때와는 달리 T-50B 9대에 조종사들이 직접 탑승해 모기지인 원주를 출발, 국제 공항인 제주에서 대만-필리핀-브루나이를 경유해 약 5,389Km를 비행하여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도착했다.

성공적인 해외 항로비행을 위해 공군은 C-130 수송기 3대와 60여 명의 지원인력을 기착지에 먼저 전개시켜 정비와 급유를 지원했다. 또한, 공군은 T-50계열 항공기를 운영한 이래 최초로 3개의 외부연료탱크를 장착해 장거리 항로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하기도 했다.



제33대 · 34대 공군참모총장 이 · 취임식



제33대 · 34대 공군참모총장이 취임식이 2014. 4. 11.(금),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34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최차규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고 전투임무

중심의 정예전사를 양성해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을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공군인 모두는 24시간 작전이 가능하도록 일선불사의 강한 군인정신을 무장한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해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이바지 하자.”고 당부했다.

최 총장은 10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등 군내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작전은 물론 기획, 전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

한편 성일환 전 총장은 이 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40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제19회 전국 대학생 모의UN 대회 대상 수상



'13년 7월 3일(수) 부터 6일(토) 까지 4일간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대학생 모의UN회의에서 공군사관학교 4학년 진서영 생도와 정지수 생도가 대상(외교통상부 장관상)을, 황동민, 염지희 생도는 격려상(육군 3사관학교장상)을 수상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전국 대학생 모의UN회의는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생 학술행사로 매년 60여 개 대학의 학생 500여 명이 참가해 유엔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유엔회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행사이다.

대상을 수상한 두 생도는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다차원적 접근'을 주제로 한 제3위원회에 참가하여 총51개 학교와 겨루었는데, 5차 공식회의에서 기초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평화구축위원회(PBC)와 연계, NGO 등과 파트너십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과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제안해 큰 주목을 끌었으며, 다른 협의체와 의견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탁월한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62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



제62기 졸업 및 학위수여식이 2월 27일(목) 오후2시 성일환 공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역대 공군참모총장과 공사 교장, 공사 지휘관·참모를 비롯한 군 관계자와 내빈, 졸업생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성무연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번에 졸업하는 62기 생도들은 10명의 여생도와 외국군 위탁 생도를 포함한 145명이다. 이들은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와 함께 전원이 군사학사 학위도 동시에 수여받았다.

한편, 이번 졸업 및 학위수여식은 공사 동기인 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공사를 졸업하게 된 김범석·황동민 생도, 6·25 참전용사 할아버지와 예비역 육군소령 아버지에 이어 공군장교로 거듭나는 임성빈 생도, 동기들 사이에서 실력과 군사전문가로 유명한 염규빈 생도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졸업생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정지수 생도가 대통령상, 김진현 생도가 국무총리상과 대표보라매상, 윤지섭 생도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명이 우등상을 수상하였다.



이 날 성일환 공군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부모님과 국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영원히 간직하기 바란다.”며, “지난 4년 간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자기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생도전대 · 55훈련비행전대 창설

공군사관학교는 3월 3일(월) 생도대 예하에 생도전대와 제55훈련비행전대를 창설하였다. 기존 생도대의 지휘체계는 생도대장(준장) 예하에 생도 1·2대대와 212비행교육대대 등 다수의 조직이 직속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이번 창설을 계기로 전대장급(대령) 지휘체계가 보장되고, 훈육과 비행훈련 임무 분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생도전대는 본래 생도대의 전신으로, 1949년 공사 개교와 함께 생도전대로 창설된 후 1987년 생도대로 승격된 바 있다. 이번에 생도대 예하로 27년 만에 재창설된 생도전대에는 생도 1·2대대와 군사교육훈련과, 인성교육과 등이 편제됨으로써 사관생도의 훈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55전대는 비행훈련 관련 조직들이 응집하여 탄생한 점이 눈에 띈다. 212비행교육대대·정비대대는 물론, 기존 근무지원단 소속이었던 기상대와 항공우주연구소 소속이었던 모의비행훈련실까지 55전대라는 이름으로 한솔밥을 먹게 됨으로써 비행훈련과 관련된 업무들이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도전대〉



〈제55훈련비행전대〉



제46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



제46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이 4월 23일(수)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새로이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한 김형철(공사 28기) 중장은 지휘권을 이양 받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공군」의 핵심이 될 정예장교양성에 전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김형철 사관학교장은 취임에 앞서 “여객선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 분들의 넋을 기리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고인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애도를 표하는 한편, 취임사를 통해 21세기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대한민국 통일의 주역이 될 공군사관생도들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생도들은 항공우주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이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역량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제21차년도 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13년 7월 18일 공군 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 해 동안 추진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통해서 기존 사업의 성과를 확산토록 하고, 전 동문간의 화합활동을 전개하며, 모교 및 공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안보전문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토록 주요사업 방침을 확정하였다.



자문위원 간담회

'13년 9월 4일 공군회관에서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역대 회장 및 사무총장 22분과 21차년도 운영 임원 9명이 참석하여 회장인사 및 임원 소개, 총동창회 현황보고, 질의 및 토의 그리고 오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질의 및 토의시간에는 공사 최초 발상지(강서구)에 상징물 설립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고, 국립현충원 안장 요건 개정 내용 재홍보 요청에 따라 공사총동창회 홈페이지에 재공지 조치하였다.



선배기수 임원 간담회

'13년 9월 12일 성남 체력단련장에서 선배기수 이사(13~20기) 간담회를 가졌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에서 모처럼 선·후배 회원간에 친목을 다지는 한편, 선배님들께서는 각 기생회 운영과 총동창회 발전에 관한 많은 고언과 격려를 21차년도 임원들에게 전수해 주셨다.



후배기수 임원 간담회

'13년 9월 25일 후배기수 이사(22~29기) 간담회를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선·후배간에 따뜻한 정담을 나누는 한편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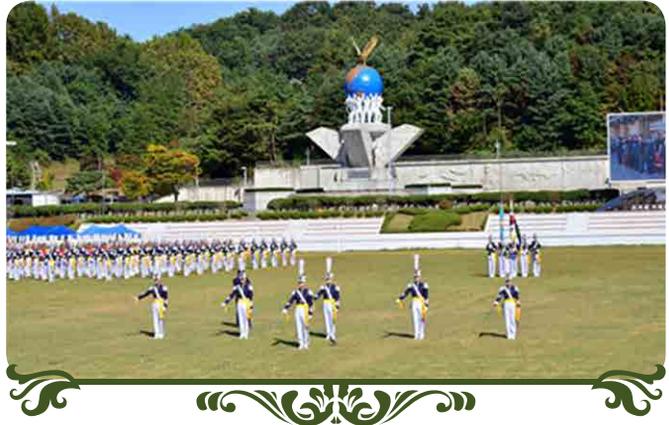


성무인 가을축제

'13년 10월 12일 공군사관학교에서 홈커밍 행사인 성무인 가을 축제를 개최하였다.

금번 행사에는 1기부터 31기까지 참석하였으며, 5월에 실시하지 못한 10/20/30주년 임관기념행사도 함께 개최하였다.

행사 내용으로는 생도의식 및 블랙이글 축하비행, 성무제 및 성무 음악회를 관람하고, 선·후배와 현역간 친교의 시간을 가지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현역 임원 간담회

'13년 10월 17일 제21차 총동창회 임원들은 계룡대를 방문하여 현역에서 불철주야 영공방위 임무에 진력하고 있는 후배기수(30기~54기)임원들을 초청하여 후배 격려와 함께 선·후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소통과 활동이 동창회와 현역간에 이루어지길 희망하였으며, 각 기생회장과 총동창회간의 핫라인 구축과 평생회비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와 독려방안을 토론했다. 총동창회는 벨트를 선물로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친선 바둑대회

'13년 11월 13일 공군회관에서 제 11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우회 고문 윤자중(1기) 회원님을 비롯하여 21기까지 참석하였으며, 총동창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정지수(11기) 간사님의 기우회 약사 설명, 오제상 바둑추진위원장의 대회규정 및 진행요령 설명에 이어 A조, B조, C조로 나뉘어 개인전과 복식전이 이루어졌다.



김수장(9단) 지도사범님께서서는 다면기 대국으로 대회를 빛내 주셨으며, 이번 대회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진표를 작성하여 운영이 잘되었다고 칭찬을 하셨다. 그러나 후배기수의 참여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

김광진(21기) 회원이 기념타올을 협찬해 주는 등 많은 21기 진행요원들의 수고로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 바둑대회 우승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전

- A조 : 강영진(8기)
- B조 : 김상곤(5기)
- C조 : 김동철(8기)

복식전

- A조 : 윤자중(1기), 정구호(17기)
- B조 : 신동열(14기), 이부용(12기)



순조회 초청 오찬행사

'13년 12월 5일 공사총동창회에서는 순조회(순직 조종사 부인회) 초청 오찬행사를 가졌다.

순조회 회원 26명이 참석하여 초청행사를 해준 총동창회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순조회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본 및 전우회에 전달하여 조치토록 하였고, 총동창회에서는 머플러 등을 선물로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전달하였다.



62기 졸업생 격려 방문

지난 2월 13일 62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축하를 위하여 총동창회장과 임원이 모교를 방문하였다.

이날 진행된 총동창회장 특강은 임관 후 장교로서 지켜야 할 덕목들에 대해 제시해주었다.

한편, 공사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 소개를 한 후에 작은 정성이지만 졸업선물(벨트)을 준비해 전 졸업생들에게 전달하여 졸업 및 임관을 축하해주었다.





총동창회 등산대회



지난 4월 23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총동창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각종 행사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선.후배 동문들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에서의 세월호 참사 관계로 등산 후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기도와 함께 가벼운 오찬 행사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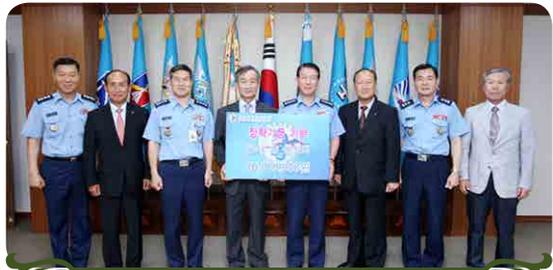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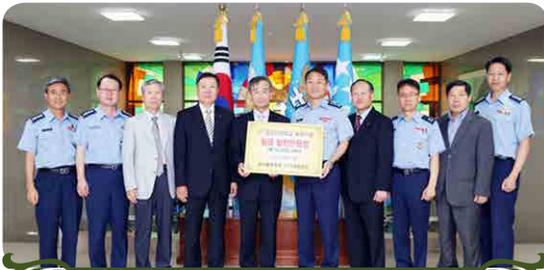
금번 등산대회에서는 5기 선배님들 22분이

참석하여 최다 참가상을 수상하였으며, 총동창회 운영기수인 21기 및 메추리 기수인 24기 후배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식사운반 등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공사 발전기금 및 하늘사랑 장학회 장학금 전달

지난 6월 17일 제21차년도 공사총동창회 운영 임원단은 공사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기증하였다. 6월 20일에는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을 돕기 위해 공군에서 2010년 설립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도 1천만원을 기증하였다.

기탁금은 지난 1년동안 총동창회를 운영하면서 각종 행사비에서 절약한 예산과 광고 수익금 일부를 모아 기증한 것이다.





부대 방문



» 공군본부 ('13. 7. 22)



» 공군사관학교 ('13. 7. 22)



» 작전사령부 ('14. 3. 27)



부대 방문



>> 교육사령부 ('13. 10. 23)



>> 제3훈련비행단 ('13. 10. 23)



>> 한국항공우주산업 ('13. 10. 23)



총동창회소식



» 군수사령부 ('14. 3. 6)



» 남부사령부 ('14. 3. 6)



» 제11전투비행단 ('14. 3. 6)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18기 사관 전영훈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2014년도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18기 사관 전영훈 회원을 선정, 제21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을 가졌다.



전영훈 회원은 공사 18기로 졸업한 후 전투 조종사로 활동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서 우리가 만든 항공기로 우리 영공을 지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겸 경전투기(A-50)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 개발 책임자로서 헌신적인 활동과 열성으로 사업을 성공시킴으로서 공군 전력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의 명예와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한 전영훈 회원을 올해의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선정하고 상을 수여하였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 총동창회는 2014년 6월 25일 공군회관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총회를 가졌다. (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22차년도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김은기 장군을 선임하였다. 총동창회 업무는 22기 사관이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22차 운영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22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 회 장 : 김은기
- 부 회 장 : 부중배(선임), 강수준, 권영락, 기노중, 김인식, 남궁혁, 손종열, 송인선, 윤성기, 이경환, 이광희, 이영하, 이정석, 임인빈, 장현섭, 정 양, 정장교, 조욱형, 최병운
- 감 사 : 오원용, 김중세
- 사무총장 : 민형기
- 후 원 : 공사 22기 사관 일동

이 임 사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공사 총동창회 21년차 회장직을 마치고 22년차 운영위원들에게 인계하고 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장마철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후배 및 동기 회원님들의 그 동안의 크신 격려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의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총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수행하는 동안에 국가와 군 안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회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이라 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으며 많은 국민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였으며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까지도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한 참사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어야겠으며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과 안보를 염려하는 우리 예비역들은 안보실패로 인한 유사한 비극은 절대로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재난과 아울러 국가경제도 어려웠던 시기라 총동창회 운영에도 큰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창회의 제반 행사진행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더욱 해결해야 할 난제였습니다. 회원님들의 평생회비 거출과 운영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대두가 되었으며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동창회의 성무지 발간문제도 과거와 달리 금회부터는 일반 인쇄업체를 통해서 유료로 발간해야 하는 사유로 인해 동창회의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성무지를 통한 광고비 확보도 점차 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회는 이러한 제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동창회 전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행사를 무난히 시행할 수가 있었으며 성무지도 외주로 발간하여 품질을 더욱 높여 발간할 수 있게 되었고, 공군본부와 모교인 사관학교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예년수준으로 지원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신 회원님들과 관련 기관/단체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동창회의 평생회비 거출방법과 운영절차를 재검토하여 운영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차기 운영기수의 전체 이사회에서 운영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평생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졸업한 62기 사관 전원이 평생회비를 내기로 약정하여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해준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기존회원은 물론 많은 신입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소망해 봅니다.

끝으로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총동창회 전 회원님들의 그간 성원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도와 지난 1년 동안 총동창회 업무를 훌륭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 21년차 회장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2차년도 임원들의 취임을 축하드리고 더욱 발전적인 총동창회 업무수행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2014년 6월 25일

이임 총동창회장 배 창 식

취 임 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총동창회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성무대에서 동기생으로 인연을 맺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공사 22기생들과 더불어 회원님들께서 부여하신 봉사와 헌신의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최고'로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하여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모교 총동창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열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지극한 모교 사랑과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참여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고견을 들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저희 22기 사관들은 앞으로 일 년 동안 총동창회 회칙의 본회 목적에 명시된 대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모교의 전통과 명예 계승', '국가 안보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기존의 사업 계획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모든 동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총동창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실화된 ‘항공우주시대’에 ‘항공 우주군’의 산실인 우리들의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성원하고 후배 생도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우리들의 모교, 공군의 위상강화와 현역 후배들의 사기를 고양함으로써 영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활동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총동창회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핵심전력, 공군의 현역과 예비역이 함께 참여하는 엘리트 집단으로써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상응한 국가안보에의 참여와 총동창회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하신 배 창식 회장님과 21기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와 쌍매 22기 동기생들에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님들의 건안하심과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5일

신임 총동창회장 김은기

축 사



존경하옵는 역대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원로 선배님! 그리고 공사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공군 전 장병을 대표해서 2014년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공군을 향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년동안 공사 총동창회와 우리 공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하시는 배창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김은기 총장님께서 신임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취임 임원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은 현재의 안보위협과 새로운 국방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항공우주력을 구축하기 위해 F-X 기종 선정, KF-X 사업추진, 공중급유기 도입, 장거리 대형수송기 및 고고도 무인정찰기 확보 등 전력증강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께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공군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셔서 공군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군이 국방을 선도하고 미래전의 핵심전력으로서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현역들 역시 모교와 공군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공사 총동창회가 공사 동문들의 구심점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2014년 하반기에도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전 장병과 군무원이 일치단결하여 강력한 전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강하고 신뢰받는 정예공군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군과 공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이임하시는 배창식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회원들간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최 차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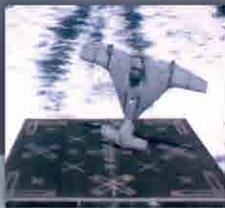
공군사관학교
R.O.K. AIR FORCE ACADEMY

공군사관학교

HAROP.

탐색. 포착. 제거

Loiter. Locate. Eliminate



**HAROP: 무인기처럼 탐색하고,
미사일처럼 공격합니다**

- 최대의 항속거리, 장시간 체공
- 밀폐된 발사관에서 발사
- 고품질 이중 EO/IR 탐색기
- 이원화된 데이터 링크를 통한 선택적
운용자 직접조준 공격
- 상면 혹은 경사면 공격
- 최종 강하 시에도 공격 중지 기능
- 높은 효과의 탄두,
정밀한 정확도



www.iai.co.il
marketing@iai.co.il



WHEN RESULTS MATTER





회원논단 및 제언

- ✈️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의 시급성 | 전영훈 44
- ✈️ 한국형전투기사업 공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이대열 52
- ✈️ 국방과 공군력에 대한 단상 | 최영훈 58
- ✈️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제언 | 신보현 64





18기 사관 전영훈

- 미국 미시시피주립대 항공공학 박사
- 국방과학연구소 T-50 사업책임자
- 한국항공 T-50 개발 센터장
- (현) 골든이글 공학 연구소장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의 시급성

1. 서론

많은 역사가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말한다.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끝없는 전쟁들이 일어나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러한 전쟁은 미래에도 없어지질 않고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살펴보면 역사가들은 크고 작은 외침이 931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는 외침으로 부터 당하고만 살아온 역사이다. 비근한 예로 커다란 두 가지 경우만 살펴보자. 먼저 고려시대의 몽고침략을 생각해보면 근 100여 년간 11회의 침략으로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고야 말았다. 호수만복(胡水滿腹)이라는 치욕적인 말이 생긴 것도 이때였다. 이 말은 오랑캐 호, 물 수, 가득할 만, 배 복자이다. 다시 말하여 오랑캐의 물이 한국부녀자들의 배에 가득하다는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녀자들이 오랑캐에게 유린 당했다는 치욕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다.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시절은 어떠한가? 일본은 우리의 역사는 물론 주권, 문화, 언어, 모든 것을 말살하려 하였던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했나.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자주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위정자들이 권력과 당파싸움에 국가안보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외침을 당할 때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가? 현대전에서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항공무기체계라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공군의 역사가 6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운영하는 무기체계가 판매국의 도움 없이는 꼼작 못하는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루속히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확보를 서둘러야 할 때다.

2. 현대전의 특성

현대전에서 항공무기체계가 승리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으로 되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이것은 항공무기체계가 시공간을 초월하고 신속하게 정밀 폭격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항공무기체계는 육상이나 해상무기체계와 많은 다른 특성이 있다. 쉽게 설명하면 육군의 주무기체계인 탱크의 경우를 살펴보자. 탱크는 전투 중에 문짝이 하나 달아나도 불편이야 하겠지만 아쉬운 대로 전투는 할 수가 있다. 해상무기체계도 마찬가지다. 함정에 어느 한곳이 달아나거나 갑판이 좀 부서져도 불편은 하겠지만 전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유독 항공기는 조그마한 결함이 있거나 외형상에 상처가 있어도 비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항공무기체계의 특성인 것이다. 항공기는 조금만 결함이 있어도 즉시 결함을 수정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후속군수지원이 어느 무기체계보다도 중요하고 절대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일례로 1980년 이란-이라크전쟁이 발생했다. 이란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 팔레비왕조시절 미국과의 관계는 둘도 없는 맹방이요 혈맹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우방 어느 동맹국에도 제공하지 않았던 F-14전투기를 이란에게만 제공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반미사상에 미국과 단교가 되었다. 그 후 이란은 이라크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란은 보유하고 있던 F-14전투기를 띄울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란은 F-14 전투기의 후속 군수지원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여 왔고 단교가 된 후부터는 후속 군수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지상에 싯덩어리로 세워 놓아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항공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은 다른 어느 무기체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공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공군의 현실은 현재로서는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들의 후속군수지원 능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거의 대부분의 후속군수지원을 공군역사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매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를 극복하

려는 노력과 의지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개발하고 자랑스러워하는 T-50의 후속군수지원능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항공기가 개발된 지 9년이란 세월이 되었지만 항공기 전체의 국산화율은 약 60% 정도지만 정작 중요한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가늠하는 부품국산화율은 10%도 못 미치는 정도다. 개발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개발 후에 적극적으로 부품개발을 했어야 했다. 현재는 일부품목에 대하여 개발되고 있지만 너무나 저조한 실정이며 외형 개발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언제 자주능력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후속군수지원 능력 없는 전력증강은 실제 전쟁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하나는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와 다른 하나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경우 일 것이다. 첫째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찌든, 미국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이것은 단교를 의미함) 우리가 제아무리 최첨단 항공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어도 후속군수지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여 후속군수지원 능력이 없는 항공무기체계는 전쟁이란 상황을 놓고 볼 때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3. 한반도의 전장 환경

우리나라 주변 전장 환경은 바로위에 북한이 있고 옆에는 거대한 중국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다. 북한은 호심탐탐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경제 불안은 물론 체제유지 불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무력도발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들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항시 긴장 시키고 불안감을 조성해야만이 국민들의 불만으로 인한 폭발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력도발을 함으로서 국민들을 긴장시키고 불안 속에 몰아넣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무력도발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 본다. 한편 중국은 경제와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 머지않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근본적으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목적으로 차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베정권의 우경화 정책 그리고 자위방어에 치중하여왔던 자위대를 이제는 집단적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고 있지 않는가?

한반도에 무력 도발이 발생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로는 북한의 무력도발이고 두 번째로는 독도 영유권 문제로 일본과의 무력분쟁이 될 것이다. 북한은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무력도발을 할 것이지만 필자는 북한과의 무력분쟁은 일본과의 무력분쟁보다 덜 걱정을 한다. 왜냐하면 북한과의 무력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땀방이요, 혈맹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무력분쟁은 상황이 달라진다. 필자는 일본과 무력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꽤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 땅으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으나 일본도 독도는 자기네들 땅이라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민족적 감정이 뼈에 사무치도록 있기 때문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요사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로 그들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언제든지 시비를 걸 수 있으며 이는 독도에 대한 무력시위 등으로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꽤 높다고 본다.

만일에 독도로 인한 무력분쟁이 우리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다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우리가 북한과의 무력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당연히 우리 편에 서겠지만 일본과 무력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과연 어떤 입장이 될 것인가? 미국은 우리와도 동맹국이지만 일본과도 동맹국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느 한나라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중립을 지키든지 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일본이 미국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미국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을 양보하게 된다면 미국을 견제하는 세력들이 미국본토 태평양 연안까지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일본을 동남아를 지키는데 최후의 방어선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을 포기하면 했지 일본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만일에 미국이 일본 편에 선다면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끝이다. 만일에 미국이 중립적 입장을 지킨다면 우리는 일본과 단독으로 맞서야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일본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우리를 앞서 있다. 첨단기종은 물론 보유대수에서도 우리보다 앞선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보유 장비나 수가 아니라 일본은 외국의 도움 없이도 홀로 전쟁을 하는데 후속군수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자주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에 반하여 우리는 무기 판매국의 도움 없이는 꿈작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후속군수지원은 전적으로 판매국인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판매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우

리의 항공무기체계는 쇠뿔어리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가 간의 분쟁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독도는 힘 있는 자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실례를 들면,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다. 이것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었다. 남미 아르헨티나 끝 바로 옆 포클랜드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다. 이 섬은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있는 섬으로 아르헨티나의 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섬은 수만리 떨어져 있는 영국과 영토분쟁이 있었던 중이었다. 아르헨티나가 영토소유권을 선포하자 바로 영국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수만리 떨어져 있는 영국은 항공모함과 공군력 그리고 지상군을 파견하여 무력으로 포클랜드를 점령하고 영국령으로 만들어 버렸다. 힘없는 아르헨티나는 맥없이 포클랜드를 넘겨주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포클랜드는 자기네 땅이라 외치고 있지만 어느 누구 자기편이 되어주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며 힘 있는 자가 정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4. 일본과 한국의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비교

일본은 무서운 나라다. 필자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본에게 또 당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후 가장 먼저 자주국방을 목표로 매진하였다. 그들은 미국으로부터 항공무기체계를 구매하면서 도입하는 모든 전투기들을 직구매형식이 아닌 면허생산을 택하였다. 1954년에 Beechcraft의 T-34 초등훈련기로부터 시작하여 F-86F 제트전투기, T-33A 고등훈련기, F-104J, F-15J 등 총 19개 기종을 면허생산을 하였다. 또한 앞으로 들여올 F-35도 첨단산업 획득 및 방위산업 육성 목표로 면허생산으로 들여온다. 면허생산을 통하여 그들은 항공기 기체는 물론이지만 후속군수지원의 핵심인 부품국산화에 주력을 해왔다. 1970년대 주력 전투기인 F-4EJ의 국산화율은 무려 99%에 달했고, 1980년대 주력기종인 F-15J에서는 75%까지 국산화를 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면허생산을 통해 부품개발에 몰두를 했다. 이번 F-35 도입에도 첨단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육성 목표로 면허생산을 하여 부품 중 중요한 엔진 통풍기, 터빈, 레이더 신호 수신기 등 24개 제품 등 40%를 일본제품으로 사용한다. 이로 인한 대당가격은 50%나 더 비싸지만 그들은 면허생산을 정말로 의미가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항공무기체계에 가장 중요한 후속군수지원 자주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남의 도움 없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한편으론 항공기에 대한 많은 성능개량사업을 통하여 항공기 개조개발능력을 확보하였다. F-4EJ, UH-60, 미쓰비시의 T-2 및 Kawasaki의 C-1 등 4개 기종이었다. 이러한 성능

개발 사업을 통하여 전투기 체계종합기술을 익혔다. 그리고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하여 핵심기술 개발 및 엔진개발도 진행했으며 항공기 개발은 T-1, T-2, T-4, F-2 등을 개발했으며 지금은 세계 최고의 항공기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ATD-X기를 개발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군의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을 살펴보면 너무나 미흡한 형편이다. 우리의 현 능력은 항공기 면허생산은 KF-16 한 기종에 불과하다. 이것도 중요한 알맹이를 면허생산 한 것이 아니라 외형치중 면허생산을 하여 후속군수지원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성능개량 사업도 F/A-50 성능개량을 우리 단독이 아닌 록히드 기술지원을 받아 했다. 이번 KF-16 성능개량사업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회사에 맡겼다. 부품국산화 능력도 T-50이 개발된지 9년이나 되었지만 현재 부품 국산화율은 10% 도 되지 못할 정도로 부품국산화 다시 말하여 후속군수지원에 소홀히 해 왔다. 현재 일부 품목을 개발하고 있지만 너무나 미약한 실정이다. 개발경험도 KT-1 터보프롭 기본훈련기 개발, T-50 록히드 기술 지원 개발, 수리온 헬기 유로콥터 기술지원 개발이 전부다. 우리에게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하여 이길만한 핵심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전투기 개발에 중요한 핵심기술 부족분은 외국에 기술지원을 받아야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항공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능력은 현재로선 판매국의 도움 없이는 꿈쩍 못하는 형편이다.

5. 결론

손자병법에 “식량과 무기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시해 왔고 잘 못 판단해 왔다. 비근한 예로 조선 선조 때 일본 정세를 파악키 위하여 통신사로 두 사람(황윤길, 김성일)을 보냈지만 당시 한 사람(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고, 또 다른 한사람(김성일)은 일본의 침략 조짐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때 선조는 태평성대에 경제력을 소모해가며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쪽을 택했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였다. 구한말에도 일본침략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허송세월 보내다 힘없이 당하여 36년간이나 일제의 노예가 되었지 않았는가? 울곡선생의 10만 양병 설에 귀 기울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준비를 했더라면 임진왜란이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엄연한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대단히 불안한 나라다. 위로는 핵무장을 서두르는 북한이

있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일본이 있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집착이 점점 심화되어가고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총리 직속에 두겠다고 선언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헌법까지 고쳐 지난날의 일본으로 되돌아가겠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경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나 대응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시네마현이 독도를 귀속시킨다고 공언했을 때만 해도 우리의 항의와 시위 및 반일감정이 치솟았는데 점점 열기가 식어 지금은 고작 정부에서도 일상적인 항의표시만 하고 있다.

현대전의 승리는 항공무기체계가 좌우하는데 공군역사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항공무기체계 운용에 가장 중요한 후속군수지원체계가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의 현실이 이지경인데도 후속군수지원 능력 확보에 너무나 미온적이다. 이러한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는 미국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철통같이 믿고 있다. 정말로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마음을 놓겠는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이다. 국제정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오늘의 우방이 내일에 적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지 않은가. 비근한 예로 앞서 언급하였지만 이란은 팔레비왕조시절(1979년 붕괴) 만해도 미국과 맹방이고 혈맹이었던 관계가 호메이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다. 그 후 미국은 이락과 우방이 되었지만 얼마 안 있어 이락과도 다시 적국으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국제정치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직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역사가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와 미국관계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일본과 무력분쟁이 일어날시 미국의 도움 없이 전쟁을 치러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필자는 누누이 역설해왔다. 이럴 확률은 꽤 높다고 본다.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우경화 그리고 현 아베정권이 행하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준비를 하여야하는데 뭐하는지 모르겠다. 준비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말이다. 필자는 가장 문제가 우리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옆에 있으니까 천하태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는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형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최신예기만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을 지나치게 갖고 있다 보니 개발하려고 하는 항공기도 외형치중 개발이다.(정작 중요한 것은 알맹이

인데) 개발의 중요성도 자주능력 측면에서는 실속이 있어야 한다. 필자는 말하였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종이나 보유대수에 상관없이 부족한 것은, 아니 그 이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만일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최신예기나 무기체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준비를 미리 미리 해야 된다는 것(有備無患)을 명심하고 그것을 하루속히 이행하기를 소원한다. 이를 위하여 소요군은 후속군수지원 자주능력 확보를 위해 부품국산화를 해달라고 관련기관에 단기적, 장기적 목표와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방부의 의뢰로 군수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 해외 컨설팅업체 메킨지사는 우리 군의 군수지원체계를 점검한 후 한국군의 수리부속품 조달체계를 보고 “한국군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전쟁을 치르려고 하느냐”고 지적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외국 전문회사에서 보는 시각이며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26기 사관 이대열

- 인하대학교 항공공학 박사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형 전투기 개발단장

한국형전투기사업 공군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최근 보라매 사업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사업(KF-X)은 언론에 크게 부각되어 쌍발이니 단발이니를 놓고 그 향방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지난 2001년 공사졸업식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축사에서 처음 언급하여 2002년 연구개발로 확정된 이래 14년째 타당성 검토만 무려 6번이나 수행한 사업이다. 이토록 타당성검토만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기술력과 경제성에 대한 판단이 상충되는 것이다. 탐색개발 결과는 쌍발엔진의 C103형상으로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하다고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정책연구기관인 KISTEP과 KIDA의 결과는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 공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을 해야만 했다. 연구개발의 타당성이 없다면 직구매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2012년 KIDA의 결과에 의하면 타당성 없음이었으나 2013년 KISTEP이 다시 타당성검토를 하였고 직구매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직구매가 아니면 연구개발이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에 탄력을 받아가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단발형상의 정체성이 모호한 소위 C501이 KAI에 의해 제안되었다(그림1). 이로 인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자 기재부는 또 7번째 타당성 검

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끝없는 타당성 검토, 그 시간과 예산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04년 착수했으면 지금 우리의 하늘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2004년 착수한 KUH사업은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결심만 남은 것이다.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는 174권의 탐색개발 결과 보고서에 잘 정리되어 있다.

필자는 보라매사업을 위해 15년 동안 준비해 온 연구원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난 2012년 까지의 탐색개발 결과를 정리해보고 올바른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그림1) C103 과 C501 형상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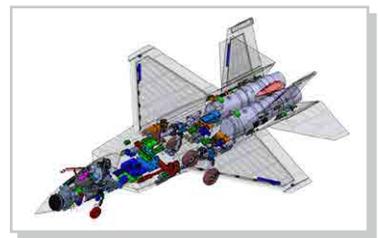


그림2) C103의 내부배치도

보라매사업 탐색개발 결과 체계개발 진입 가능 판단

보라매사업 탐색개발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으로 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 주도하에 국제공동 연구개발로 진행된 사업이다. 약 200여명의 엔지니어가 참여하여 한국형 전투기에 대해 총 3단계의 반복설계와 풍동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전투기 형상설계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스텔스 성능의 외형을 설계하였고 향후 필요시 내부무장창이 장착되도록 설계되었다. 향상된 공력 특성을 적용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형상설계와 구성품 배치설계를 완료하였다. (그림 2)

또한 이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술을 총 432개의 세부기술로 분류하여 기술 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TRL 6¹⁾ 이상이 약 90%수준으로 충분히 국내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국산화방안도 수립되어 총 108개 품목에 대해 TRL 5이하의 부족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기술 협력방안등을 적용하는 등 국산화 목표 65%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1) TRL (Technical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 기술성숙도는 1부터 9까지의 단계가 있으며, 6 이상이면 체계 개발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한편 소요군인 공군에서는 설계 완료된 형상에 대하여 전투기 운용성능, 조종실 운용성, 전투효과도 및 종합군수지원 등의 운용성 측면에서 총 58개 항목을 선정하여 운용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려 체계개발 단계전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탐색개발을 진행하면서 크게 수명주기비용측면, 산업 및 기술파급효과 측면, 시장성 측면 등 세가지 측면에 대해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수명주기비용은 개발비, 양산비 및 운영유지비를 고려하였을 때 직구매 대비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 전투기 개발을 통한 국내 산업 및 기술파급효과는 약 60조원에 달하며 고용효과는 약 4만 명에서 9만 명 수준으로 분석²⁾ 되었다. 이러한 비용분석에 대해서는 미국의 PRICE사와 스웨덴의 SAAB사에 검증을 의뢰하여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개발한 전투기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명한 분석기관인 미국의 JANES사와 영국의 SDI사에 각각 의뢰한 결과 양산단가를 6백억원에서 9백억원 (60~90MUS\$) 사이에 개발한다면 약 200대에서 700대까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유사한 결론을 확보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라매사업에 대한 탐색개발 결과는 공군 요구도를 충족하는 전투기 형상설계를 통해 군이 그 운용성을 확인하여 모두 적합하다고 판정하였으며, 기술성숙도와 경제성을 확보하여 체계개발 진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보라매사업 추진 방안 제시

그렇다면 보라매사업은 이제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공군이 원하는 미래의 전장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발 쌍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서 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국가이익을 위해 사업추진 방향과 전략을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준비해야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추진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개발비용은 탐색개발을 진행하면서 국과연 및 시제업체로 구성된 별도의 비용분석 팀을 구성하여 산출하였으며, 직구매 비용은 2009년 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자료를 활용함. 양산은 000대 기준이며 운영유지는 30년을 기준으로 하였음.

3) 관련근거 : 한국형전투기 개발 산업 및 기술파급효과 분석 결과('12. 9.28), 산업파급효과 약 20조원 기술파급효과 약 40조원 (국산화율 65% 기준)

첫째, 공군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군은 지금 중급 전투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력 중급 전투기였던 F-4, F-5 항공기가 도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양적 위주의 재래식 전력구조에서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질적 위주의 첨단 전력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공군에게 신규전력의 확보지연이라는 전력적 공백사항을 우리는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년 초기부터 2050년 이후까지 사용할 공군에서 원하는 전투기는 미래확장성을 고려한 스텔스형상과 내부무장창을 고려한 형상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군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전투기를 원하고 있다. 즉 탐색개발의 결과인 쌍발엔진의 C103형상이다. 그러나 한국항공(KAI)가 제시한 단발엔진의 C501형상은 공군의 요구조건인 내부무장창에 대한 설계를 반영하지 않은 형상(F-16과 유사)으로 공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더 이상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형상에서 내부무장창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C501형상과 C103형상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만약 비교를 원한다면 내부무장창에 대한 설계를 고려한 다른 형상 C502(가칭)의 외형을 가지고 탐색개발과 운용성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공군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전투기는 탐색개발의 결과물인 C103형상이다.

둘째, 비용분석 결과의 재 검증을 통해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비용분석에 대해 권위있는 정책기관은 KIDA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500억원이상의 사업은 KIDA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다. 보라매사업도 작년 KISTEP과 KIDA의 검토결과에 의해 금년예산 200억을 확보하였지만 아직도 체계개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단발 쌍발의 형상이 결정되지 않아 총사업비에 대한 결정이 미루어진 상태이다. 그럼 왜 용역 결과로 단발엔진의 C501형상이 나오게 되었는가 배경을 살펴보면 비용문제이다. 쌍발인 C103으로 가면 비용이 2조원이상 증액되어 곤란하니 개발비가 저렴한 단발C501로 가자는 것이다. 대안으로 한국항공(KAI)가 주장한 것이다. 이것을 개조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KISTEP에서 신규개발안(C103)과 개조개발안(C501)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비용분석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업체가 제시한 개발비 7.6조원(C103)과 5.8조원(C501)은 탐

색개발대비 쌍발인 C103은 1.3조원이 증액되었는데 단발인 C501은 전혀 증액되지 않았다. 이는 단발로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비용제시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업체가 제시한 비용에 대해 KISTEP(KIDA)는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임금인상률등 제비율만 적용하여 쌍발인 C103은 8.6조원 단발은 6.4조원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통상 비용분석의 결과는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삭감하는 것이 상식이나 오히려 부풀려 주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C501로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국책기관의 비용 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셋째, 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소유권을 확보한 전투기를 만들어야 한다.

국내 항공산업은 80년대 이후 F-5E/F(제공호) 조립생산을 시작으로 90년대 초반 KF-16 면허생산, 기본훈련기 KT-1 독자개발, '00년대 고등훈련기 TA-50 및 한국형 헬기 KUH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최근의 FA-50 경전투기 및 중고도 무인기인 MUAV 등의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기술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항공산업의 기반으로 보라매사업은 최소 65%의 부품 국산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국내에 이미 설계, 제작, 시험평가 등의 개발 경험이 있는 품목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부족기술이 있는 품목은 기술협력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시킬 예정이다. 부품이 국산화 된다는 것은 신속한 부품조달을 통한 공군의 무기체계 가동율 향상과 운영유지비의 획기적인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라매사업이 국외도입 혹은 개조개발 형식으로 변질 되었을 시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다. 개조개발 업체는 당연히 비용을 고려하여 부품을 개발하기 보다는 싸게 구입하여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에서 제기한 C501 개조개발 방안만 보더라도 주요부품의 국내개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록히드마틴에 의지하여 주요핵심부품은 외국에 맡기는 형태로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한다. 즉 레이더를 포함하여 임무컴퓨터, 전자전장비, 생존장비 등을 록히드마틴사에 막대한 기술료를 주면서 맡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개발하지 않으면 해외에 종속되는 기술이다. 보라매사업은 바로 이러한 핵심기술들을 국산화시킴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유도시킴은 물론 성능개량과 국산무장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라매사업은 반드시 과거 20년전의 T-50처럼 핵심기술을 록히드마틴사에 의존하는 형태로 가서는 곤란하며 핵심기술의 기술소유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국제공동개발과 국제기술협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제공동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공동으로 탐색개발을 수행하여 개발한 C103형상에 대해 체계개발시에도 20% 참여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는 탐색개발 결과와 무관한 별개의 형상을 가지고 논의도 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판단 기준은 탐색개발 결과물인 신규형상 C103인 점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는 국내 정책적인 문제이기에 앞서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최근 상당한 교류를 가지면서 방위산업 측면에서는 가장 큰 보고라고 할 수 있다. KT-1, T-50, 잠수함 등의 수출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래 잠재요소가 큰 국가임을 고려할 때 탐색개발결과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을 할 경우 장차 더 큰 손실과 국가적 신인도 하락 및 지금까지의 우호적 방산 협력관계마저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⁴⁾이기도 하다.

국제기술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국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F-X 3차 업체가 선정되면 자동으로 보라매사업의 기술협력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이제는 록히드마틴사로 결정되는 쪽으로 방향은 잡혔으나 제시한 절충교역 내용을 살펴보면 보라매사업의 부족기술에 대해 주겠다고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업체가 준다고 하더라도 미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공개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조건을 제안요구서에 포함시켜 미국과 유럽의 선진항공사를 상대로 경쟁을 유도할 때만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기술소유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의 투자유도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것도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추진 할 경우에 부족기술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신뢰성 있게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성능 개량할 수 있고 국산무장을 장착하여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는 공군이 원하는 미래의 국산전투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4) 인도네시아 유력 시사지 템포가 포스 후타바랏 국방부 사무총장을 인터뷰하고 KFX가 '열매 없는 사업' 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전문가 60명을 한국에 파견하고 750만 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KFX 사업이 2014년 9월까지 연기되면서 2년 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국이 KFX 연기 사실을 제때 통보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한다는 보장도 없는 등 파행을 계속했다고 포스 총장은 밝혔다.

30기 사관 **최영훈**

- 공군본부 정훈공보 실장
- (현) 공군역사 기록단장

국방과 공군력에 대한 斷想

벌써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가 다닌 서울 근교의 중학교에는 누구의 도전도 불허하는 최고의 ‘주먹짱’이 있었습니다. 말도 별로 없고 호리호리한 몸집에 얼굴은 미소년처럼 희고 고운, 싸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친구였지요. 그렇지만 그 애가 학교에 나타나기만 하면 덩치가 남산만하고 또래보다 힘과 주먹이 몇 배나 센 친구들도 그 애 앞에 설설 기면서 눈을 내리 깔아야했습니다. 반면 불량학생들에게 심심풀이 땅콩 신세가 되어 번번이 괴롭힘을 당해야 했던 일반학생들에게는 한마디로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애가 ‘주먹짱’으로 절대 군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그 친구는 왜소한 걸모습과 달리 태권도와 유도로 단련된 날렵한 몸과 차돌 같은 주먹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다 싸움이 나도 상대방은 가까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대기 쳐지거나 번개 같은 주먹을 맞고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불량학생은 물론 동네 깡패들까지 그를 두려워한 진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 싸움의 전략이 확실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애는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오거나 나쁜 짓을 하는 불량배들이 있으면 그 중 가장 센 녀석을 골라 정식 결투

를 신청하고 날짜와 장소를 친구들에게 전파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넓은 공터에서 많은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불량배의 인체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거나 관절을 꺾어 움작달작 못하게 한 다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늘 무적의 존재감을 과시한 그였지만 어두운 밤 등 뒤에서 쇠몽둥이 같은 흉기로 기습을 받아 다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애는 자신을 공격한 녀석을 찾아내서 가차 없이 몇 배로 응징하여 다시는 감히 도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의 미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의 한 가난한 동네에 ‘캐시어스 마셀러스 클레이’ 라는 이름의 12살짜리 흑인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노예의 후손이라는 달갑지 않은 멍에를 지고 궁핍한 시절을 보내던 그에게 작지만 운명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클레이가 애지중지하던 재산목록 1호인 고물 자전거를 도난당한 것입니다. 그 사건이후 클레이는 도둑놈을 잡아 혼내주겠다는 일념으로 권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6년 후 기량이 일취월장한 클레이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1960년 로마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그는 당시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에 분노하며 금메달을 오하이오 강물에 던져버리고 1964년 프로로 전향합니다. 무하마드 알리라는 새 이름을 가진 그는 19년간 세계 권투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들을 보여주면서 일약 20세기 최고의 스포츠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확실히 그의 경기 모습은 이전과는 판이한 현대 복싱의 진수 그 자체였습니다. 차라리 예술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입니다. 알리 이전의 권투는 중량급의 경우 멧집과 주먹을 앞세우고 무조건 전진하여 치고받다가 먼저 행운의 결정타를 때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었고, 경량급의 경우는 가볍게 치고 빠지는 득점 위주의 지루한 아웃복싱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리의 복싱은 전혀 달랐습니다. 링 밖에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뛰어난 언변과 약점을 간파하는 영리한 머리, 0.1톤을 넘나드는 헤비급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스텝(알리시스템으로 특별히 명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홍수환 선수가 제일 잘했습니다), 2미터가 넘는 긴 리치를 이용하여 속사포처럼 상대방의 안면에 쏟아 붓는 잼과 강력한 결정타, 그리고, 웬만한 공격으로는 깨기 힘든 단단한 커버링과 유연한 허리에서 나오는 노련한 로프(rope work)까지. 복싱전문가들은 무하마드 알리처럼 공격과 방어, 임기응변 능력을 고루 갖춘 세계 챔피언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64년 백인들의 희망이었던 소니 리스틴과의 헤비급 타이틀매치에 앞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말 그대로 멋지게 KO승을 거둔 경기와 1974년과

1975년 최강의 맞수이던 ‘조지 포먼’과 ‘조 프레이저’를 차례로 캔버스에 쓰러뜨린 경기는 무하마드 알리의 진가를 확실히 보여준 명승부로 남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가 중세 암흑시대를 무너뜨렸듯이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은 기존의 복싱을 혁신의 경지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현역 시절, 저는 앞서 소개한 ‘주먹장’의 싸움과 ‘무하마드 알리’의 경기를 여러 번 음미하면서 전쟁수행의 방법과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방향을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공통된 싸움의 방식은 먼저 보고 먼저 때릴 수 있는 신속한 기동성과 순발력, 원거리에서도 적의 핵심을 강타할 수 있는 정밀하고 가공할 응징보복능력,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어능력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적인 북한과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는 우리 군의 핵심능력이며, 그러한 군사력 건설은 공군력 정예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주요전쟁을 통해 공군력은 1등만이 있을 뿐이며 차등은 생존조차 힘들다는 분명한 사실이 저의 믿음을 더욱 굳게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새로운 전승(戰勝)의 역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기체계와 싸우는 방식의 혁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제국과 징키스칸은 강력한 기보병(騎步兵)으로 세계를 지배했고, 16세기 조선의 이순신 장군은 당시로서는 비대칭 전략무기인 거북선으로 궤멸 직전의 조선을 기적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지배층의 무능으로 구식 병기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선육군이 신식무기인 조총을 앞세운 왜군에게 패전을 면치 못한 사실을 생각해볼 때 최악의 여건에서도 유비무환을 실행한 충무공의 군사적 천재성은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하겠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 대영제국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세계를 주름잡았지만 20여년 후 2차 대전 당시에는 불과 2,300여명의 엘리트 공군 조종사들이 결사의 공중전을 통해 풍전등화의 조국을 지켜내었습니다. 이후 공군력은 현대전의 총아로 최근의 거의 모든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오늘의 군사최강국이 된 것은 5대양을 주름잡는 미 해군 때문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전력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첨단 항공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어도 수상전력에 관한한 미 해군은 바다위의 공군과 진배없습니다. 이제 지상전투이건 해상전투이건 공군(항공우주력)의 역할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군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적,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지만我지해상군의 안전과 작전수행을 보장하는 수호천사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걸프전과 아프칸전을 또다시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일찍이 6.25 전쟁 당시 미 극동공군사령관으로 공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해낸 ‘조지E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은 그의 저작 ‘한국전쟁 일기’를 통해 6.25 전쟁이 일반대중이 알고 있는 것처럼 치열한 지상전투를 통해서만 승패가 가려진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당시로서는 최신 항공무기체계를 보유한 UN 공군에 의해 하늘에서 이미 전세가 판가름 났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중반부터 아군이 승리한 대부분의 주요전투는 유엔공군의 압도적인 공중우세와 적 후방 용단폭격, 그리고 근접항공지원에 힘입은 바 컸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육군출신인 맥아더 장군이었는데, 맥아더 장군은 그 당시에 이미 공군의 중요성과 결정적 역할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스트레이트 마이어 장군을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중요시되어온 공군력 건설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서 마음처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치 무하마드 알리 시대 이전의 헤비급 권투경기처럼 체중이 100킬로그램을 훨씬 넘고 배가 불룩 나온 선수가 느릿느릿 상대방과 지루한 공방전을 벌여 온몸에 피멍이 들고 깊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무승부로 경기를 마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수세적 전쟁 마인드가 이 땅에 상존하고 있지 않나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부 반대론자들은 공군력 건설에 필요한 고가의 사업비와 유지비를 트집 잡으면서, 한반도 전장에서는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국방력을 건설해야하며, 나머지는 지상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장 환경이 변했어도 국방에 있어 지상군이 점유하고 있는 변치 않는 가치는 인정되어야하며, 같은 값이면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공군력의 결핍이나 공군력 건설의 지연이 불러오는 국가이익의 훼손이나 안보위기가 몇 배, 몇 십 배 더 크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늘이 위태로우면 땅과 바다위의 군대가 아무리 많고 강해도 태풍 앞에 등불신세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태생적으로 공세 및 억제전력인 공군력의 운용을 소극적 방어 내지는 지상군 지원용으로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확실하게 표명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공군인들이 탄탄한 논리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960~70년대 국민적 영웅이었던 프로레슬링의 김일

선수가 태그매치에서 상대방 선수를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박치기로 KO 직전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데 같은 편 선수가 누워있는 상대선수를 넘겨받아 가볍게 몸으로 눌러 폴승을 거두었을 경우 과연 관객들은 누구 때문에 한국팀이 승리했다고 생각할까요? 공군이 김일 선수의 경우처럼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처럼 근접전투로 인해 유혈이 낭자하고 전상자가 속출하는 리얼한 전장상황을 보여주지 못해서? 고지에 최후의 깃발을 꽂지 못해서?, 아니면 공중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전투상황이라 목격자나 증언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을 예방하고 만의 하나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터지더라도 가장 빠르게 기동하여 적에게는 결정적 타격을 입히며我지해상군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어렵게 쌓아올린 국가경제가 파괴된 후에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하면서 조기에 승리할 수 있는 관건은 여전히 강력한 공군력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통해 공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공군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크고 절대적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비대칭 무기로 이 땅의 안보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신속성과 은밀성, 정밀성과 치명성을 고루 갖춘 첨단 공군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과는 전혀 판판인 새로운 전쟁의 테크놀로지가 생기지 않는 한 이 같은 공군력의 우월적 가치는 한반도에서도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 최근 전직 미국 방장관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한반도 방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미 공군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있었음을 밝힌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월감에 도취되어 자신들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전쟁억제 및 응징보복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사전력인 공군력 건설에 대해서는 군내외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군력(항공우주력)은 편의상 공군이 운영하지만 공군만의 것이 아닌 국가급 안보자산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군력 건설을 비전문가들이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고 통제하려드는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의 ‘싸움짱’ 과 ‘무하마드 알리’ 가 직접 보여준 것처럼 이제 우리 공군은 오랜

조연 아닌 조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비록 작지만 연합합동전장의 빛나는 스타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며, 국가위기 시에는 무하마드 알리처럼 나비처럼 유연하고 신속하게 날아가 적의 급소를 말벌처럼 초토화할 수 있는 국가전략군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공군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세력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눈앞의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항공우주군의 위용도 차곡차곡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차기 전투기도입사업과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등 핵심사업의 적기추진과 강한 정예공군 육성을 위한 조직혁신에 전 공군인의 일치된 목소리와 함께 몇 배의 노력 집중이 어느 때 보다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군력은 지해상군의 뒤통을 잠식하는 라이벌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지해상 전투에서의 승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수호천사이자 최소한의 피해로 연합합동작전의 성공을 견인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21기 사관 신보현

-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초빙교수
- 무기체계연구소장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는 글

사람들은 한국의 현대사를 1945년 이후 세계사에서 가장 예외적인 성공사례로 꼽는다.¹⁾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의 오늘과 같은 성공적 발전은 무엇보다도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한 ‘경제 우선 정책’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국가도 민주주의 사회구현, 경제발전, 주권수호, 사회통합을 동시에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제대로 된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는 성공과 희생의 양면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인도가 비슷한 시기에 주권국가로 독립하여 그 동안 걸어온 길을 비교해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국은 초기 국가 지도자들이 주권 수호와 경제 발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후순위에 두었다. 그 결과 과정상에 다소 폭력과 희생이 따랐어도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여 산업화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민주화까지 이루어냈다. 반면에 인도의 초기 지도자들은 민주주의 유지와 사회주의적 경제발전 기

1) 박지향, '8월15일 이후 한국과 인도가 간 다른 길',
조선일보(아침논단), 2010. 8. 12

조에 집착하였다. 그 결과 과정상에서 폭력과 희생은 덜 겪었지만 국가 건설에 기본인 경제 발전을 지연시킴으로써 1950년 당시에는 똑같았던 한국과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10년 기준시 대략 15배 이상의 격차가 나게 되었다.

한국은 이제 60년 전의 초라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 한국은 그 동안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현대사에서 가장 예외적인 성공사례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이룩한 경제성장과 정치민주화는 거시적 차원의 모습일 뿐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한국사회가 선진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면면들이 존재한다.

2. 내일을 위한 길

이제 한국인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이룩한 외적인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에 만족하지 말고 선진 시민의식을 육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선진국 시민으로서 지구촌 사회를 선도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한국인이 그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연구해보고 싶은 대상이 될 정도라고 해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대우는 선진 7개국들에는 한참 못 미친다. 삼성경제 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국가브랜드지수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국가브랜드 '실체지수'와 '이미지지수'는 각각 15위와 19위에 머물렀다고 한다. 국제사회에 비치는 한국의 이미지는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는 좋으나 정치, 사회 분야에서는 좋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 언론에 나타난 한국 관련 부정부패, 비리, 외교분쟁 범죄 등 정치, 사회분야에서 부정적 기사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 다른 분야에 비해 뒤쳐진 정치, 사회분야의 후진성은 한국의 국격과 관련한 문제로서 결국 한국인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예우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한국국민들이 진정한 선진국의 시민다워져야 한다. 그 동안 경제성장에 집중하느라 육성하지 못한 한국인 개개인의 인격 향상 노력과 나라 규모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제는 선진국 시민답게 증오와 복수를 대물림하지 말고 주변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함께 보고 사안을 올바르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충실하며 반칙을 범하지 않고, 타인에게는 이해와 배려,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1970년대의 '잘 살아보세'라는 목표 대신 '선진국 시민이 되자'를 목표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할 시기가

2) 최규민, '한국, 국민수준 높여야 G7 대접받는다.', *조선일보*, 2012. 5. 30

되었다. 선진국 시민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습관과 성향을 과감히 버리고 선진시민의식 육성에 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3. 우리의 도전

다음은 더 밝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아야 한다. 한국인들은 지형적 환경적 영향의 기질이 있어 유동적이고 기회주의적 생활태도가 강해서 강자에겐 약하고 나서기보다 뒤에서 남의 손을 빌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자기의 실력보다는 혈연, 지연, 학연에 의탁하여 출세하려는 마음이 강하다. 나와 남으로 구분하여 편을 가르고 자신의 생각에 무관하게 단지 같은 편이라는 것으로 부화뇌동하는 습성도 강하다. 이제 과거 사회적 여건에 의해 대대로 한국인들의 핏속에 체질화되어 남아 있는 혈연, 학연, 지연의 연계를 객관화하고 집단주의 성격의 패거리 문화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신을 어느 집단에 가두어 부화뇌동 할 때는 정체성 부재로 결국은 독립된 개체로서의 존재 가치는 물론 능력 발휘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선진국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집단주의에서 탈피하여 내 실력, 능력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내 자신부터 하나의 독립된 당당한 개체로서 반칙하려 하지 말고 정상적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둘째 생활의 여유와 유연성 그리고 너그러운 성정을 갖아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의 기성세대 대부분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남들이 휴가와 오락을 즐길 때에도 일주일을 월, 화, 수, 목, 금, 금, 금요일로 휴일도 모르고 살아왔다. 그것도 모자라 매사를 ‘빨리 빨리’ 서둘러 왔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유가 없고 유연성이 떨어진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세상을 자신과 같은 방식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그것만이 선(善)이라고 자식이나 부하들에게 강요하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했다. 이제부터는 오늘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줄알며, 원칙을 준수하고 무엇보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를 갖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그 동안의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를 향해 근면과 강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집중한 삶의 행태에서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자신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하며 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남과 함께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신의를 지키는 선진 시민의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함

으로써 생활에 여유와 유연성을 기르고, 너그러운 성정을 육성하여 선진 시민으로 도약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셋째 언제나 당당하며 대범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제 30회 런던올림픽 축구경기에서 한국팀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동메달을 획득했다. 경기과정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영국과의 8강전 경기였다. 한국팀은 연장전까지 벌여가며 1대1 무승부에서 승부차기를 하여 5-4의 승리를 거둠으로 한국인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상대편 국가의 심장부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7만여명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서도 한국의 선수들은 모두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미래 한국을 이끌고 나아가 갈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아마도 7-80년대였다면 2-3명, 90년대라면 1-2명은 실축했을 경기에서 당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기 여건을 극복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자신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이면 기성세대까지도 선진국 시민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든 당당하며 대범한 태도를 견지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가들에 도움과 지원을 해주는 여유를 가질 때가 된 것이다.

넷째 책임을 다하는 주인의식의 육성이다. 건전한 사회의 요건은 그 구성원들이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다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려면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자 역사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책임적 행위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해야 하는 바 즉, 도리를 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책임감을 고취시킬 것인가? 개개인의 주인의식 함양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인의식은 고양되게 되어 있다. 의식적으로 “OO다운 사람” 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자. 아버지다운, 어머니다운, 형님다운, 선생님다운, 군인다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 하는 것이다. 한국의 21세기 미래는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속한 조직과 사회에 궁극적으로는 조국에 책임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선진시민을 향해서

이제 한국인들은 한국사회, 더 나아가 지구촌의 주류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먼저 변화하는 국제사회를 선도 할 수 있는 자세를 육성해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인들은 선진국을 열심히 추적하여 오늘의 성취를 이루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의 대열

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세계 인류 복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력을 보유해야 하며, 둘째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학기술을 보유해야하고, 셋째 인문사회적으로 세계의 인류문화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세계가 몇 개의 거대 문화권으로 나뉘어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보였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세계가 하나의 거대문명권을 이루어 수없이 다양한 문화 유형들이 탄생과 소멸을 거듭할 것으로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갈등과 반목, 무절제한 자유와 획일적인 평등을 넘어 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이루는 신문명인 21세기 문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³⁾ 이러한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21세기 신문명에 적합한 ‘상호 의존하며, 공생하는 인간형’으로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고 한다.

물론 우리는 이미 과거의 문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명에 대한 도전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문명에 대한 주역이 되기 위한 발상의 전환과 실천의지, 이를 북돋울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선진사회를 선도하는 선진시민으로의 도약 운동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다음으로 폭넓은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자세를 육성해야한다.⁴⁾ 2012년 세계 81개국에서의 설문결과를 가지고 워싱턴포스트가 작성한 ‘인종 차별 지도’⁵⁾에 의하면 한국은 인종적 관용도에서는 여섯째 단계로 평균 이하의 낮은 나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게 나타나게 작용한 원인중 하나가 한국인의 강한 단일민족의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인들은 80%의 북방계와 20%의 남방계의 두가지 형태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민족의 단일성은 생물학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관점에서 성립한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한국인들이 선조대대로 주변국 사람들과 다른 독자적인 습속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그 근거이다. 한국인들에게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것은 나라가 외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선각자들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성과 단일성을 강조하여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 근친 교배는 결국 멸종하게 되어 있듯이 단일 민족을 고집하고 유지하는 것이 21세기 세계화와

3) 조선일보-경희대 공동기획, ‘새로운 문명이 온다.’, 조선일보, 2008. 1. 1

4) 김광일, ‘인종차별지도’, 조선일보(만물상), 2013. 5. 20

5) 이재준, ‘WP 「한국, 中·日보다 인종차별 심하다.」’, 조선일보(100자평), 2013. 5. 18

그에 따른 만국간의 무한경쟁 시대에 부합되는 사고인지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 생각한다.

경쟁력 있는 문화란 이질 문화가 섞이고 융합할 때 태어난다. 한국인들의 단일민족이라는 의식, 그래서 다른 인종에게 관용도가 낮은 현실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민족자결주의가 통하던 20세기 초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에 집착 말고 다른 종족과 문화를 수용하는 개방된 사회로 가야만 하는 이유이다. 이어서 좋은 말 사용 문화를 정착 시켜야 한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운명은 말하는 대로 변화된다. 통계적 근거는 아니지만 유명한 가수들의 경우를 보면 신나고 즐거운 노래로 히트한 가수들은 노래 가사와 유사한 삶을 살고, 고통, 이별, 죽음, 슬픔, 한탄, 주제의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 가사와 유사한 삶을 사는 경우를 보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말한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데 나쁜 말을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상황이 부정적으로 되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면 상황이 긍정적으로 된다고 하는데 굳이 부정적 언어를 사용 할 이유가 없다. 항상 좋고 아름다운 말과 말씨를 사용해야 하는 까닭이다. 일상 생활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즐거움, 기쁨, 행복을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은 내게 되돌아 옵니다. 이렇게 생활화된 아름다운 말과 말씨는 우리가 이룬 경제 번영에 추가해서 행복의 밑거름으로 한국인들의 격을 선진사회의 시민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5. 맺는글

우리는 우리의 밝은 내일을 위하여 물질문명의 수준에 걸 맞는 정신문화의 수준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구습, 관행과 타성에 의한 사회 운영 체제와 관습으로는 초음속, 최첨단의 IT체제의 사회를 운영 관리 할 수가 없다. 그 사례를 금번 여객선 세월호 참사에서 볼 수 있다. 한국인 모두가 효율성 보다는 법과 질서, 제도와 절차의 준수에 앞장서야 하며,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포용하고 용융상승하는 지혜를 발휘해야한다. 한국인은 훌륭한 정신문화의 바탕과 수준을 갖고 있다.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잠시 소홀했던 훌륭한 정신문화를 복원해야 한다. 선공후사(先公後私), 화이부동(和而不同),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며 여유로움을 아는 선비정신의 함양과 도덕 재무장운동을 실천해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의 밝은 미래가 보장 될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Korea Air Force Academy

회원기고

◆ 공사 2기생의 60년 전 생도 시절 회고	고영근	72
◆ 12기 사관 50주년, 그 발자취	배기준	76
◆ 2013년 최우수 조종사 소감문	박근형	86
◆ 2013년도 탐견 소감문	김태석	88
◆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김진현	90
◆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정우	93
◆ 보라매의 길	이윤우	96
◆ 피고지고 시늬이	김영부	98
◆ 남경의 뉘	이희용	99



◆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이종학	106
◆ 10기사관의 관악산 찬가	이은봉	112
◆ 이창운 대장의 충정	김동기	116
◆ An Unfogettable Memory	박성국	120
◆ 나는 왜 환갑을 지나 암벽을 오르는가	금기연	124
◆ 여명21기 산우회 히말라야 트래킹	여명21기 히말라야 원정대	128
◆ 귀거래의 호연지기를 꿈꾸며	최병운	133
◆ 국선도 수련기	장창연	139
◆ 꿈을 가꾸는 농부의 길	서성도	142
◆ 나도 홀로 여행 할 수 있다!	유원봉	147
◆ 밤하늘의 보석	하원훈	160
◆ 장군과 모나리자의 만남	신문식	168
◆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허두기	173
◆ 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	장석원	176
◆ 사찰속에 깃든 의미	오진교	182

공사 2기생의 60년 전 생도 시절 회고



2기 사관 **고영근**

[공사 2기 사관 임관 60주년 기념 오찬 인사]

존경하는 김창규 총장님, 박원석 총장님, 윤자중 총장님 그리고 최규순 선배님, 최동호 3기생 회장님, 정재식 5기생 회장님, 오늘은 건군 65주년 기념행사가 있는 날 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마다하시고 우리 2기생 모임에 와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기 사관 동기생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50주년 행사 이후 처음이어서 매우 반갑고, 미국에서 먼 길을 와주신 최장룡 부부와 홍두표 부부를 환영합니다.

공사 2기생은 60년 전 10월 1일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공군총참모장 최용덕 중장, 공사교장 김창규 준장을 모시고 군악대의 연주 속에서 졸업식과 함께 임관을 했습니다. 이 임관이 있기까지의 생도생활을 잠깐 회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공군사관학교 60여년 역사상 입교식 없이 입교한 기생은 공사 2기생이 유일하고 또한 입교하는데 1개월이 소요된 것도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입교식 없이 입교하였을까요? 2기생의 병적 기록에 공군사관학교 입교일이 1951년 1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1월4일에 중공군이 서울을 점령하여 공군사관학교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입교식 거행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입교하는데 1개월이 걸린 경위를 회고해 보겠습니다.

제2기 공군사관후보생의 모집과 시험은 1.4후퇴 직전의 대혼란상태에 있던 1950년 12월에 서울, 대구, 대전 부산의 4개 지역별로 이루어 졌습니다.

서울지역에서 25대1의 경쟁률로 합격한 100명의 사관후보생은 12월 24일 4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서울을 출발, 대구로 향하였고, 3일후인 12월 27일에야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도착하여 부산 지역 합격자 10명과 합류하였습니다. 이 110명은 12월 28일 동춘비행장 근처에 위치한 해서국민학교로 이동하여 10일간 머물러 있다가 51년 1월 7일에 대구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대전지역 합격자 10명과 대구지역 합격자 25명과 합류하여 145명이 기차에 승차하였는데, 부산에는 3일 후인 1월 10일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산 시민극장에서 3일간 체류하고, 1월 13에 해군 LST로 부산항을 떠나 1월 14일에 제주도 모슬포 근처의 바닷가에서 하선을 하였으니 서울 지역 합격자는 서울을 출발하여 20일 만에 제주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제주도에 도착 후 10일간 모슬포 비행장 근처의 구 일본 해군 건물에 있다가 1월 25일에 모슬포 대정국민학교로 이동하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1951년 1월 25일에 모슬포 대정국민학교로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2기생은 입교하는데 꼭 한 달이 걸린 것입니다. 2기생은 그곳에서 4월 26일까지 3개월간의 군인기본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식기가 부족하여 그릇 하나에 밥과 국을 함께 주었고, 밥은 보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은 콩나물 된장국이거나 미역이나 당면에 되지 비계가 동동 뜨는 된장국이었습니다. 수저는 공용이 없고 각자가 지참하고 다녔습니다. 식사량 양이 적으니 항상 배가 고프는 상태였습니다. 잠자리 또한 협소하여 불침번을 서고 나면 다음 불침번이 일어나서 잠자리를 비워주어야 잠자리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복장은 누런 작업복에 신발은 국방색 작업화였고, 모자는 파란색의 야구모자였습니다. 인간 생존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으니 이는 당시의 포로수용소의 포로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생활환경은 아침에 점호가 끝나면 단체로 해안가에 있는 샘물터에 가서 세면을 해야 했습니다. 바닷가에는 지하수가 샘솟는 곳이 있어서 모슬포 주민들의 식수원이기도 한 곳이었었는데 충분한 양의 담수가 샘솟아 올라와 세면도 하고 휴일에는 집단으로 세탁을 하러 가곤 하였습니다.

아침에 세면을 하러 가면 모슬포 아주머니들이 고구마를 삶아서 광주리에 담고 나와 팔았는데 우리 차례가 오기 전에 나이가 많은 기술장교 후보생들이 몽땅 사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쳐다 보기만 하는 신세가 되곤 하였습니다. 하긴 사먹을 돈도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좁은 내무반에 불결한 침구와 의복 때문에 이가 많이 끊어서 휴무일에는 내무반에서 옷을 벗고 이 잡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교육 훈련에 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관, 교실, 교과서등이 없었으니 교육은 불가능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 차려 자세, 경례 동작, 군인다운 걸음걸이, 도수 각개동작, 도수 집단훈련, 구보, 공군 5분간 체조 등이 주요 훈련 내용이었습니다.

1951년 4월 26일 모슬포를 떠나 5월 1일부터 진해 사관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모슬포에서의 생활보다 개선된 것이 주저 환경이었습니다. 구대별로 내무반과 자습실이 생겼고 세면장과 변소가 단체용이지만 따로 생겼습니다. 급식에 있어서는 모슬포에서 그릇 하나에 밥과 국을 함께 받아먹었는데, 진해사관학교에서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따로 생겼고 수저도 공용이 생겨 밥 먹을 때 개인별로 수저를 지참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에 와서도 반찬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는데 식탁위에 밥그릇과 국그릇을 놓고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내무반과 자습실, 교실에 난방은 안 되었습니다.

진해로 이동 후 약 1개월간은 학교 건설에 종일 투입되어 삽, 곡괭이, 들것, 가마니 등을 이용한 정지작업(整地作業)을 하는 노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시설이 어느 정도 정돈된 후부터 오전에는 학과교육이나 군사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학교 건설에 종사하는 매우 고단한 생활이 6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사관생도 생활을 회상할 때 배고프고 춥고 힘들게 지냈다는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러나 그때는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생존에 매달린 시기여서 우리들은 불평 없이 잘 견디어냈으며, 그것이 2기생 모두에게 참을성과 인내심을 심어 주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생도시절의 회상을 끝내고 임관 당시의 상황을 잠깐 회상해 보겠습니다.

1952년에 조종사 적성신체검사를 하여 조종사 교육이 가능한 80여명을 가려내고 나머지 80여명은 정비와 통신 특기 교육을 받게 하여 정비 특기자 39명, 통신 특기자 43명이 양성된 것입니다. 조종 특기 교육 대상자 중 40명만이 조종 특기를 받고 나머지 19명은 비행적성 불량으로 타 특기로 전환하였는데, 그 특기는 기상, 항공관제, 방공무기, 무장, 보급, 시설, 인사, 교육, 관리, 정훈 등이었습니다.

2기생이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950년 12월의 공군 병력 중 장교는 240명이었는데, 2기

생이 임관된 후인 1953년 12월의 공군장교 수는 1,745명이 되어 2기 사관이 장교단의 8%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141명의 2기 사관 장교 중 100여명이 특기분야 별로 미국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왔으며, 당시 각기 특기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최고 실력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공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기생이 군 복무 중 순직한 수는 11명이었고, 그 중 조종사는 9명 이었습니다. 2기생의 장군 진급자 수는 27명이며 그 중 2명은 순직 후 진급이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현재 임관 141명 2기생 중 생존회원이 69명이었고, 그 중 16명이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 회원은 53명입니다. 80세 중반의 나이에서 50명 이상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미국에서 7천명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친구의 수' 였다고 하며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병에 잘 걸리고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2기생은 모두 백세장수의 조건을 갖춘 셈이니 앞으로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는 방법이 동기생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더 자주 만나기를 기약하며 저의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기 사관 50주년, 그 발자취



12기 사관 배기준

올해 2014년은 공군사관학교 제 12기 사관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먼저 우리를 낳아 준 모교 공군사관학교와 우리를 길러 준 모군 공군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최고의 경의를 표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 평생에 한가지 큰 업(業)을 갖는데 우리는 일찍이 직업 군인으로 조국하늘을 지키는 공군을 선택하였다. 그 길로 가기 위해 공군의 핵심 간부를 양성하는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한 12기 사관은 ‘은성회(銀星會)’라 이름하여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은빛 별무리가 되었다.

반세기를 넘어 흘러온 인생(人生)의 강물은 가뭄에 마르거나 홍수에 넘치지 않았으며 때로는 산이 가로 막아 길이 막히면 돌아갈지언정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 세월 속에 은빛 별들은 나라를 지키다가 군인으로 죽기도 하고 혹은 살아 맡은 바 국방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군문을 떠나 일반인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슬프고 아픈 씨줄과 기쁘고 즐거운 날줄을 서로 엮어 완성한 우리의 역사는 한없이 보람되고 자랑스럽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으로 본다면 25년 간격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되고 그 계절은 독특하여 봄에는 가꾼 땅에 싹이 트고, 뜨거운 햇볕아래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여름이며,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거둔다. 그리고 그것을 곳간에 저장하고 떨감을 쌓아 겨울 채비를 한다. 삶도 계절을 닮아 그렇게 변하며 지나간다. 이제

우리들 나이 70 중반, 겨울의 문턱에 서서 아스라이 우리가 걸어 온 50년의 발자취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시 뒤돌아 본다.

[봄] 입교, 사관생도 시절

6.25 한국전쟁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아 가난하여 힘든 시절, 4.19혁명의 여명이 밝아오던 1960년 3월 중순, 우리는 서울 대방동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그 날 전국 각지에서 여러 차례 선별 끝에 28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수자원 70명이 전연 예측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었으니, 어쨌든 이렇게 우연(偶然)으로 시작하여 장차 생(生)과 사(死)를 같이 할 전우(戰友)라는 필연(必然)으로 묶여지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사관학교는 나태하고 무질서한 습관으로 부터 새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이글거리는 용광로다. 어미 독수리가 천길 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뜨려 살아 돌아 오는 새끼만 먹이를 주듯이 장차 하늘을 지배할 자의 그 적자생존법도 철두철미하고 여간 냉정하지 않다. 그러니 새끼 후배 눈에는 어미 선배가 스스로 우러러 눈부신 존재로 보였다.



사관학교는 치밀한 지성(知性)과 대담한 야성(野性) 그리고 강인한 체력(體力)을 목표로 전인적(全人的)인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학교 구석 구석에는 참으로 인성(人性)에 관한 위대한 덕목들이 많다. 우리는 ‘무용(武勇)’이라는 교훈 아래 생활 계명(戒命)인 ‘공사10훈(訓)’을 실천하며 학년별로 복종, 모범, 자율, 지도라는 생활 모토(motto)에 충실하였다. 사관생도는 진리를 구하며 허위를 버리고 고결하고 정직하며 굳세어 꺾이지 않는 강직함,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더 높은 자존심으로 명예를 지키며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야 하고 술선수범하는 희생심을 최고의 가치(core value)로 여기면서 한장씩 벽돌을 착실히 쌓아 올라 갔다.

그러면서 균인다운 언행(言行)으로 복명복창은 필수이며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했다. 점호, 내무검사, 벌칙보행 그리고 여러가지 기합을 통해 생도가 지녀야 할 품격 높은 신사도의 궤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다. 당장은 고달팠지만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입에 쓴 보약이었다. 정신 교육 뿐만 아니라 육체 훈련 또한 대단했다. 의식주(衣食住)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복장으로 한 숯밥을 먹으며 한 지붕 밑에서 잠자고 흘린 땀과 덮어 쓴 휴면지를 같은 목욕탕으로 들어 가 서로 등을 밀어주며 고통을 위로하고 웃었다. 사흘이 멀다하고 야간에 M1 집총구보로 시흥교를 돌아 학교 정문 고개를 들어서면 1기 선배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이 흐릿한 의식 속에 가물거린다. 가슴 치는 심장 박동과 단내 나는 거친 숨결을 가쁘게 고르며 종착지 생도전대 점호장에 들어서자 아테네의 마라톤 전사가 되어 쓰러진다. 고통을 인내하며 사력을 다한 책임완수였다. 대장정 행군훈련 중 어느 이름 모를 길가 풀밭에 드러누우면 비록 짧은 휴식 시간이었으나 파란 하늘에 문득 지나가는 흰 구름 한점은 강한 인상으로 남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칠혹같은 그믐밤에 개천을 건너 논길로 달리던 타이거 트레이닝(tiger training)과 관악산 돌파 경기, 무용기 쟁탈전, 3군사관학교 체전 그리고 마지막 여의도 L-19 관속비행까지 어느 것도 쉽게 비껴갈 수 없는, 정면 돌파로써 가야만 하는 훈련들이었다. 일석점호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바탕 밤공기를 가르며 어지럽게 난무하던 군화 발굽소리가 사라지고 온 사방이 조용해지면 멀리서 취침나팔 소리가 어둠을 타고 가냘프게 들려온다. 격려로 들리던 메아리가 우리를 갑자기 숙연케 하면서 장차 군의 지휘관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 가져야 할 국가관(國家觀)과 사생관(死生觀), 인생관(人生觀)을 재정립하고 다짐하며 어느덧 잠속으로 빠져 들곤 했다.

그러나 고된 생활만 있는 게 아니다. 주말 외출이나 휴가 가는 날은 마음이 들떠 바쁘다. 칼날 같은 정모 아래 빛나는 눈빛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 오히려 도도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길을 주는 까닭은 보무도 당당하고 단정한 외모가 선망의 대상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사관생도를 아끼고 보살피 후일 나라와 국민을 잘 지켜 달라는 부탁 같은 기대였었다. 어디 그것뿐이라. 공군사관학교의 망토(manteau)는 새의 날개로 그 상징성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전과 현대미를 고루 갖춘 제복으로 정말 멋있다. 청(靑)과 적(赤)색은 푸른 창공에 붉은 피빛, 즉 무인(武人)으로서 뜨거운 충성심이었으며 그 펄럭이는 날개자락은 낭만이 있어 매우 정열적이고 매혹적이다. 그래서 그 옆에 나란히 걸어가던 연인과 후일 결혼

한 동기생이 적지 않다.

어느덧 희노애락(喜怒哀樂)으로 뒤끓던 용광로에서 새사람으로 재탄생될 무렵, 그러니까 1964년 졸업 및 임관이 다가오는 벽두에 성무대 공군사관학교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크고(loud) 명확한(clear) 소리로 엄숙히 명령(order)하고 있었다. 그 한마디 명령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신념(faith)으로 굳게 새겨져 평생 살아오면서 선택(choice)이 어려워 방향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되었다. ‘진리(眞理)에 살고 정의(正義)에 죽어라!’



[여름] 임관, 현역장교 시절

우리는 4년간의 정규 교육을 마치고 1964년 3월 6일 학교 체육관에서 국군 통수권자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국토와 겨레를 수호하고 장교로서 명예와 긍지를 지키며 군인 정신으로 희생, 충성, 솔선수범을 당부한 유시에 이어 선서함으로써 61명이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였다.

졸업과 임관의 첫 의미는 우선 엄격한 피교육자의 모자를 벗어 던지고 자유(自由)와 책임(責任)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동지를 박차고 야생으로 날아 오른다는 기쁨이었다. 우리는 조종, 방공관제, 정비, 무장, 보급, 통신, 시설, 수송, 항법, 인사, 정보, 관리, 교육, 정훈, 보안 분야 특기를 받아 넓고 높은 창공에서, 광활한 비행장의 격납고에서, 활주로 피해 복구 현장에서, 레이더 사이트(RADAR site)의 어두운 작전실에서, 최고 군령의 사령탑에서, 후방지원 군수품의 야적장에서, 군인을 양성하는 연병장에서, 성무대 사관학교에서 그리고 공군본부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혹은 타 기관의 데스크(desk)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심지어 월남 전쟁터에 파병되기도 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엘리트 정신은 건전한 우월감과 열정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중심에

서 모범을 보이며 각 부대를 이끌어 나갔다. 그래서 참모총장을 비롯하여 사령관, 교장, 단장, 전대장, 창장, 대대장등 각 특기의 고위 지휘관이나 부, 감, 실, 처, 과장 등 참모직으로 승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 특기별 선두 그룹에서 진급하여 그들의 이상(理想)도 함께 실현해 갔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으랴. 어찌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 하늘을 지키다가 애기(愛機)와 함께 순직한 다섯 동기생의 숭고한 죽음은 땅이나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장렬하다. 그들의 50주년을 기리고자 여기에 그 처절하고 장엄한 순간들을 적어 생전의 숨결을 들으며 머리 숙여 그 글을 그들 제단에 바친다.

1967년 F-86F로 서해 상공에서 전투기동 임무중 조종계통 고장으로 낙하산 탈출은 했으나 개선에 실패한 첫 순직자 유현웅 대위, 1969년 F-5B로 항공기 수리장에서 고공 시험비행 추격기 임무 수행 중 저산소증(hypoxia)으로 의식불명되어 말 없이 사라진 김재민 소령, 1969년 F-86D로 수원비행장 이륙중 엔진고장으로 추락한 김무영 소령, 1972년 T-33A기종으로 비정상 자세에 돌입, 낙하산 탈출에 실패한 임기수 소령, 1976년 F-5B 엔진고장으로 수원비행장 착륙장주에서 목숨을 바친 박수길 중령, 그들은 아침에 맺힌 영롱한 이슬이 되어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다.

[가을] 퇴역, 일반사회인 시절

수십년을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했던 공군으로 부터 퇴역할 즈음, 그때서야 공군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포용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였다는 것도 철이 들듯 늦게 깨달았다. 누구나 언젠가는 군문을 떠나야 하는데 그동안 한없는 열정을 바쳤던 공군과 막상 작별한다는 것은 아쉽고 슬픈 일이며 그 당시에는 섭섭함을 넘어 원망했던 대상이 공군이었지만 그 어떤 부당함이라도 있었다면 공군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의 사람이었음을 곧 분별할 수 있었다. 군인으로 오래 살아 일반 사회로의 지각 입문은 처음에 당혹했으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또 다른 인생을 찾는데 결코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현역으로 우리의 전성기에 통과한 한판 승부였던 탑건(Top Gun) 또한 역대 기생 가운데 12기 사관이 제일 많다. 그래서 그런지 민간 항공사에 간 12기 사관은 한사람도 빠짐없

이 자격 획득이 어려운 기장(captain)으로 승급된 일화는 극찬 받아 마땅하다. 12기 사관이 두 항공회사 운항이사로 민항계를 좌지우지했을 때도 그랬지만 비행기술이 워낙 뛰어나고 신임이 두터워 대한항공 대통령 탑승 항공기 기장(airline code KE on board Code1, captain)으로 발탁된 동기생은 유일하여 더욱 자랑스럽다.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동기생, 외교 일선과 국가 정보기관에서 현신한 실력자, 박사학위로 대학 강단에 선 교육자들, 국내 기업이나 외국 항공회사의 실무 혹은 고문역이나 기업 컨설턴트(consultant)의 중책을 수행한 그 분야 베테랑들(veteran), 공기업이나 레저 산업 사장 그리고 개인 사무실을 연 전문직 대표에게 축하말을 전한다. 수차 사업에 실패했거나 칠전팔기 성공한 불굴의 전설적 제조업 CEO, 노조에 굴하지 않고 일군 운송업체 사장의 고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찬사를 보낸다. 친환경 제품을 개발한 도전과 집념의 개척자는 후학들에게 장학금과 아프리카 난민을 도우고 있으며 어떤 동기생은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사회나 병원에 나가 자원봉사를 한다. 그 선행들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큰 박수갈채를 보낸다.

직업보다 더 절박한 장기 투병자들의 강한 의지와 용기를 보면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어두운 터널을 하루 속히 빠져 나와 밝은 햇빛이 비쳐지기를 언제나 기도한다. 먼저 우리 곁을 떠난 동기생의 자식들은 자랑스러운 공군의 아들과 딸로 자라 국내외에서 이름을 날리며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고 있다. 대견스러울 뿐이다. 외국으로 나간 동기생들은 불모지에서 갖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반가운 소식을 가끔 보내온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한 인간 승리자에게 소리 높여 환호한다.

[겨울] 귀향, 50주년 행사

동서고금을 통해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달력을 보면 12달이며 시계도 12시간이다. 띠도 12짐승이며 1피트는 12인치, 1실링은 12펜스, 1타수는 12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도 12제자다. 짝수라 균형이 잡혀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다. 1과 2의 숫자는 순서가 나란하여 질서가 있다. 12숫자의 12기사관은 그러한 좋은 정기를 타고 태어났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12기 사관의 칼라(color)는 자유분방이라 해도 무방하다. 독특한 개성은 각각 다양한 천재성이 번득이고 이를 기꺼이 서로 존중해 주며 용기 있는 자의

특권으로 이해한다. 진솔한 대화는 인간미가 있고 자연적이라 뒷끝이 깨끗하다. 시끌시끌한 난상토론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니 그야말로 신통하다. 무슨 일이나 시작은 어려운 법인데 이러한 자유와 개척 정신은 잘못된 선례를 깨고 새로운 길을 열어 후배에게 물려준다. 이 또한 오묘한 12이라 숫자의 덕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50주년 기념행사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았다. 그 목적은 ‘감사와 우정’에 두고 사실(事實)과 사리(事理)에 근거하여 노년에 걸맞는 성숙한 판단으로 걸모습에 치중한 허례허식을 버리고 형편에 맞게 내실에 충실하자는 중론에 따랐다. 건강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을 감안하여 축하 행사에 동기생과 부인 그리고 가족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공군사관학교는 재학 4년동안 12기 사관 61명에게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여 공평하게 가르쳤다. 거기에 보답하려는 듯 누구하나 빠짐없이 더도 덜도 없이 일정한 성의를 모아 모교 사관학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5월 2일, 50주년 축하 사관학교 행사(모교 발전기금 전달, 사관생도 열병분열과 현역 후배들이 펼치는 축하비행)는 지난 4월 26일 국가적 재난 ‘세월호’ 침몰 사고로 가을(10월)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일정 변경이 곤란한 외국서 온 동기생과 가족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관학교 방문과 공군회관 만찬으로 축소 시행하였다.

뜻밖에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여러 동기생들이 가족과 함께 어려운 걸음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태평양을 건너 달려왔다. 너무 어릴 때 순직하여 아버지의 모습조차 떠오르지 않는 무남독녀가 미국 의사가 되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잠든 아버지 묘소를 참배하며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 경향 각지에서 몰려든 동기생과 부인들, 놀랍게도 오랜 병마에 시달려 거동이 불편한 동기생이 그의 아들이 미는 휠체어로 성무대를 찾았다.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였는지 우리는 경이에 찬 눈으로 보았다. 기적과 감동이 뒤섞이는 만남의 순간이었다.

사관학교장의 영접과 생도 생활관 견학에 이어 공군 박물관에서 12기 사관의 이름을 동판으로 제작한 명패를 보니 감개무량했다. 창군 이래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 분들의 넋이 고이 잠든 ‘영원한 빛’ 추모비 앞에서 묵념으로 고개를 숙이니 애끓는 진혼곡이 그



동기생간에 우정의 만찬자리를 마련한 공군회관에 도착하자 해질 녘 붉게 물든 우리들 뒷 모습이 장년(長年)중에 초로(初老)는 아니고 중노(中老)에서 서성거렸다. 우리는 지나 온 반 백년, 도전하고 성취하고 때로는 좌절도 했지만 최선을 다한 까닭에 후회도 더 바랄 것도 없다. 다만 그 영욕을 겸허히 받아들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는 이제 높고 낮음도, 많고 적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다만 12기 사관이라는 계급장만 달고 서 있을 뿐이다. 1960년 부터 세기를 넘어 21세기에 들어서기 까지 오랜 세월 속에 미운 정 고운 정으로 수놓은 수많은 사연들은 추억(追憶)과 우정(友情)으로 쌓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만의 넉넉한 밑천이 되어 있었다. 순간(瞬間)들이 엮어져 영원(永遠)으로 간직되었던 것이다.

5월, 서울의 밤은 깊어만 갔다. 바야흐로 날기에 지친 새들은 ‘은성회’ 동지로 돌아와 우주(宇宙)와 인생(人生)을 논하고 세상(世上)을 관조하며 시공(時空)을 향유하니 바로 우리의 밑천인 추억과 우정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12기 사관, 그 불굴의 영웅들은 감사와 축복 속에 기립 박수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동기생들이여! 군에 몸 바

쳐 조국하늘 지키던 나날들, 늘 바쁘게 뛰어 온 숨찬 50년,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강물은 쉬임 없이 흐르다가 언젠가는 바다에서 멈추듯이 우리도 그 날까지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문 후기

본 글 퇴고를 맡은 일반인 친구가 글량이 많다는 조언이 왔다. 1/4을 줄였으나 또 종용이다. 50년의 역사는 책 한권으로도 모자라는데, 이 이상 어떻게 줄이란 말인가! 필자는 벌령 드러누웠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친구야 너는 아는가!

성무인(星武人) 우리만의 그 시간과 공간을....

피와 땀과 눈물이 뻗 은성인(銀星人) 우리만의 그 이야기를....

시리도록 아름다워 너무나 그리운 공군인(空軍人) 우리만의 그 추억을....”

2013년 최우수 조종사 소감문



47기 사관 박근형

철없던 어린시절 공군사관학교라는 곳을 알게 되고, 힘든 생도생활을 이겨 내고서야 비로소 철이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사관생도 생활이라는 것이 단순 '힘듦' 이었다면 지금 같은 나의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관학교는 나에게 지, 덕, 체뿐만 아니라 변해서는 안 될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졸업 후 15년이 지났지만 공군사관학교는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이 최우수 조종사라는 영광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최우수 조종사 선발과정이 다소 변경되어 TOP GUN과 최우수 조종사를 분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TOP GUN이라 하면 10월 시행하는 공군 보라매 사격 대회에서 최고득점을 받은 조종사가 선발되었고, 최우수 조종사는 일년간의 평소 사격 점수뿐만 아니라 조종사로서 모든 측면에서 평가를 하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급 행사의 참여도, 주요 훈련 성과, 포상, 근무성적, 체력평가 및 기타 모든 분야에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후배, 동기생의 '핵심역량 평가' 를 통해 조종사로서, 더 나아가 군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금번 수상을 통해 다소 부담이 되었던 것 같고, 한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은 정말 바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110대대는 F-15K 2차 사업 전력화의 시작단계로 다른 F-15K 대대와는 달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선임편대장으로서, 교관으로서 110대대를 거쳐 가신 훌륭한 선배님들께 새로 태어난

F-15K 110대대의 멋진 모습을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주요 행사 및 작전 수행, 완벽한 비상대기,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한 조종사 양성 등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대대장, 비행대장 및 전 대대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한 결과가 제 개인적인 영광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주어졌지만 조종사로서 조종간을 잡고 있는 순간, 이 영광은 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매 비행시 리더인 저를 믿고 따라준 후배 조종사들, 항공기 탑승부터 시동을 끌 때까지 지상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정비요원들, 그리고 나보다 더 비행안전에 대해 기도해주는 가족들까지... 어떻게 보면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항공기와 같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나의 한 소티 비행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그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모두가 '최우수' 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수 조종사는 일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 개인적인 자격증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국가적 안보위기 상황에서 당당히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휘관이라도 나를 보낼 때 불안해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를 할 수 있다는 믿음감을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F-15K에 대한 능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는 나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또한 지금의 아내도 주었습니다. 아내는 공군사관학교 49기로 임관한 지주연 예비역 소령입니다. 어려운 공군사관학교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최우수 조종사 수상으로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항상 나를 위해 지켜봐주고 기도해주는 아내 지주연, 나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아들 동희, 딸 서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탑건(TOP GUN) 소감문



50기 사관 김태석

2013년 보라매 사격대회는 개인적으로 첫 출전하는 대회이기에 잘 하겠다는 마음 보다는 대대에서 선배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수만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TOP GUN으로 선정되었다는 영광스러운 소식을 접했을 때, 기쁜 마음과 함께 ‘과연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상의 전투력은 전투 조종사 개인 뿐 만 아니라 전투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요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칠 때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팀원 간의 팀워크와 서로를 향한 강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P GUN 수상의 영광을 함께 동고동락한 대대원과 빈틈없는 영공방위 수행을 위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전투요원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또한 159전투비행대대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정찰비행대대로 임무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투대대라는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마지막 사격대회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은 정말 많은 비행과 다양한 임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잊지 못할 일이 보라매 사격대회 PKG #1으로의 임무였습니다. PKG 편조가 구성된 이후에 첫 편조 미팅시 편대원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PKG 임무의 경우에는 다른 사격 임무와 다르게 한 개인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편조원 모두가 제 몫을 하지 않으면 임무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팀웍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4 VS 4 공대공 상황의 경우 내가 적기를 격추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편

대원 모두가 할당된 공중표적을 격추시키지 않으면 나를 포함하여 편조 전체가 전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의 전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에 편대장으로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편조의 구호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그것은 “ALL FOR ONE, ONE FOR ALL”이었습니다. 한 개인은 전체의 목표를 위해 집중하고, 편대원 모두는 동료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매 비행 브리핑 종료 후 이글루로 향할 때 마다 편조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결의에 찬 구호를 외치며 항공기로 향했습니다. 위와 같은 편조 구호 아래 일심단결하여 매 훈련에 임하였고, 사격대회 직전에는 ZIPPER SIGNAL만으로도 편대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편조원은 현재 상황에서 조치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호흡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논어의 공자 말씀 중에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사격대회라는 부담이 많은 임무 기간 동안 서로를 응원하며, 활발한 전술토의 등을 통해 임무성공의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즐기면서 비행에 임해준 편조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대 휴게실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평시에 흘리는 땀이 많을수록, 전시에 흘리는 피가 적다’. 매 비행훈련시마다 전시에 어떤 절차로 비행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할수록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비행에 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교훈이 많을수록 전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유사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3년도 TOP GUN 수상의 영광을 얻기까지, 사격대회라는 중요한 임무에 믿고 맡겨 주신 황영식 대대장님과 사격대회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양호석 비행대장님, 159대 대원 그리고 정비 무장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모든 영광을 각지에서 조국영공 수호를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공군 장병에게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랑하는 아내 김미진과 소중한 강민, 민채 두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대표보라매상 수상 소감



62기 사관 김진현

나에게 있어 공군사관학교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 나의 선택권은 거의 없었다. 남들이 하는 것을 하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데로만 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 인생에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다. 때마침 모교홍보를 통해 공군사관학교를 알게 되었고 조종사에 대한 동경으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4년간의 생도생활을 마친 지금 그 선택이 탁월했음을 깨닫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나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 장교로서의 마음가짐, 군인으로서의 체력과 지식 등을 길러주었다. 학교가 나에게 많은 혜택과 기회를 주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 62기 하람(하늘이 내린 사람) 동기생원들이다. 4년간의 생도생활 동안 함께 울고 웃었던 동기생들이 주는 대표보라매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크나큰 영광이다. 부족한 나에게 이런 큰 상을 준 동기생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생도생활은 나에게 있어 새로운 도전이었다. 푸른 하늘을 수놓는 전투기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조종사에 대한 동경만을 안고 이곳 공군사관학교에 오게 되었다. 학교에 어떠한 연고도 알고 있는 정보도 없었기에 학교는 나에게 낯설고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기초 군사훈련 때 같은 방 예비생도부터 시작해 차츰 아는 동기생이 늘어날수록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 보다 동기생과 함께 할 수 있

다는 자신감이 나를 이끌어 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다독이며 도와주며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 갈수록 나의 생도생활은 더욱 활기차고 값지게 느껴졌다. 나의 인생에 있어 첫 도전인 공군사관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동기생들로부터 받은 사랑 덕분 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의 가훈은 ‘최고보다 최선을’ 이었다. 이 가훈은 나의 생도생활의 신조로 이어졌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고가 되려는 욕심보다는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는 결과에 만족하며 나는 매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나에게 있어 욕심은 결과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동기생들과 생도생활을 함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함께 어울려져 나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덕으로 삼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 나의 모습을 동기생들이 좋게 평가해 주었기 때문에 대표보라매라는 결과가 뒤따르지 않았나 싶다.

나는 생도생활 동안 우리 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 다른 나라의 군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를 맺을 수 있었던 호주 사관학교 견학,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조상들의 독립운동의 역사와 혼을 느낄 수 있었던 중국역사문학탐방, 세상을 보는 인식의 폭을 넓혀주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초석을 다져준 해외 항법 훈련 등 정말 많았다. 이 모두가 우리 공군 그리고 우리 공사 선배님들께서 후배들에게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이자 교육의 장임을 알고 있다. 이런 혜택을 받을 때 마다 나의 가슴속에는 우리 공군에 대한 애착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길러졌다. 나는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우리 공군이 강한 항공우주군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나에게 있어서도 생도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특히 저학년 때 바쁜 생도생활에 쫓기면서 일반 대학교에 다니는 고향 친구들의 자유분방함이 부러웠다. 내가 이 학교와 어울리는 사람인가, 내가 가려는 군인의 길이 과연 나에게 맞는 길인가에 대한 끝없는 의문이 들었었다. 그럴 때 마다 동기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임관을 앞둔 지금 장교로서 길은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명예로운 길임을 깨닫고 있다. 친구들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기보다 그 자유를 지켜주는 수호자 역할을 하는 사관출신으로서의 사명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나에게는 어느덧 정예 공군 장교라는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있다. 4년간의 생도생활을 잘 마쳤기에 또 사랑하는 우리 동기생들이 있기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생도생활 동안 나를 항상 믿어 주시고 묵묵히 응원해 주셨던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부족하지만 이런 나에게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우리 62기 동기생들, 배울 점이 부족하지만 나의 지도를 잘 따라 와준 후배생도들, 나에게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선배 생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공군 장교로서 62기 동기생들이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나는 우리가 언제나 영원한 62기 동기생임을 잊지 않고 생활할 것이다. 또 62기의 대표보라매 생도로서 언제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66기 사관 이정우

기초군사훈련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최하의 삶을 살았다. 어느 곳에서도 이런 대우와 압박감에 시달리지는 않았다. 4주간 훈련은 짧았다면 짧고 길었다면 길었던 시간이었다. 그 시간동안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그중 가장 큰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인내이다. 기초군사훈련의 목표가 민간인의 군인화인 만큼 모든 것이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인으로서의 행동은 모두 버려야 했다. 군인의 모습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 습관처럼 나왔을 때는 어김없이 지도생도들의 날카롭고 냉정한 지적과 특별훈련이 따라왔다. 내 모습을 군인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인내가 요구되었다.

내 정신력은 생각보다 약했지만 신체는 생각보다 강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었지만 나는 살아있다. 바닥의 삶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며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이 될 생도, 더 나아가 공군 정예 장교의 삶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나 자신을 맞추기 위한 준비단계라 생각한다. 또한 고작 4주간의 훈련이 고작 20여년 살아온 나에게 최악의 삶이었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나쁜 상황도 많을 것이다. 내가 받은 훈련은 그 상황을 버텨내기 위한 힘을 기르는 준비단계이기도 할 것이다.

기초군사훈련을 시작하기 전 내 모습은 여느 10대, 20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내 행동에 책임질 줄 모르며 내가 절제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다. 부모님께 철없는 행동만 보이며 자랑스러웠던 아들인 적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나는 작년에 공군사관학

교 진학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른 것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해 반성했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그러던 중 운이 좋아 기초군사훈련 수료성적이 가장 우수한 생도로 뽑혀 입학생 대표가 되었다. 노력의 결과가 달콤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기초군사훈련은 나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만들어 주었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마음과는 다르게 혹은 철이 없었던 나머지 부모님께 항상 화만 내며 대들기만 하였다. 하지만 훈련 기간 동안 나를 지탱해준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것도 아닌 부모님이었다.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편지를 읽으면 저절로 힘이 났고, 힘든 훈련을 받다가도 입학식 날 당당히 정복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눈물이 먼저 났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원래도 운동을 좋아해서 체력은 나름대로 자신 있던 나였지만 특별훈련, 구보, 군사훈련 등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하지만 훈련이 모두 끝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내 체력은 처음 내 체력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강해졌다. 예전보다 강도 높아진 구보도 잘 뛸 수 있게 되었고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기록은 2차 시험 때 내 기록의 2배를 훌쩍 넘게 되었다. 또한 재수 기간 동안 급격하게 붙어났던 몸무게는 훈련기간 동안 10kg 감량에 성공했다. 이처럼 훈련을 통해 내 체력은 몰라볼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고, 신체적 균형도 매우 좋아졌다.

밖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게 사용했던 것들이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철저히 부족했으며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해야 되었다. 그렇게 흔하게 마시며 소중한지 몰랐던 물,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었던 화장실, 항상 저절로 세탁 되는 듯만 했던 빨래, 부족한 적 없이 항상 먹을 수 있었던 음식 등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것들이 부족한 생활을 하게 되니 나의 풍요로움에 감사할 수 있었다.

재수를 한 까닭에 내 친구들은 대학에 이미 다니고 있었고, 일반 대학생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공군사관학교 선배님들과 나이는 같거나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생각과 행동은 수준이 달랐다. 일반 대학교 대학생들은 그저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언행에 책임지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으며 리더로서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현실에만 안주하며 자기 개발을 하려는 모습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공군사관학교 선배님들은 눈빛부터 달랐다. 이미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며 언행에 자신이 있었고 당당하였다. 이런 사관생도의 모습은 내가 사관학교에 지원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평소 동경해 왔던 모습을 가까이서 보니 학교에 대한 자부심,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주간의 훈련이 물론 힘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바닥의 삶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바닥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준비단계이며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이었기에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다.



보라매의 길



6기 사관 이윤우

배달의 건아로 태어나
가고싶은 그 많은 길 중에서
그대가 택한
신성한 국가방위의 길

그 길 중에서도
높고 푸른 영광을
지키는
보라매의 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대 보라매의
눈에 비친
한반도

한때는
외세의 힘에 무참히
짓밟혔던 땅

동족상잔의 폐허
이웃의 원조를 받는
빈곤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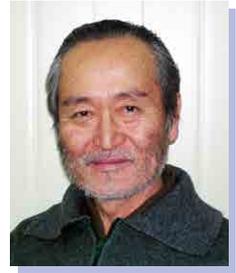
약소국가의
비극과 불행의
역사가 묻힌 땅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숲을 이룬 고층건물
거미줄 같은 도로망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유엔 해외파병의
동반자로
우리는
경제부국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고

바로
그대 보라매의
힘찬 나래
매서운 눈초리
필승의 기상이
이 땅위의 하늘을
지켜 주었기에
지금의 조국이 됐다오
언제 어디에 있든
잊지 말지어다
송고한
보라매의 길



피고지고 시늬이



13기 사관 김 영 부

땅마른 뒤 봄비에
산천은 소생환희
저 연약한 새 싹이
다소곳이 피기까지
칼날 추위 긴 밤들을
얼마나 오들 떨며

칠 흑 언 땅에 눌러
기진맥진 했을꼬
조물 생존 소멸이
제 임의가 아닌 걸
피고지고 시늬이
한낫 선잠 같으니
우리네 인생여정
죄다 그런거지 뭐



남경(南京)의 넋



22기 사관 이희용

김신 장관님이 쓰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를 읽다 보니 20년 전 북경에서 무관으로 복무 중에 겪은 일화의 기록을 뒤적이게 된다.

북경 중심지의 국제무역빌딩에 임시로 자리 잡고 있던 우리 대사관에 첫 한국 무관부가 설치 된지 6개월도 채 안된 1994년 5월 어느 날, 공군무관 사무실로 노신사 한 분이 방문하셨다. 바로 공군의 원로이시자 청소년 시기에 중국대륙에서 조종사 훈련에 입문하셨고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등 민족의 격변기를 몸소 겪으신 김신 전 주중화민국(대만)대사, 전 교통부장관님이셨다. “중국에 드디어 한국공군이 입성 했구만.” 하시면서 새파란 공군대령을 감개무량한 듯 바라보시는 장관님의 상기된 표정이 나를 오히려 감개무량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날 무관부 사무실에서 차를 드시면서 북경 방문의 배경과 경위를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셨지만 60년에 달하는 세월이 함축되어 있어 결코 간단하게 들리지 않았다.

한중 수교 이전부터 중국에 드나들며 옛 친구들을 찾아보니 이젠 다들 당신처럼 퇴직하여 노후를 보내고 있더라는 것, 대만의 원로들 소식을 전해 주면서 회포를 푸셨다는 것, 한국전쟁 당시는 서로 적군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공군의 원로들과 그들이 만나야 될 것 같아 그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다는 것, 곧 있을 백범일지 중국어 판 출판 행사 준비 차 요즘에는 북경을 더 자주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었다.

북경에 오실 때마다 중국 측의 크고 작은 행사에 나를 데리고 다니신 장관님 덕분에 나는 중국 공군원로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8년항일전’ 과 ‘국

공내전’, ‘抗美援朝戰(한국전쟁)’에 참전한 베테랑들이었다. 미 제국주의(?)와 동맹관계인 한국의 무관하면서 공군조종사인 나를 신기한 존재로 여기는지 말끝마다 ‘우리는 평요우(朋友: 친구)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무척 친절하게 대해줬다. 그 중에는 1949년 10월 1일 천안문 광장에서 거행된 중국인민공화국 정부수립 선포 당일 행사에서 잡동사니 항공기들로 구성된 Fly-By 편대군의 군장기를 조종했던 조종사도 있었다. 물론 그는 이제 백발의 노인이었다. 그들 중국공군 원로들은 각지(北京, 南京, 廣東, 昆明)에 항공연의회(航空聯宜會)라는 민간조직을 설치하여 국가의 항공력 발전과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북경의 크고 작은 행사에 나는 아무 자격도 없이 그냥 초청받아 참가하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들이 한가지 중요한 국제적 행사를 거행하려고 추진중임을 알게 되었다. 즉, 이듬해(1995년) 9월에 항일항공전열사기념비(抗日航空戰烈士紀念碑) 제막식 행사를 남경에서 개최하는데 주최 측인 남경항공연의회(南京航空聯宜會)는 항일항공전에서 순직한 미국, 소련(러시아), 중국인들의 전사자 명단을 이미 책자로 발간한 상태였고,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계 인사와 아직 생존해 있는 당시 참전자들을 제막식 행사에 초청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건립 중인 미국인, 러시아인, 중국인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 외에도 장관님께서 찾아낸 한국인 두 분의 명단이 새겨진 기념비도 별도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장관님과 북경항공연의회 간사의 설명으로 나는 중국의 항일항공전에 참전했다가 순직하신 두 분의 한국인 조종사 선배가 계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된지 20년이 넘도록 선배 조종사들의 그러한 희생의 역사에 무심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중국 항공연의회측은 처음에 두 한국인 명단을 전사 당시 소속대로 중국공군(국민당 정부 공군을 뜻함) 기념비에 포함시키고 ‘朝鮮人(조선인)’이라 표기하려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관님은 주최 측에게 “그들이 비록 중국 공군 소속으로 참전 했지만 그 때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령으로 파견된 것이므로 한국인 기념비를 별도로 세워 기념하는 것이 맞고 표기도 韓國人(한국인)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관철 시키셨다고 한다.

북경항공연의회로부터 입수한 ‘항일항공전 열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미국인 1,800여명, 중국인 1,000여명, 러시아인 200명, 한국인 2명 등 총 3,304명의 이름이 실려

있었고, 모든 이의 이름 옆에는 순직 날짜와 지역까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었다. 한국인 조종사명단은 ‘대한민국’이 아닌 ‘韓僑(韓人이라는 뜻)’라는 타이틀 아래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 田相國 上尉 2期 高級班, 江蘇出生, 1938年 8月21日 宣昌에서 出戰 死亡
- 歐陽明 少尉 (김신 장관에 의하면 본명이 金元英이라 함) : 空軍官校 16期, 上海出生, 1945年 3月24日 芷江(지강)에서 出戰死亡

1937년 8월 13일 일본해군 항공대의 상해 폭격으로 중일 항공전은 본격화되기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공격은 8월 15일 남경폭격, 11월 11일 상해점령, 11월 13일부터는 남경점령으로 이어진다. 남경 점령과정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살된 사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잔혹성과 야만성을 논하는데 대표적 역사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국민당 공군은 10개 대대 35개 중대에 항공기 300여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상해 폭격과 남경폭격에 대항하는 항공전에서 모두 격추 또는 폭파당하여 한대도 남아있지 않았다가 1938년에 국민당 정부가 소련으로부터 I-15, I-16등의 항공기를 도입하여 재무장을 했다고 중국공군 역사는 기술하고 있다. 田相國(전상국) 上尉(상위)가 1938년 8월에 전사했으므로 그는 소련제 항공기를 타고 출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과 함께 미국은 국민당 정부에 B-25, P-40, P-51등을 제공하였다. 1942년 기준으로 국민당 공군은 미소 양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항공기 총 2,300여대로 무장되어 있었다. 1945년에 순직한 歐陽明(구양명) 少尉(소위)가 무슨 항공기를 조종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장관님은 후에 “미국, 중국, 러시아 명단에는 조종사, 항법사, 폭격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한국인도 두 명의 조종사 외에도 항법사, 폭격수로 출격했다가 전사한 사람도 있었는데 명단을 다 찾아내지 못하여 안타깝다.” 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책자 서문에는 기념비 설립 취지가 다소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요약하면, 파시스트 정권과 싸워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항일항공전의 연합국 열사들을 기리기 위하여 명단을 발굴 작성하였으며 남경의 중산묘역에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였다.

장관님은 “내년에 미국, 러시아 무관들과 함께 자네도 초청장을 받을 터이니 남경 9월 제막식 행사에 함께 참석하세.”라고 다짐하셨다. 나는 열사명단 책자를 더 확보하여 이런 일련의 상황보고서와 함께 국방부와 공군에 파우치로 송부하고 9월 4일 남경 제막식 행사 참석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정작 1995년 9월 남경의 제막식 행사에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우선, 행사 초청장이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중국의 단체가 무관을 초청하려면 초청장을 중국 국방부 외사국을 경유하여 전달하도록 되어 있었고 남경항공연의회와 북경항공연의회 연락자는 “분명히 초청장이 국방부 외사국에 가 있다.”며 확인해 보라고 했으나 국방부 외사국 담당관은 끝까지 “남경연의회로부터 그런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9월이 다 되어 북경항공연의회의 한 간부가 “초청장을 이대령에게 주지 않는 국방부의 속사정이 있을 것이다.”고 귀뜸을 해주었다. 아마도 중국 국방부가 북한을 의식하였거나, 전사한 두 한인조종사의 신분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자국의 군대가 아닌 중국군 소속이었음을 감안할 때 한국 무관의 공식적 대표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기네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주재국에서 외국 무관은 자국의 심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내가 초청장을 못 받은 것은 역사적 이유와 남북분단의 현실로 인해 국가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되었다.

나는 중국 국방부 외사국 아주담당관에게 “초청장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보내 달라. 당시 전사자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견 군인이었고,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전화로 항의 아닌 항의를 하게 되었다. 평소 친분관계가 쌓아진 그 담당관의 답변도 역시 “그런 초청장을 남경항공연의회로부터 받지 못했다.”는 것뿐 이었다. 항의는 한번으로 그쳐야지 대놓고 자꾸 졸라대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당시 김영삼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의 북경 국제 부녀절 행사(9월 4일)에 참가하는 스케줄이 나왔는데 남경 제막식 행사(9월 3일)와 공교롭게도 기간이 겹쳐 있었다. 나는 청와대 경호실과 국방부로부터 공군 1호기의 경호 준비 및 승무원 관리를 지시 받았기 때문에 북경을 떠날 수가 없었다. 초청장을 받는다면 국방무관이라도 나 대신 남경 제막식에 참석하면 좋겠는데 그 마저 영부인 행사 일정에 동원되는 바람에 그럴 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측 사정으로 인해 남경 행사 참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서울에 계신 장관님께 죄송스러워 직접 연락은 못 드리고 중국에 오실 때마다 일을 돌봐드리는

분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말씀 드려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미국 공군무원(Roland 대령)이 남경행사에서 장관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면서 자기가 마치도 한국 공군무원인 것처럼 한국인 기념비에 참배하였다고 농담을 했다. 남경 제막식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공군 베테랑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장관님만 참석하셨다고 한다.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남경 행사 현장에서 남경항공연의회 간부가 김신 장관에게 “초청장은 보냈는데 이 대령은 청와대 지시에 따르느라 여기 오지 못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따지자면 반만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장관님께 끝까지 “초청장을 못 받았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초청장이 한국무관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른의 심정에 혼란만 초래할 것 같아서였다.

그로부터 1개월 후인 1995년 10월 17일, 나는 아내와 함께 남경 행 중국 민항기에 몸을 실었다. 가방에는 무관예복과 예모가 챙겨져 있었다. 비공식적이거나 무관 개인자격의 방식을 택해서라도 두 분 한국인 항공전 열사 기념비에 참배하는 게 도리일 성 싶어서였다. 이튿날 아침에 예복을 차려 입고 호텔을 나서 택시로 남경시 외곽에 있는 중산묘역을 찾아갔다. 묘역의 한 구역에 새롭게 조성된 항일항공전 기념지역에는 대표 기념물이 서 있고 열사명단이 기록된 수십 개의 기념비가 서 있었는데 관리인의 안내로 한국인 열사 기념비를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묘역에 세워진 항일항공전 열사비

나는 두 분의 영령에게 거수경례를 올렸고 아내는 옆에서 묵념을 하였다. 두 분의 성함과 계급, 기수, 전사일자가 한자로 새겨져 있었는데 책자에 실려있는 歐陽明(구양명) 少尉(소위)는 본명 金元英(금원영) 少尉(소위)로 고쳐져 있었고, 1922년 9월에 태어나 1945년 3월 24일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1922년생인 김신 장관님이 이분의 생년을 ‘조국의 하늘을 날다.’에서 1919년 생으로 기술하면서 “중국공군군관학교 선배로서 미국공군의 정식 훈련을 받은 사람은 나와 이 분 밖에 없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기념비에 1922년생으로 새겨진 것은 아마도 중국 측의 착오일 것이다. 아무튼 몇 개월만 더 살아남았으면 조국의 해방을 맞았을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것이다.



한국인 열사 기념비 묘역관리인과 함께

田相國(전상국) 上尉(상위)는 1907년생인데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8월 21일 31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으니 혹시 처자가 있거나 않았는지 궁금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비석의 중앙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혹시라도 후대가 한국인 항일항공전열사 명단을 더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새길 자리를 남겨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묘역관리인에게 몇백 위엔, 당시로서는 거금을 쥐어주면서 한국인 열사비를 매일 닦아달라고 부탁하고는 묘역을 떠났다. 중산묘역의 대리석 기념비들은 아침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거기 적힌 이름들을 아무리 드높이 기리더라도 전쟁이 없었으면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웠을 젊은이들의 죽음이 비극인 것은 부

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95년은 2차 대전과 태평양 전쟁 종료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 정부는 그 해에 ‘파시스트 정권을 타도한 승리의 50주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행사를 주최하였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탄력을 받아 문화 개방이 대폭적으로 넓어지는 시기였고,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항일항공전열사비 제막식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함락됐던 당시의 수도 남경에서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이유도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명제에 부합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지금 일본은 태평양 일대와 대륙을 피로 물들였던 20세기 초반의 야마토타마시(大和魂)가 되살아 난 듯 군국주의를 향해 치닫고 있다. 개전(開戰)의 공식적 결정권자였고 비극 발생의 원천인 일왕(日王) 제도를 국가 구성원의 의식형태에 중요한 상징으로 삼고 있는 한, 일본정부가 쉽게 과거를 반성하고 사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를 송두리째 반성하고 지금도 사죄를 되풀이하고 있는 독일과 같을 수 없는 이유는 국체의 보존과 국력의 팽창을 위해서는 도덕성보다 유사시 폭력성에 의존하는 것이 쉽다고 보는 그 변치 않는 일본 민족성의 본질 때문으로 봐야 한다. 폭력성의 원천이 제거되지 않는 한 충돌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한다. 그나마 강대국 중국이 우선은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치중하고 있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기 시작하여 다행이긴 하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한 평화적 동반관계를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보면 레닌의 폭력 혁명론에 뿌리를 둔 북쪽 정권으로부터의 위협까지 겹쳐 우리는 2중3중의 안보 부담을 안고 있다. 생명을 바쳐 조국을 구한 선배님들의 영혼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기리는 것은 숭고한 희생의 역사적 기록만을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의 안전을 확보하는 미래적 가치 창조를 위해 그 정신을 이어 받아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각성하기 위함인 것이다.

서라벌에서 온 편지 4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3기 사관 **이종학**
(충남대 평화안보대학원 겸임교수)

박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는 것 같소. 우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모부이자 북한 권력의 '2인자'로 통했던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국가 전복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작년(2013) 12월 12일 특별군사재판 직후 처형되었소. 이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소. 한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작년(2013) 12월 26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함으로써 심상치 않은 충격을 국제사회에 던졌소. 이곳을 참배한다는 것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전범을 단죄하고 전후 질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강화조약을 통해 국제사회에 복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파기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요. 그래서 미국언론은 아베 총리에 대해 ‘극단적 국수주의자’, ‘동북아의 문제아’로 부르고 있소. 그는 과거의 침략전쟁과 위안부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우기가 있소. 우리가 직면한 이런 어려움을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극복한다면 기회가 온다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소.

박형,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난날 공군생활의 체험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1. 「百戰百勝」의 현판

1968년 10월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군사학과장(중령)으로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의

「전략론」 강의를 하러 간 첫 날이었다. 2층의 강의실로 가기 전, 1층의 대강당 입구에 큼직한 현판이 걸려있었는데, 거기에는 「百戰百勝」이라 적혀 있었다. 강의를 하면서,

백 번 싸워 백 번 승리하는 과제는 육군대학 수준에서 연구할 과제이고, 국방대학원에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과제를 연구해야 한다. 「손자병법」에, ‘是故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라는 구절이 있다.

고 소개하고, 3시간의 「전략론」 강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후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새까만 중령이 대학원장인 장군이 결정하여 걸어놓은 「百戰百勝」의 현판에 대해 비판하다니, 건방진 놈이다’ 고. 당시 안보과정의 학생구성은 대령과 이사관 중심이며, 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나보다 모두 선배에 속했다. 그러나 어떤 명제에 대한 주장은 계급의 상하에 의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실사구시(實事求是)에 의해 판단할 문제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의 의견이 있다는 데 대해 새삼 놀라웠다.

그 후 나는 새로 부임해온 국방대학원장 박현식 중장에게 다음과 같은 요지의 편지를 보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 폐허가 된 국토에서 승리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방대학원에서의 본인의 「전략론」 강의의 주제는 ‘싸우지 않고 적을 어떻게 굴복시키는가’ 이지, 결코 싸워서 승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강당 입구의 현판은 국방대학원의 교육수준으로 보아 적절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대강당 입구에 걸어둔 「百戰百勝」의 현판을 떼게 되었는데, 제기한 날부터 떼 날까지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군사사에 있어서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기마(騎馬)에서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4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안다는 것도 중요하리라.

2.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사관학교 교수부 군사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1970년 5월에 공군대학 ‘고급지휘·참모과정’ (CSC)에 입교했다. 입교식이 끝나자 피교육자는 주로 중령들인데 발표과제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로 한 사람당 2~3분 내로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40여명의 피교육자들은 느닷없는 질문에 처음에 조금 당황했으나, 곧 냉정을 찾고 각자 의견을 발표했다.



나는 “우리나라 국군은 60여만의 대군이
지만, 군사학 연구 분야는 황무지에 가깝
다. 군사학(military art and science)이
란 전쟁철학, 용병술, 즉 전략과 전술 그
리고 전쟁사 등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군인을 찾
기 어렵다. 그런데 평시에 군사학을 열심
히 연구한 군대는 전쟁을 하면 승리하지
만, 소홀히 하는 군대는 패배한다는 것이
전쟁사의 사례에서 명백하다. 그래서 군
사학 분야를 연구해보고자 한다”고 발표
했다. 그런데 군사학 연구를 하겠다는 사
람이 몇 사람 더 있어도 좋은데, 아무도
없었다.

졸업이 가까워진 10월 중순경, 졸업논
문으로 제출한 「통수권의 의의와 범위」
로 논문상을 받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

이 왔다. 평생 학교교육을 이수하면서 개근상 외는 받아 본 일이 없는데 하고 기뻐하고 있
는데, 공군본부 인사국 교육과에 있는 동기생 H중령이 “사관학교 교수부장이 자네 원대 복
귀하는 것을 거절하네.” 하고 알려주었다. 당시 공군의 관례는 CSC과정을 마치면 ‘원대복
귀’ 였는데 나는 부득이 공군대학 교수부에 남기로 했다. 나는 왜 사관학교 교수부에서 거부
당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나는 ‘전쟁’ 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를 운용하자면 초급장교의 양성
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관학교 생도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는 전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즉 군사학인데 교수부 내의 군사학
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경시(輕視)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컨대, 당시 16기 사관생도의 학
과별 학점 배정을 보면 인문학과 37학점, 사회학과 36학점, 군사학과 16학점, 기초학과 54
학점, 응용학과 41학점으로 총계 184학점이었다.

1967년 11월, 군사학과장이 되어 이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와 각오를 단단히 하고 2층의 교수부장 J대령(2기사관, 영문학 전공)을 찾아가서, “사관학교 교육에 있어서 군사학의 비중이 너무 경시되어 있으며, 인문학과의 영어 한 과목도 18학점인데, 군사학과 전체의 학점이 16학점이란 말도 되지 않으며, 우선 영어에서 몇 학점 군사학과에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더니,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며 나와 버렸는데, 이것이 사관학교 교수부에서 거부된 원인이리라.

공군대학에서의 교관생활은 너무나 환경이 좋았다. 즉 우선, 하고 싶은 강의는 학점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둘째는 2개월 정도 강의가 끝나면 그 외는 충분한 연구시간이 있었다. 그리하여 「현대전략론」(1972)을 저술·출간했고,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972)과 「손자병법」(1973)을 번역·출간했다. 셋째는 공군대학 옆 건물에 공군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자료 찾기에 편리했고, 넷째는 학생 수가 적어서 전적지 답사가 쉬웠다. 그리고 다섯째는 공군대학의 영관장교는 당직근무가 면제되었다(주번사령은 사관학교 영관장교만이 임명되었다).

지난 호에 얘기한 것처럼 공군대학 교수부 3처장(중령)에서 국방대학원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된 이유는 공군대학에서의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처음에는 사관학교 교수부장이 나를 추방했다고 생각하여 마음이 불편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기회가 되었고 인생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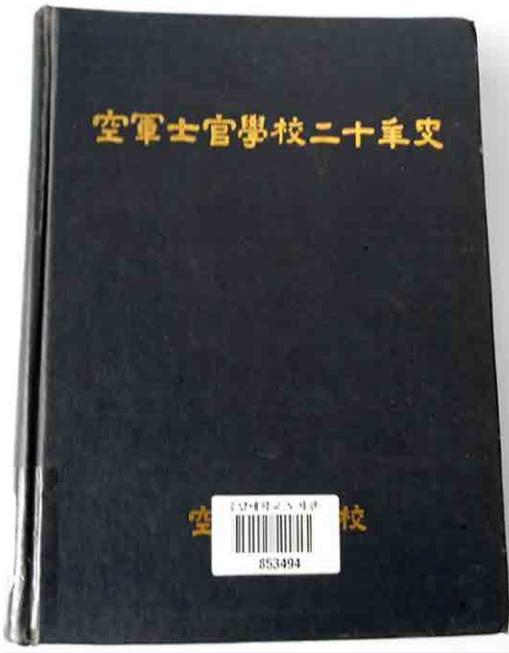
3.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의 유래에 관하여

「공군사관학교 20년사」(차후 「20년사」로 약칭함. 1974. 7)의 발간사에 의하면,

“편찬 자료의 부족 등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편찬을 적극 추진하여 주신 전 교장 윤자중(尹子重) 장군의 철저한 지도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74년 6월 25일 공군사관학교장 공군소장 이희근”

으로 되어 있다. 「20년사」는 윤자중 장군이 시작하여 다음 교장인 이희근 장군이 완성했



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윤자중 장군에게 「20년사」의 필요성과 발간을 건의한 것은 필자이고, 그 건의를 수용하여 실천한 것은 윤자중 교장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프리시아의 비스마르크(1815~1895) 수상은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경험에서 배우지만, 현명한 자는 타인의 경험에서 배운다”고 했고, 사학자 단재 신채호(1880~1956)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나도 역사의 중요성을 조금 알았기에 「20년사」의 편찬을 윤자중 장군에게 건의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20년사」에 실린 ‘군사이론 교육의 강화’에 대한

견해는 주목할 가치가 있기에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본교의 군사이론 교육은 창설 초기부터 실시해 왔으나, 1963년 전학기까지는 전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군사이론 과목들은 생도전대 군사학과에서 군사훈련과 함께 교육을 해왔으므로 군사학이 군사훈련과 혼동되고 그것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집중적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할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군사학은 영어로 Military Science 또는 National Defence Science로서 군사훈련(Military Training)과는 구별되는 엄연한 하나의 학문분야인 것이다. 곧 군사훈련이 군인으로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정이라면, 군사학(혹은 군사이론)은 군대의 간부인 장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63년 9월 1일 군사학과의 교수부제로의 예속변경은 군사학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하나의 학문분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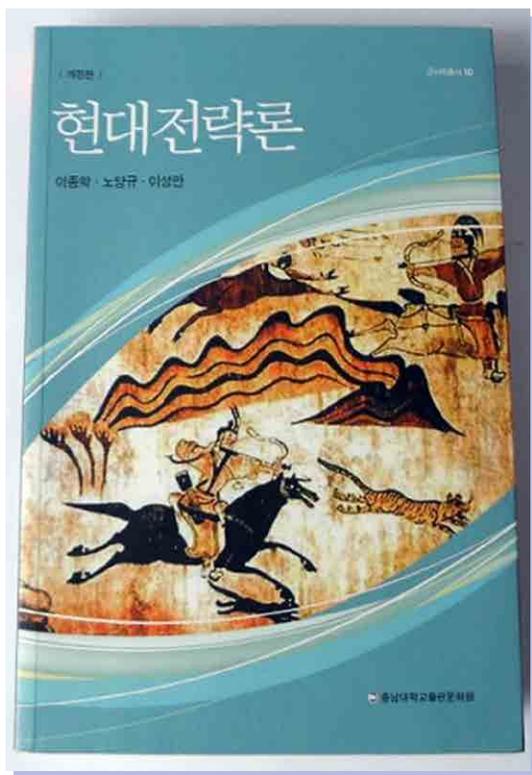
필자는 1967년 3월 교수부 군사학과 교관 그리고 11월에 군사학과장이 되었으나, 군사학과가 교수부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울분을 느꼈다. 즉 판사·변호사를 양성하자면 법학을, 의사는 의학을,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전공시키는데, 군의 간부가 될 생도를 양성하

자면 무슨 학문을 전공시켜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교장·교수부장·교관에 따라 견해가 달랐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학사' 학위를 준다고 '사관학교 설치법'(1955. 10.)에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사관학교 교육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왜냐하면 군의 간부는 적과 싸워 승리해야 하는 전략·전술 즉 군사학을 전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3월 8일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여하는 '군사학 학사 학위' 수여식을 지켜보면서 지난날의 우여곡절을 회상했으며, 또한 군사학 주전공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60년사」(2009)에 의하면, 옛날의 군사학과는 사회과학처에 '군사전략학과'로 겨우 연명해 오다가 2009년 1월 교수부 편제가 개편되어 교수부에는 인문사회과학처(3과), 이공학처(3처, 1실) 그리고 군사학처(3과)가 새로이 탄생하게 되었다. 필자는 「100년사」(2049)까지 봤으면 하는 소망을 품어보기도 한다.

박형, 나는 지난 1972년 공군대학에 재직할 때 발간한 「현대전략론」은 그동안 전략·전술에 관한 입문서 역할을 수행했으나, 한글세대의 등장으로 절판되었소. 그래서 작년(2013)에 영남대학교 노양규 박사와 공군사관학교 이성만 박사의 협조를 얻어 개정판(내용의 보완과 한글전용)을 출간했다는 것을 알립니다. 박형의 건승을 빕니다.



(leechoy@daum.net)

10기사관의 관악산 찬가(讚歌)



10기 사관 이은봉

갑오년(2014) 새해 첫날 아침 관악산에 올랐다. 저무는 한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이 맞닿은 원단(元旦), 그날 성무대 시절 맺었던 그 인연을 못잊어 새해를 맞아 관악산을 찾았던 것. 그래서 관악산의 눈 덮인 아침 풍광을 다시 감상 했다. 산의 곳곳에 녹아있는 생도시절의 사연들을 생각하면서 옛 정취를 음미해 본다. 특히 연주대 정상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길, 거기에는 유난히 옛 메추리 시절 애환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

대방동 성무대에 새 등지를 틀고 관악산을 조망하며 생활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언 56년의 세월이 흘렀구나. 땀 흘려 갈고 닦은 교육 훈련과 기쁨과 괴로움이 교차되는 생활 속에서도 메추리는 구김 없이 자라 훌륭한 보라매로 성장했다. 그리고 저 넓은 하늘을 누비며 마음껏 날았고 조국 영공방위의 금자탑을 쌓는데 젊음의 열정을 다 바쳤다. 뒤 돌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자들이 모두가 대방동 성무대 출신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저런 옛 생각을 떠 올리며 이 노병 성무인은 혹시라도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나를 반겨줄 산울림이라도 있을까 봐 눈 덮인 골짜기며 능선을 번갈아 가며 서성대기도 했지. 이른 아침 모두가 잠든 듯 고요한 관악산, 박새와 뱀새만이 먹이를 찾느라 짹짹거린다.

오호라 관악산! 백년 아니 천년이 가도 여기, 이 자리에 굳건히 자리하겠건만 언젠가 젊음을 날려 버린 이 노객은 저 멀리 하늘을 쳐다본다. 무심한 게 세월이라 그 누구를 원망하라! 성무대의 아름다움과 그 위용은 또 어디로 가버렸나? “시민들의 쉼터

보라매공원으로 변해버렸네.” 혼자서 부질없는 푸념도 해 본다. 이른 아침이어서인지 산의 고요와 적막함이 이 사람을 다소곳이 맞아주는 것 같아 기쁘고 즐겁기 한량없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의 한가운데, 아직 봄은 멀었지만 새 봄에 피어 날 꽃잎을 기약하는 철쭉나무에서 자연의 속삭임이 들리는 것만 같다.

관악산아! 영봉의 정기, 그 얼을 영원히 잊지 않으려다. 갑오년 첫 날 아침 이 영산의 품에 안겨 또 한해의 도약을 힘차게 외쳐본다.

나는 성무인의 한 사람으로서 관악산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의 강과 산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그 강, 산의 정기를 받아 생활함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산은 인물을 주관하고 물은 재물을 주관한다는 풍수지리학을 숭배해왔다. 따라서 인물과 재물을 키워 줄 것 이란 기대감에서인지 어느 집안에서나 산수화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풍습의 연장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사도 관악산 언저리에 자리 잡으면서부터 성무인들 모두가 관악산을 노래했고 늘 이산을 찾아 그 정기를 받아 온 게 사실이다. 공사가 맨 처음 김포에서 창설될 때에는 ‘김포’ 를, 제주에 있을 때는 ‘모슬포’ 를, 진해 캠퍼스에서는 ‘천자봉’ 을 노래 했었다. 우리나라 경향각지의 초,중,고교의 예를 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그 지역의 강과 산을 주제삼아 노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도 서울 대방동 캠퍼스에서 생도생활을 했던 성무인들은 관악산과의 인연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와 인연 깊은 관악산은 어떤 산일까? 아는 바와 같이 서울 중심을 놓고 볼 때 북쪽에는 북한산 남쪽에는 관악산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우뚝 선 큰 산이다. 검붉은 바위로 이루어진 관악산은 꼭대기가 마치 큰 바위기둥을 세워놓은 모습으로 보여서 “갓모습인 산”이란 뜻의 ‘갓뫼’ 또는 ‘관악’ 이라고 했다. 이렇듯 ‘관악’ 의 산 이름은 형상이 관처럼 생긴 모양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관악산은 예부터 개성의 송악산, 가평의 화악산, 파주의 감악산, 포천의 운악산 등 경기 지역 5악(岳)의 하나이다. 이 산의 줄기인 삼성산 중턱의 삼막사에는 원효와 의상 등 고승들이 수도했던 곳이며 또 몽고 항쟁을 기념으로 세운 3층 석탑이 있다. 또 삼국시대 쟁탈전을 펼치고 당군(唐軍)을 축출할 때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도 했다. 산 북쪽에 자리한 낙성대는 고려 때 전설적인 강감찬장군이 ‘큰 별이 떨어짐’ 과 함께 태어났다는 곳이다. 강감찬 장

군은 만주의 유목민족 ‘거란’의 침공을 물리친 명장이다.

이와 같이 관악산은 과거 우리나라의 안보의 보루로서 역할을 했던 지형적 가치를 가진 산이다. 이태조가 조선왕조를 세울 때 관악산은 서울을 지키는 산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했다. 즉 한양의 경복궁을 중심으로 북한산 봉우리와 관악산 봉우리를 선으로 그으면 정확히 직선으로 연결된다하여 관악산을 ‘불산’ 또는 ‘불기운(火患)’의 산으로 여겨왔다. 당시 이 불기운을 없애고 상쇄키 위해 관악산의 군데군데에 못(池)을 파거나 광화문 양쪽에 상상의 동물인 “해태”상을 만들어 세웠던 것은 그 시대 풍수지리설에 따른 조치의 일면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역사는 바뀌어 관악산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그 주변 환경은 많이도 변모되었다.

1958년도 말 공군사관학교가 관악산 언저리, 대방동에 자리 잡아 1985년까지 27년간 보라매의 산실로서 조국 영공방위의 첨병을 길러 냈고 1975년에는 서울대학교가 산기슭에 캠퍼스를 새롭게 건설해 이전했으며 산 남쪽 과천에는 정부종합청사가 들어섬으로 해서 관악산에 대한 불산(火患)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졌고 오늘날에 와서는 또 다른 뜻을 지닌 명산이 되었다. 공사, 서울대, 정부종합청사를 함께 품음으로써 젊음의 정열이 넘치고 호국 간성의 이성과 지성을 겨안게 된 유서 깊은 산이 된 것이다. 또한 근래에 와서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휴식공간으로 유명한 공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명산이 된 관악산 자락의 성무대 캠퍼스에서 생활했던 것을 나는 평생의 자랑으로 여겨왔다.

10기사관이 최하급생 이었던 메추리시절 진해에서 서울 신축교사로 이전함으로서 관악산과 인연을 맺었고 그로부터 우리 생도들은 기쁨과 괴로움 그리고 즐거움과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관악산을 쳐다보며 마음을 가다듬고 달래기도 했었다. 당시 관악산은 생도들의 훈련장으로 활용되는가 하면 때로는 완전군장을 하고 산 정상 연주대까지 행군훈련을 해야 하는 정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때는 왜 이 관악산이 성무대 가깝게 위치하여 이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하나 하며 불평도 해봤다. 비록 10기사관뿐이 아니고 대방동 성무대 생활을 거친 모든 생도들은 아마 똑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인간의 과거사란 지나놓고 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말도 있듯,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웠고 황홀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우리 10기사관들은 모두가 군 생활을 떠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젊은 날을 상기하며 늘 이 산을 오르고 있다.

특히 매년 1월 1일 신년 첫날 아침에는 눈이 내리고 영하의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관악의 영봉, 연주대 등반을 20여년 간 해왔다. 새해 아침 이 산의 정기속에 신년 결의를 다지며 남은 여생을 보다 알차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갖는 연례행사다.

관악산! 누천년, 누만년의 비와 바람에 씻기고 깎이어 왔음에도 너는 깨끗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우뚝 서있다. 온갖 꽃잎이 피고지고 많은 짐승과 새들이 울며 지저귀 또한 산과 더불어 같이 했으리라. 이렇듯 소멸과 부활이 반복된 자연의 무한한 순환 속에서 기개(氣概)와 기상(氣象)을 지키며 이 나라 서울을 지켜온 관악산이다.

관악산아! 우리 성무인들이 근 30여년 간 가까이 머물렀던 대방동 성무 캠퍼스를 지켜 보며 내려다보았겠지. 그 시절 메추리들이 시린 손, 발끝을 밤낮으로 어루만지며 큰 날갯짓으로 충천하는 보라매들을 응원했겠지. 관악산아! 앞으로 한반도에 통일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수도 서울, 한양의 요람으로 넓은 가슴을 열어 이 민족을 감싸 안으리라 굳게 믿는다.

앞으로 이 몸의 손발이성한 날까지 산을 오르며 10철회(10기생회 명칭) 기생가(관악의 영봉 정기서려 공사에 맺고..... 무용의 패자 공사 10기생)를 관악산 찬가로 삼아 힘차게 부르리라 다짐한다.



이창운 대장의 충정



21기 사관 김동기

조선조 후기 정조 임금 때 이창운이 대장으로 등단하여 어영대장이 되었다. 문신으로서 재상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대배’라 하고 무신으로서 대장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등단’이라고 했는데 당시 서인의 서슬이 시퍼런 세상인데도 북인 출신의 무인으로서 대장에까지 오른 것을 보면 이창운이 인물은 인물이었던 모양이다. 더구나 어영대장이라면 왕의 친위부대 지휘관으로서 오늘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쯤의 직책으로 보아 왕의 신임이 어떠한지는 가늠할 수 있는 일이겠다.

당시의 법이 대장이 되면 조정의 젊은 문신 중에서 종사관 한 사람을 임명하여 뽑아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 요즘에도 군에서 장군이 되면 병과를 초월하여 부관을 한 명 임명하여 보좌관으로 쓸 수 있는 제도와 같은 맥락이었던 모양이다.

이창운이 원로대신 김육의 자제로 문과에 급제한 신진기예의 김재찬을 종사관으로 지명하자 온 장안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서인 세상에서 북인이 종2품 어영대장에 승진한 것만 해도 기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당대의 세도가인 서인의 거두 약현대감 김육의 아들을 자기 수하로 당당하게 불렀으니 과연 김재찬이 그 부름에 응하느냐 불응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재찬이 순순히 부름에 응한다면 약현대감 뿐 아니라 서인들 모두가 한방 얻어맞은 꼴이 되겠고 끝내 불응한다면 이창운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세태는 문존무비의 그릇된 풍조에다 북인의 존재 따위를 우습게 아

는 분위기여서 혈기 방장한 김재찬은 부름에 콧방귀 끼며 응하지 않았다. 어영청에서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연방 출사 명령을 시달렸지만 김재찬이 여전히 불응하자 사흘째 되는 날 이창운이 강권을 발동하였다. 명령을 거역한 죄로 군법을 시행하겠다고 군사를 풀어 잡으러 보낸 것이다. 군관이 군졸들을 인솔하여 대장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들이다치자 김재찬이 다급한 나머지 아버지에게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꼴 좋다. 내가 조정의 체통을 무시하고 잘난체 하더니, 그 사람 성품에 너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그렇기로 아버님, 이를 어찌합니까?”

“내가 일국의 대신으로서 군법을 흠집 낼 수는 없다. 너의 경솔을 진작 바로잡아 주었어야 했는데.”

김육은 혀를 꼴꼴 차면서 마지못해 몇 겹으로 접은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다.

“뭘까 모르겠다마는 장군한테 드려나 보아라.”

오라에 묶인 김재찬이 군영에 도착해 보니 형구를 벌려 놓고 단상에 높이 앉은 이창운의 호령이 추상같다.

“내 오늘 나라의 기강이 어떠한지를 보여 주겠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국법이 너를 죽이는 것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장군께 올리라고 아버님께서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창운은 얼굴을 찌푸렸다. 권력을 내세워 자기한테 압력을 넣으려는 수작 같았기 때문이다.

“그 대감이 아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 따위 편지나 쓰실 그런 어른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재상의 편지를 무조건 물리칠 수는 없었다. 주변에서도 우선 보기나 하자고 권하여 못 이기는 척 군졸이 가져다 주는 편지를 펴보니 이게 웬일인가, 그냥 백지였다.

‘대신 자리에 있으면서 군율을 어긴 죄인을 두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으러 가는 아들을 못 본 체 할 수도 없다. 그런 심중을 참작하여 처분 해 달라는 뜻이로군.’

“너를 군율에 따라 처단해야 마땅하지만 상공께서 특별히 당부 말씀이 계시고 하니 참형은 면하게 해주마. 대신에 오늘부터 반년 간 벌번을 서도록 해라.”

번이란 요즘 말로 당직을 말하는데 반년 동안 매일같이 당직을 서라는 말이었다. 벌번을 서는 첫날 밤, 동료들은 무식한 무인들이라 대화가 통하지 않아 김재찬은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하여 한참을 자고 있는데 군졸이 들어와 흔들며 깨우며 대장이 찾는다고 했

다. 때는 축시(새벽 3시)가 조금 지난 시각인데 대장이 벌써 출근을 했다는 것이다. 김재찬이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의관을 정제하여 대장 막사에 가니 이창운은 교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펴놓은 커다란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첫 날이라 잠자리가 고생스러웠을 것이다.”

이창운의 음성은 의외로 부드러웠고 김재찬을 가까이 와 앉으라고 하더니 지도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평안도와 황해도의 지도다. 내가 하나하나 짚으면서 설명할테니 머릿속에 푹푹히 기억해 두거라.”

그리고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거리가 몇 리, 그 중간에 주막이 몇 개 있는지, 어느 부락에서는 군사 몇 명이 주둔하여 얼마동안 먹을 군량을 조달할 수 있고, 어느 고개는 높이가 얼마여서 넘기가 어떠한지, 어느 산은 넘자면 얼마가 걸리고 우회하자면 며칠이 걸리는데 군사가 몇 명이면 넘는 것이 낫고 몇 명 이상이면 우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등등 실로 귀신이 곱할 정도로 상세히 꿰뚫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첫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창운은 날마다 이른 새벽에 나와서는 지도를 펴놓고 김재찬한테 황, 평 양서의 지리, 풍속, 물산을 반복하여 가르치니 한창 충기가 살아있는 나이에 그것도 정신이 번쩍 드는 새벽의 공부고 보니 반년이 지난 뒤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없건만 황해도부터 시작해서 평안도 끝까지 전 땅덩이가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정도가 되었다.

마침내 별번이 끝나는 날 이창운은 새삼 정색을 하고 말했다.

“조정이 서북 사람들을 차별대우해서 불평이 쌓일대로 쌓였는데 나라 안이 군사를 모른지 벌써 200년이나 되었다. 이 지역에서 불원간 병란이 일어날 소지가 농후한데 내가 군문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몸을 바쳐 어떡하든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나 내가 죽은 뒤의 일은 어찌겠는가? 그래서 지금 젊은 무반 중에 장래성있는 인물을 꼽아보니 당최 있어야지. 무신에 인재가 없으면 문신 중에서라도 골라야겠지. 그래서 내가 고르고 고른 인물이 자네라네. 일후에 대란치를 일을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이니 부디 내 뜻을 잊지 말아 주게.”

그 후 김재찬은 종사관 재임을 무사히 마치고 지방 수령을 거쳐 내직에 들어갔는데 벼슬이 점점 올라가 정조시대가 지나 순조시대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정승이 되었다. 그런데 아

니나 다를까 순조 11년 선달 그믐께 평안도 가산에서 홍경래가 반란을 일으켜 정주 객산 등을 명성말이 하고 있다는 급보가 날아든다.

설이고 뭐고 서울 거리는 난리 소식에 발각 뒤집히고 조정은 대책 마련에 부심했는데 순조는 우선 장신 이요헌을 순무사에, 김재찬을 영의정 겸 도체찰사에 임명하여 반란 진압의 책임을 맡겼다.

김재찬이 하룻밤 만에 작성한 반란군 진압 종합 계획을 내농자 우왕좌왕하던 왕과 조정 대신들의 입이 딱 벌어지도록 놀란다. 김재찬이 황해도와 평안도의 지리와 문물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데다가 실로 치밀하기 짝이 없는 계획으로 조정은 물론이고 토벌군 장졸들도 도체찰사의 해안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었다.

얼마 후 반란이 진압되어 논공행상에서 국난평정의 일등 공신이 되어 후한 상을 받은 날 저녁, 집에 돌아온 김재찬은 마음이 착잡했다. 반란을 일으킨 홍경래를 그르다고만 할 수는 없었다. 지금 조정을 둘러 보건데, 단지 집안 문벌 덕분에 어중이 떠중이로 벼슬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반면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양반의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탓으로 초야에 묻혀 있는 인재가 수두룩했으니 말이다. 더군다나 나라에서는 평안도 사람이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하고 있으니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의 제도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음을 뼈저리게 통감하면서도 솔선 주도하여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자신이 곤혹스러웠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창운 대장이었다. 그의 배려로 몇 달동안 벌번을 서면서 배운 지식이 없었더라면 이 국난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데 생각이 미치자 아찔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다.

일개 야담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지만 당파와 문벌을 떠나 국가 안위를 직시한 이창운의 사려 깊은 행동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데가 있다. 이창운이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인물들이 어느 시대나 면면히 살아있어 그 시대가 지탱되고 있는 법이다.

AN UNFORGETTABLE MEMORY



16기 사관 **박성국**

38년 전 내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만났고, 한국 장교에게 유난히 따뜻하고 친절했던 Henrietta Howarth란 한 미국부인을 회상해 본다. 그녀는 당시 San Antonio 시의 시청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전형적인 미국 여성이었다.

그녀와의 첫 만남

1976년 공군소령 시절 Arizona 주 Phoenix 에 위치한 Williams 미 공군 기지에서 실전적인 전투비행훈련을 받기 위해 도미 했었는데 모든 외국 장교들이 미국 내에서 비행훈련을 받게 될 경우 비행에 앞서 Texas 주의 San Antonio에 있는 Lackland 미 공군 기지의 영어 학교에서 두달 반 동안 영어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영어 교육을 받기 위해 Lackland 기지로 갔는데 도착한 첫 날 그녀는 집으로 저녁 초대를 해주었다. 마침 그 곳에 나보다 먼저 와 영어교관과정에서 교육 중이던 선배 소령(후에 육군중장으로 예편)과 이미 잘 알고 있던 터라 내가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우리를 함께 집으로 초대한 것이다.

그 날 저녁 우리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 후 주말이 되면 우리에게 유명한 Alamo 요새 등 지역 명소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고 저녁에는 자기 집으로 데려가 식사와 숙소를 제공해 주어 편안한 주말의 미국 생활을 체험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달 여 정도 지난 후 그동안 우리들 한국 장교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는 그녀의 호의가 궁금하여 하루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오래 전에 이곳에 교육 받으러 왔던 한 선배 해군 장교(우리보다 약 14년 정도 선배로서 후에 중령으로 예편 후 대학교 영문학 교수가 되었다 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당시 그녀는 남편이 이미 사망하고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유학 온 김 소령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아버지가 암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집에서 누워있게 되었다. 그러자 김 소령은 수시로 집에 들려 그녀 아버지에게 면도와 세수까지 시켜주는 등 성심껏 돌봐 주었고, 이 같은 김 소령의 따뜻한 보살핌에 그녀 아버지는 매우 감동 했다고 한다. 김 소령은 교육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몇 달 후 그녀의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게 되었다. 그러나 임종하기 전 몇 가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는 재산의 일부를 우정과 감사의 표시로 김 소령에게 전해 주도록 딸에게 부탁했다. 결국 딸은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산 일부를 김 소령에게 전하기 위해 한국에 와서 그를 만나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녀 아버지와와의 관계는 친구간의 순수한 우정이었으므로 그 대가로 재산이나 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한사코 거부했다고 한다. 마침 대화중에 그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겨우 설득하여 그의 학비만이라도 지원해 주기로 하였는데 그때 그녀는 한국인의 순수함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두 번째 만난 한국 장교

그 후 두 번째 만난 한국인이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들의 언행과 성실한 자세에서 다시 한번 따뜻하고 반듯한 한국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나는 비행훈련을 위해 Arizona 주의 Phoenix 로 떠났고 선배 장교도 교육을 마치고 귀국하였으며 우리들은 그 후에도 우정 어린 편지 교환을 지속하였다.

6~7년이 지난 어느 날 결국 그녀도 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는 편지를 받았고, 몇 달 후에는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2차 수술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 남편과 아버지에 이어 가족이 모두 암에 걸리는 불행을 맞게 된 것이다.

다시 그녀를 본 것은 내가 대령이 되어 Alabama주의 Montgomery에 있는 Air War College에 공부하러 갔을 때('86~'87)였다. 과정 중 기지 견학의 일환으로 Lackland 기지를 방문하면서 그녀의 집을 찾아갔는데 그 때 집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우리

를 태워주던 그 당시 최신형 Lincoln Continental 승용차는 타이어 바람이 빠진 상태로 폐차 직전인 것 같았으며 그녀의 옛 모습은 온데 간데 없이 피골이 상접한 노 환자가 힘없는 모습으로 나를 반기고 있었다. 그 힘든 몸으로 어떻게 구했는지 김치와 함께 저녁을 차려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역시 핑 도는 눈물을 억제하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생활은 동네 친구들이 교대로 장도 봐주며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런대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눈에도 그녀가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다.

마지막 편지

“어느 해인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그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만약 올 연말에 그녀로부터 Christmas Card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걸로 기억해 달라는 슬픈 내용이었다. 과연 그 후에는 Christmas Card나 편지를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우리는 옛날 일들을 회상하며 격려와 위로의 대화를 나누었고 집을 나서기 전에 무심코 “내가 뭘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라고 묻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제 뱀장어 가족 핸드백을 하나 갖고 싶다고 했다. 얼마 전 자기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서 뱀장어 가족 핸드백을 사왔는데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는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삶 속에서도 예쁜 핸드백을 갖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이 소녀처럼 순수하고 애처로워 보였다. 한국에 가는대로 보내 줄 테니 걱정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말로 그녀를 위로하며 집을 나설 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쉬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발길을 돌렸다.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후 가족과 함께 이태원에 가서 예쁘게 생긴 뱀장어 가족 핸드백을 크기 별로 몇 개 사서 보냈더니 얼마 후 소녀같이 즐거워하는 그녀의 감사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후 다시 2~3년이 흘렀다. 어느 해인가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그녀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용은 만약 올 연말에 그녀로부터 Christmas Card를 받지 못하면 자기는 죽은 걸로 기억해 달라는 슬픈 내용이었다. 과연 그 후에는 Christmas Card나 편지를 더 이상 받지 못했다.

회상

1995년 소장이 되어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다. 마침 San Antonio의 Kelly 미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정보국에서 1박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았고 도착해서 바로 그녀의 소식을 확인해 보았더니 그녀의 몇 년 전 사망 소식을 전해들을 수가 있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녀의 사망을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그 날 저녁 미 공군 정보국장과 시내 중심가에 있는 Cow boy 정취가 흐르고 고풍스러운 강변가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꼭 이 Story를 글로 남겨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의 생각을 말해 주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 북 핵 문제 등 국내의 상황과 관련하여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면 관계상 짧게 요약된 내용이지만 옛 생각을 하며 그 때를 회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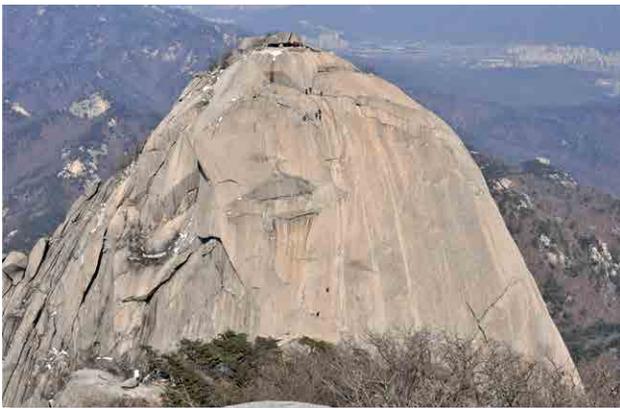
나는 왜 환갑을 지나 암벽을 오르는가



21기 사관 **김기연**

“아니, 뭐라고? 환갑 지나 암벽등반을 시작하더니 이제 등산학교까지?” 위협하고, 장군출신으로서 과연 할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충고하던 친구가 말을 아낀다. 문득 나도 궁금해진다. 일찍부터 바위를 하던 사람도 그만 둔다는 이 나이에 나는 왜 암벽을 오를까? 암벽등반만 생각하면 왜 모든 일을 제쳐놓고 뛰어가고 싶어 질까?

가파른 산길을 올라 수직의 깎아지른 암벽과 처음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압도당하기 마련이다. 그 높이가 수십 미터이거나 백 미터를 넘거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투 조종사로서 30여 년 비행을 한 필자 역시 ‘와!’ 하는 탄성과 함께 ‘과연 저기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절로 생긴다. 출격을 앞둔 조종사와 같은 팽



북한산 인수봉

팽한 긴장감을 느낀다. 경외감이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느낌은 예외가 없다. 그러기에 안전한 등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낮추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경건한 자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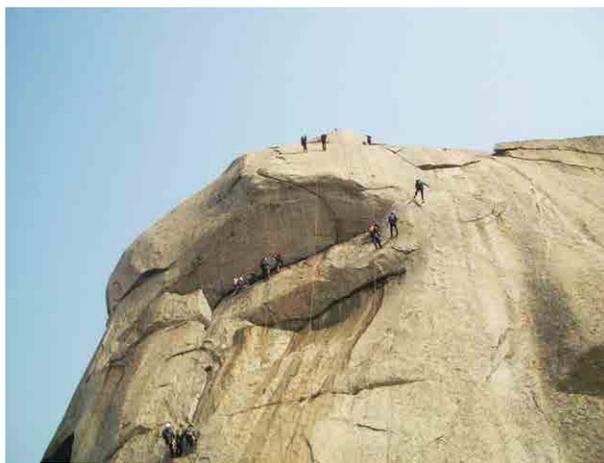
바로 이것이다. 환갑을 지났지만 평균연령 100세 시대엔 살아가야 할 날이 살아온 세월

만큼 길게 남아있다. 길고긴 세월을 무기력하게 지낼 수는 없는 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면, 은퇴 후 느슨해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바로 이런 긴장감과 경건한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을까?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도전이 필수다. 낯선 여행지를 찾아 나서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늘어나는 뱃살을 줄이려는 것은 도전이다. 이제까지의 성격과 행동을 반성하고, 세월에 맞게 자식이나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고, 습관을 고쳐보겠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악기나 운동 등을 새로 시작하고 죽은 후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실천하는 일은 꽤나 어려운 도전이다.

도전은 용기가 필요하다. 혹시 실패하지나 않을까, 도전하겠다고 하다가 주위로부터 조롱받지나 않을까, 도전에 필요한 이런저런 일들로 이제까지의 편안했던 일상이 휘둘리지나 않을까 망설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니와 그 결과도 망설임보다 훨씬 맛있다. 언제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도전이지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거듭되는 실패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과정임을 염두에 두면 된다. 그러면 도전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

이런 도전의 생활화에 암벽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암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선다. 용기가 필요하다. 누구든 오르다가 미끄러질 수 있다. 그러한 전제가 있기에 안전벨트와 로프가 필수적이다. 설령 미끄러져 로프에 매달린다 해도 이미 그 높이에 도달해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작은 실패는 숙련된 바윗꾼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담이 없다.



인수봉에서의 하강

다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한다. 새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 방법을 익힌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배운다. 안전하게 오르면 고마워한다. 더 큰 만족과 희열을 느낀다. 실패를 두려워 않고,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암벽을 하면 이런 일

이 아주 자연스럽다.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려면 혼자서도 단련이 필수다. 매일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으로 50~60회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근육운동을 한다. 몸이 무거우면 등반이 어려워지므로 체중에 신경을 쓴다. 이것은 몸이 더 잘 느끼는 것 같다. 맛있는 음식도 의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하게 되어 체중조절이 저절로 되는 느낌이다. 암벽을 시작하기 전에 비해 체중이 10kg 정도 빠졌다. 덕분에 제법 복근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언젠가는 王자가 새겨질 지도 모를 일이다. 가끔씩 게으름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자신을 채찍질하고, 때론 복근처럼 생각지도 않은 좋은 선물도 받게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암벽등반은 보통 사람들에게겐 불가능한 길을 오른다. 그리고 등반을 하다보면 시작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최선의 등반, 안전한 등반을 위해서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찾아 나서야 한다. 또한 같은 봉우리라도 등반할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오르느냐에 따라 시간과 체력의 소모가 달라진다. 항상 최선의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다.

일상생활에서도 눈앞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대신 다른 방법,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새로운 암벽길,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친다. 항상 몸과 마음을 낮추며 새 세상을 알려준 상대방을 인정한다. 생활에 여유가 넘치고 보람이 묻어난다.

암벽등반은 한 순간의 실수로 생명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 신중하고 세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 몸을 날려야 할 순간에 멈칫거리다간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물론, 확실한 확보가 우선이다. 준비 없이 몸을 날리는 것은 소위 ‘묻지 마’ 등산객들의 무모한 행동이 필연적으로 낳게 마련인 비극의 시초가 될 뿐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신중하고 세밀한 준비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용기를 발휘해야 할 순간에 멈칫거리다간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

2학년 때 생도대표로 미국의 사관학교 견학을 다녀오며 나의 첫 카메라를 장만한 것이 1970년. 사진애호가인 한 사람으로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일은 여간 짜릿한 일이 아니다.

고도를 높여감에 따라 때로 달라지는 능선과 도시의 모습, 멀리서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양

으로 다가오는 바위와 암벽, 기이한 소나무, 심지어는 갓 부화한 어린 새끼에게 해를 끼칠까 봐 40여 분간 계속 우리를 공격하여 결국 등반로를 바꾸게 했던 선인봉의 매 부부....

정상에 올라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동료들에게 사진다운 사진으로 감동을 배가시키는 보람은 작은 나눔의 방법이다.

암벽등반은 남 보기에 우스꽝스러울 때도, 멋질 때도 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난관에 돌아가기도 하고 굴뚝 모양의 틈새에서 온 몸을 구더기처럼 꾸물거리며 오르기도 한다. 보기에 멋진 긴 경사면을 품 나게 내려오려면 그 전에 그만큼 올라가야 한다. 때로는 쉽게, 때로는 아주 힘들게. 십 년 가까이 인도전통무용을 익히고 있는 딸아이와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하는 아들에게도 보탬이 될 것이다. 예술뿐만이 아니라 세상살이 자체가 생각처럼 쉽지 않고, 또 열심히 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지도 않는 것이다. 좌절하고 힘들 때 아빠의 모습을 보면 다시 떨쳐 일어서기에 도움이 되리라.



설악산 범봉에서 하강

암벽등반은 나에게 겸손과 도전과 배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몸에 배이게 만들어준다. 현역 시절의 비행을 앞둔 순간처럼 짜릿한 긴장감으로 마음을 다잡게 해준다. 자신의 체력이 젊은이 못지않음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얻으며,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게 한다.

보통 사람들은 접할 수 없는 곳에서 색다른 사진을 찍고,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항상 찾아보도록 해준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고비를 넘는 지혜를 얻고, 신중하고 과감하여야 하는 이유와 그 순간을 체감한다.

그대, 나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슴 뛰는 내일을 살고 싶으신가? 암벽등반에 도전해 보시라. 심신의 활력이 샘솟고 예기치 못했던 많은 선물이 그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여명21기 산우회 히말라야 트레킹

여명 21기 히말라야 원정대

(금기연, 배민섭, 유근국, 이찬, 정용운, 조성준, 황일서)

“숨 고르기!” 등반대장의 지시에 모두들 살았다는 듯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멈춘다. 조금 전에 숨 고르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숨 고르기란 배낭을 내려놓고 비교적 길게 쉬는 휴식과 달리 배낭을 멘 상태로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는 것을 말한다. 최고 2,000m가 채 되지 않는 국내산과 달리 히말라야는 해발 고도가 매우 높다.

몇 발자국만 걸어도 숨이 턱에 차고 어지럽다. 고소증이다. 속이 울렁거리고 만사가 귀찮아진다. 머리가 깨어지는 것처럼 아프다. 초점이 맞지 않고 이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쉬 피곤해지고 식욕이 떨어진다. 이럴 때 등반대장의 “숨 고르기!”란 말은 천당에서 들려오는 복음에 진배없다.

다들 헉헉거리면서도 혹시 누군가가 잘못 되지 않나 서로를 살핀다. 사관학교에서부터 30여 년을 함께 지내며 다져온 우의와 배려, 졸업 후 몇 년간을 함께 산행하며 닦은 경력과 내공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대망의 정상에 오르게 된다. 꿈에도 그리던 5,000m 산정에.

돌이켜 보니 짧지 않은 준비기간 이었다. 필자가 안나푸르나에 다녀온 뒤 함께 하던 동기들과의 정기 산행에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발단이 되었다. 모두가 한번은 가보고 싶었던 히말라야라는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새해 1월부터 10개월간 계속 산행을 하며 자료를 모으고 기금도 적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지척에서 볼 수 있다는 칼라파타르를 목표로 삼았다. 사관출신답게 환갑이 지났지만 아직 할 수 있다는, 팔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한 후 기상관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

이라는 랑탕으로 행선지를 바꿨다.

고물 버스로 8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곳, 바로 랑탕 계곡을 트레킹하기 위한 출발점인 샤프루베시다. 해발고도 1,503m. 롯지를 정하고 음식을 주문한 다음 바로 식사준비를 한다. 롯지는 숙소와 식당을 겸하고 있어서 식사를 자기 집에서 하지 않으면 방값이 몇 배로 댈다. 그러나 몇 번이나 현지음식을 먹어본 바로는 별로 입에 맞는 것이 없다.

궁리 끝에 찾은 묘수는 식당에 계란 프라이와 샐러드 등을 최소비용으로 주문하는 것. 그리고 등산용 압력밥솥과 버너, 카트만두에서 구입해간 쌀로 밥과 김치찌개 등을 준비한다.

우리에게 한국에서 구입하여 끼니 단위로 재포장한 김치가 최고다. 안나푸르나에 갔을 때는 여행사에서 한식 조리사를 데려 갔고, 비용도 훨씬 높았다. 그러나 쌀과 김치, 약간의 통조림 등으로 구성한 우리 식단은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대원들이 전혀 식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었다. 식사는 돌아가며 하루씩 당번을 정하여 준비했다.

네팔은 전기사정이 나쁘다. 저녁을 먹고 다음날의 일정 등을 이야기하며 휴식을 취하지만 이내 난방이 되지 않아 커다란 냉장고 속 같은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 식당이 불을 꺼버리기 때문이다. 태양열을 이용하는 전기인지라 충분할 리가 없고, 걸핏하면 아예 가동이 되지 않는다. 덕분에 밤 9시에는 침낭 속으로 파고들어야 하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미 자정이 지났다.

트레킹 출발 시간은 대개 7시 경이다. 그러자면 식사를 6시에는 해야 하고, 식사당번은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한다. 이 또한 한국 시간으로는 3시간 15분 빠른 8시 15분이니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트레킹 첫날은 해발 1,503m에서 7시에 출발하여 계속 랑탕 강을 끼고 걷는다. 목적지인 2,455m의 라마호텔에 오후 3시 반에 도착한다.

둘째 날은 3,430m의 랑탕까지 가는 일정이다. 중간에 고도 3,000m를 통과하며 약 두 시간을 고도 적응을 위해서 쉬는다. 7,227m의 랑탕 주봉과 6,596m로 날카로운 모양의 랑탕 2봉이 번갈아 모습을 보여주며 기대를 부풀린다.

셋째 날. 넓게 펼쳐진 고원지대를 지나 언덕을 오르자 저만치 아래에 오늘의 목적지이자 사흘간 있을 3,830m의 캄젠굽바가 보인다. 전날 머물렀던 랑탕에 비하면 작지만 평화로운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다.



캄젠굽바에서 랑시샤카르카로 가는 길

나흘째는 고도적응을 겸해서 4,285m 랑시샤카르카 계곡을 다녀오기로 한다. 오름이 거의 없는 평지를 걸었는데도 이미 4,000m 가까운 높은 고도에 올라와 있는지라 한 명이 고소증을 호소한다.

닷새째. 통상 오천 미터로 통하는 체르고리. 주변 산 중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산행허가 없이 오를 수 있는 독립봉으로는 가장 높은 곳이다. 캄젠굽바에서 단숨에 약 1,200m를 더 올라야 한다. 휴식과 숨고르기로 페이스를 조절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천천히 걸은 결과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모두 정상에 올랐다. 한 명이라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이제 국내에서도 천천히 즐기며 걸어야겠다. 한국과는 달리 정상 표지석이 없다. 룡다와 타르초라는 깃발, 대충 쌓아올린 돌더미 뿐이다. 사방 360도 어디나 하얀 눈이 가득한 설산, 최고의 오찬장소다. 게다가 한 점 오염 없는 맑고 신선한 공기,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온 목표를 이루었다는 벅찬 감동과 성취감까지 함께 하니 이보다 나은 곳이 세상에 없을 것 같다. 모두들 점심은 뒷전이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끝내 놓고 봐도 참 대단하다. 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용케도 극복한 결과이다. 부인들과 함께 한 출정식에서 환갑을 지난 만큼 최우선이라고 다짐한 안전산행을 이룬 것이다.



체르고리 정상 - 360도 조망이 가능한 최고의 장소

옛새째, 역코스고 고도를 낮추니 대원들의 몸 상태도 바로 회복된다.

이레째, 트레킹 마지막 날. 누룽지를 끓여내자 식욕을 잃었던 대원이 더 달라고 한다.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개성 강한 7명은 행동을 통일하기에 만만치 않은 인원이다. 더군다나 본질이 수평관계인 동기생. 하나의 큰 목표를 향해 모였지만 그렇다고 항상 의견이 일치할 수는 없다. 예상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린 다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미리 검토해본다. 각자의 역할수행에 감사하며, 결과에 대해선 좋은 면을 보고 지원·격려하되, 예상 못한 일은 교훈으로 삼았다.

네팔은 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세계적인 명소와 유적들, 석가 탄신지 와 8,000m를 넘는 산이 8개, 6,000m를 넘는 산은 수천 개나 된다고 한다. 히말라야의 자연에 매료될수록 네팔이라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도 커진다. 천혜의 자원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은 값비싼 항공료를 지불했듯 상당액을 숙박료와 음식 값으로 지불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룻밤 룯지 사용료는 보통 2인실이 겨우 5달러를 약간 넘는다. 음식 또한 방값보다 낮은 수준이다. 숙식을 합쳐 하루 30달러면 넉넉하다. 대부분의 룯지가 국영이라는 사실을 알면 할 말이 없어진다. 룯지의 난방시설과 화장실만 개선해도 몇 배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강물로 간이 수력발전을 하면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석양을 받아 신비로운 빛을 발하는 간첸포(6,387m)의 위용

한심한 생각이 앞서지만 알고 보니 자신도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었다. 출발 이틀 전에 바꾼 사진기의 성능을 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최고 감도의 동영상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5,000m 정상에서 그 기막힌 풍광을 사진으로만 남겼으니 아쉬움이 남는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찬찬히 살펴볼 일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소질과 능력, 잠재력을 정확하게 알아내어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 남의 처지를 부러워하고 있거나 않는지를....

히말라야에서만이 아니다. 설악산이든 동네 산이든 여유롭게 주위를 돌아보며 즐겁게 걸어야겠다. 걸음을 늦추면 이제껏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진감이 나타나며,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는가 하면, 함께 더 멀리 갈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진리의 발견이요 자신감의 재확인이니 산행의 묘미란 바로 이런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등산뿐이라. 매사에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며 즐기는 습관을 길러야겠다.

귀거래의 호연지기를 꿈꾸며



22기 사관 **최병운**

고향이 고향인지 하늘이 고향인지.....

호연지기라는 말은 메추리 가입교 훈련 중에 ‘외출휴가의 목적’을 암기하면서 처음 접하였습니다.

서울 대방동 캠퍼스, 체육관 쪽 스탠드가 흙무더기 독으로 되어 있던 제 2연병장에서 흘 전투복과 화이버 사이를 흐르는 바람은 참으로 추웠습니다. 그래도 독 밑에 앉아서 휴식을 할 때 훈련지도 선배님들이 메추리 노래자랑을 시켰는데, 이정석 동기의 ‘아빠의 청춘’과 정양 동기의 ‘성주풀이’는 압권이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금년 초 청주 캠퍼스, 도서관 뒤 양지바른 연병장에서 메추리 목소리가 점점 영글어 지더니 어느새 날개를 펴고 날아갔습니다. 66기라고 하니 우연하게도 쌍매와 같은 쌍육입니다.

저들처럼 44년 전에 쌍매가 된 저는 금년 말이면 미관말직의 벼슬살이를 모두 마치고 45년간의 날개를 접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쌍매회가 총동창회를 섬기게 되었으니 일벌백계하던 단체기압의 정신에 비추어볼 때 추호의 작은 일까지도 정말로 모두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쌍매들이 들것질로 조성한 대방동 만호정 인공섬에 심겨져 있던 향나무를 청주 캠퍼스로 옮겨와 성무관 앞에 심어둔 것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향나무는 울릉도 주민들이 공사생도들의 늘 푸른 기상과 향기를 기르라는 뜻으로 기증했던 나무이며, 당시 수령만도 수백 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귀거래는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한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귀거래를 생각할 때마다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한다는 중압과 더불어 쏜살처럼 지나가는 시간을 실감하면서 하루의 거름도 없이 고단함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쌍매회장 민형기 동기로부터 <성무>지에 기고할 원고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대화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호연지기’였습니다. “산야 외부에서 호연지기를 기른다”는 외출휴가의 목적은 저의 귀거래가 마치 군문에서 잠시 외출휴가를 나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진 속의 향나무처럼, 어린 시절의 20년과 공군에서의 45년을 비교하면, 고향이 고향인지 공군이 고향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말로는 고향이 고향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서는 공군이 고향인 것처럼 느껴지니, 내년

이 되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다는 선진들의 말이 더욱 실감될 것 같습니다.

조국의 하늘이 늘 푸른 것은

다음의 글은 작은 오석에 새긴 22기 동기생 전역 기념패의 문장입니다.

조국의 하늘이 늘 푸른 것은 그 하늘에 쌍매의 청춘과 꿈이
서려 있어서 임을 잘 알듯이 조국과 공군의 발전에 젊음을
바쳐 헌신하고 이제 반백이 되어 군문을 떠나는 아쉬움을
이 패에 담아 영원히 쌍매임을 기억하려 합니다.

각자의 전역 년 월 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제22기 동기생 일동

이 문장은 25년 전 강수준 동기와 함께 동기생의 일을 맡고 있을 때 제가 작문한 것입니다. 지금 읽어 보아도 하늘이 푸른 것은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꿈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유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밤이 되면 식어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하늘에 열정을 쏟아 놓았습니다. 하늘의 연못에 가득한 이슬의 영롱함은 쌍매의 것만은 아니지만, 반백이 성성한 쌍매는 하늘에 죽보를 둔 천손임에 분명합니다.

이 사진은 공사를 졸업하시고 6·25전쟁에서 처음 순직하신 임택순 선배님의 동상입니다. 옛날에 선착순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박물관 모퉁이로부터 퍼레이드장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조성되어 불사조가 되신 성무인의 헌신을 기념하는 성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앞을 운전할 때는 20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늘이 푸른 이유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성무지 36호(2008. 1)에 기고한 ‘하늘을 고향 삼은 작은 리더십’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의 여운입니다.

하늘처럼 파란 공군제복을 입고 지나가는 장병들을 보면, 참 잘생겼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보고 또 뒤돌아 본다. 전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37년 전 메추리시절부터 불렀던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고향이요 또 무덤”이라는 공군가의 가사는 예비역이 된 나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

하늘이 나의 싸움터요 무덤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일터였고 고향이 된 하늘은 생각하면 할수록 나를 사로잡는 그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늘의 일은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사명인 동시에, 내가 돌아갈 고향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하늘을 가슴에 품고 살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이 글의 결론에서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좀 더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작은 리더십을 꿈꾸는 나의 소망이다. ~~ 그래서 하늘을 고향삼아 작은 리더십을 꿈꾸며 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려하니 공군의 하늘이 나의 고향이 되어 있고, 또 다시 <이 하늘>에서 보니 <저 하늘>이 저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셋인 저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 나그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마음으로 쓰는 조선궁술 길라잡이

『마음으로 쓰는 조선궁술 길라잡이』는 활쏘기에 관한 궁술을 모아 계통별로 정리한 저의 활쏘기 매뉴얼입니다. 출판하지 않았지만 함께 활을 쓰는 사우들에게 나누어주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3월말 현재 6천 발을 쏴야 약 2할 대를 맞히고 있습니다. 골프에 비유하면 100을 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역 때 잘하지 못한 테니스를 노년의 운동으로 잘 해 보려고 동네 테니스장에서 레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발목을 다치고 근육도 파열되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는 골프도 그만 둔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이글’을 했다는 말을 들어도 혈맥이 격동치를 잃게 되었습니다.

나이 60이 되던 해, 국방대학교 정무정에서 국궁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제나 웅크리고 앉아서 책을 보고 컴퓨터를 하니 자연히 등이 굽고 어깨가 쳐지는데 활시위를 당기면서 허리도 펴고 어깨도 활짝 열어 자세가 바르게 된 것을 아내가 무척 좋아합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의 질환도 없고 앉아서 독서하는데 허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활쏘기를 육예 중의 하나로서 심신을 수련하는 방법으로 늘 연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골프도 유행하지만 정확을 가려 해야 할 지탄받을 수 있는 골프임을 감안하면, 활쏘기는 개인기와 집단성의 활력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권장할만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프와 활쏘기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골프는 홀컵이 있고 활쏘



기는 흥점이 있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몰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형도 살피고 바람도 고려하지만 그래도 맞지 않으면 오직 자기 탓으로 여기는 마음가짐을 귀하게 여기는 자승자강(自勝自強)의 운동입니다. 둘러대고 남의 탓하는 소리는 이제 정말로 귀에 거슬립니다.

활쏘기의 호연지기는 과녁의 정곡을 맞히려면 반드시 궁술의 정사법으로 활을 쏘아야 한다는 수도이보법(修道而保法)의 이치입니다. 수도이보법은 배우고 익혀 몸과 마음을 하늘에 바친다는 공사교훈의 참뜻으로서 배운대로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사관생도시절에 외운 호연지기는(국제신사라고 선배님들이 강조한) 사관생도의 품위를 지키고 밖에 나가서 제 규정을 잘 지키라는 뜻으로 이해하였는데 심오한 풀이는 아니지만 이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귀거래의 호연지기의 꿈은 이 고향에 돌아가서 저 고향의 삶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호연지기(浩然之氣)의 삶

세상이 어지러울 때마다 역사가들은 정도전의 행적을 떠올리면서 난세를 해결할 모티브를 찾습니다. 도학정치의 거목인 정도전은 호연지기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말을 알면 도의에 밝아 천하지사에 의심스러운 바가 없고, 기를 기르면 도의에 배합되어 천하지사에 두려운 바가 없으니, 장차 큰 책임을 맡아도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에 이를 수 있다. 부동산이란 어느 것에도 휩쓸리지 않고 성성하게 깨어 있기 위하여 먼저 마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부동산이 된다.

곧 인의를 마음에 뿌리를 박은 후에야 인의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고 인의를 정치와 행동으로 펼칠 수 있다. 호연지기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선진들은 예악의 도의를 인(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義)라고 하기도 하고 경(敬)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걸어가야 할 한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달리하여도 다 함께 성(誠)과 직(直)의 실천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호연지기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였습니다.

군문을 떠나 이제 고향에서 준비하는 호연지기의 삶은 기본군사 훈련을 필두로 군문에서

배우고 익혔던 호연지기가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심신의 연마입니다. 그동안 저는 조직과 다른 사람을 위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한 공부를 할 작정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위인지학(爲人之學)은 봉급을 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안빈낙도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을 닦는데 유용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사법으로만 활을 쏘아 과녁에 화살을 맞힐 수 있도록 호연지기의 삶을 살려는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맺음말

2005년 연말 동기생들과 함께 계룡대에서 전역식을 할 때, 저는 아내와 자녀들을 전역식에 참석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국방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연구교수로 일하게 되었으니 퇴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정말로 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남화경은 자신이 한 마리 나비가 되어 이꽃저꽃으로 날아다니면서 노니는데, 꿈속의 나비가 정말로 나이고 이생의 나는 나비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글입니다. 다음의 흥타령 가사는 이것을 구성지게 노래로 부른 것입니다.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다 꿈이로다
너도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 꿈이로다
꿈깨이면 또꿈이요 깨인꿈도 꿈이로다
꿈에나서 꿈에살고 꿈에죽어 가는인생
부질없다 깨려는꿈 꿈을깨어 무엇을헐 (거나 헤)

이 노래를 읽고 허무 퇴폐하다고 리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노래방을 가든지 악기를 연주하든지 우리가 즐기는 풍류는 우리의 나쁜 습관을 정화시키는 수련의 길입니다. 사사로움을 없이하려고 하니 누구와 싸워 이길 것도 없고, 누구와 다투어 얻을 것도 없으니 원망도 없습니다. 귀는 작게 들리고 눈은 아직 보이니 자연이 선생이라 여기면 선악간에 가르침의 덕행을 베풀어주는 천지만물이 고마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빚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말하면 말이 앞서기 때문에, 꿈을 깨고 싶지 않은 귀거래의 호연지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선도 수련기

(國仙道 修鍊記)



23기 사관 장창연

2007년 7월, 나는 36년여의 군 생활을 마지막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제 2의 인생 길을 시작해야 했다. 군 생활 마지막 단계에서 새 보금자리를 서울의 한 동네에 마련한 나는 우선 주변이 매우 낯설기만 하였다. 누구와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나? 하는 스스로의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국선도라는 운동을 해보라고 권한다. 아내는 그 당시 이미 국선도를 시작한지 6개월 정도 된 상태였는데 매우 좋은 운동이라며 적극 권유하였다. 사실 나는 현역시절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교육을 받던 중 국선도운동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수료 후 잦은 보직이동 등 생활 여건상 국선도운동을 계속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첫날 새벽에 아내와 함께 동사무소 내에 있는 국선도장에 갔더니 사범과 회장을 포함한 회원들 모두 반갑게 맞아주어 서머해 하는 내 마음을 한결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국선도, 7년여 기간 동안 참으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집을 떠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5일씩 꼬박 국선도운동에 참여했으며 휴일에는 집에서 아내와 함께 CD를 틀어놓고 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나는 동적인 운동(테니스, 등산, 골프 등)위주의 운동을 해왔으나 국선도는 단전호흡에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가미된 비교적 정적인 운동으로서 나이 들어가면서 하기 쉬운 매력이 있어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국선도운동은 나에게 건강을 주었고 제 2의 인생을 활기 있게 보내도록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나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나의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나는 현역시절 고질적인 허리통증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전역할 즈음에는 허리통증으로 생활이 불편하여 치료하기 위해 통증클리닉, 한방병원 등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별 효과를 얻지 못했다. 좌측 허리부분이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 몸이 아닌 다른 이물질이 항상 허리부분에 붙어있는 듯한 느낌으로 생활하였는데 국선도운동을 시작한지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나도 모르게 이러한 불편한 증상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치료해 보려고 노력해도 증세가 호전이 안 되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증세가 좋아지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둘째, 하루를 산뜻하고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전 6시부터 하는 국선도운동 때문에 나는 매일 새벽 5시20분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아침잠이 많았던 나로서는 처음엔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7년이 지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런 하루의 일과시작이 되었다. 만약 새벽에 국선도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출근할 일이 없는 나로서는 마냥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앓고 아내와 아침마다 실랑이를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동네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즐겁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군 생활에서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긴 했지만 가는 곳 마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별로 외롭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전역 후 연고지와 전혀 관계없는 동네에서의 생활은 참으로 막막하기만 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국선도운동을 시작했던 나는 이 운동을 통해 사귀 친구들과 함께 각종 유익하고 활력 있는 여가활동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곳 국선도회원들은 유독 끈끈한 유대감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어 이제 나는 과거 30년 이상을 함께 지냈던 전우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국선도회원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봄철과 가을철 정기적인 야외수련회와 수시로 실시하는 등산, 골프 등을 통해 얻는 즐거움, 회원들의 애경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끈끈한 동지애, 그리고 회원 중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경우 자발적으로 한 톱을 내는 분위기 등 마치 옛날 시골 집성촌에서 친척들끼리 생활하는 모습을 이곳 국선도회원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중심에는 국선도라는 운동이 있으며 이 국선도를 통해서 나는 제 2

의 인생을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즘은 나이 들어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각자 자기 적성이나 몸에 맞는 운동들을 하는데 나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등산, 골프, 테니스 등 동적인 운동과 함께 국선도운동을 계속 하리라 생각하고 있다. 이 글을 읽는 선 후배님들께서도 각자 취향에 맞는 운동을 찾아 건강한 삶, 그리고 즐겁고 활력 있는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꿈을 가꾸는 농부의 길



23기 사관 서성도

귀농할 즈음 - 뭘지 모를 절박감이 있었다

2008년 12월말을 기점으로, 3년간의 공군대학 교수생활을 접고부터는 딱히 할 일 없이 무료하게 지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주로 서울근교 산에 등산을 하거나, 법원이 있는 서초동의 기원에서 고교 동기생들과 바둑을 두고, 사관 학교 동문들과는 비행장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이었다.

그 한가로움 속에서 '회오리바람이 불었다' 고나 할까? 아내는 2011년 2월 남미 페루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 단원으로 2년간 봉사활동을 떠나고, 큰 딸아이는 진작 (3년 전)부터 싱가포르의 SC은행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작은 딸아이는 2011년 4월부터 4개월간 일정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모든 가족을 떠나보내고 혼자 산다는 것 -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팔자 좋은 사나이', '능력 있는 부인을 두었다', '봉사는 무슨 봉사, 남편에게 봉사해야지...', '페루에 가서 여행이나 하며 지내라' 등등, 사람들의 시각이 각양각색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의 애로사항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주로 마루에서 TV와 함께 밤을 지내는 것이 다반사였다.

농지를 얻다 - 멋진 경관에 반하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은 경북 칠곡면의 '이매' 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지금은 대구 시에 편입되어 호화로운 도심지가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인 1950-60년대는 호

뿔을 밝히던 전형적인 시골이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농촌생활에 대한 애뜻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도 농지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젊은 시절부터 내내 품고 있었다.

그런데 나이 60이 지나고서야 기회가 왔다. 마침 친하게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우연히 농지를 소개 받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동산 경기는 내리막길을 가는 경향이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 ‘밭은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의 가막산 정상이 보이는 곳’, ‘논은 민통선이 멀지 않은 임진강변의 논’ 이었고, 서로 지적 간에 있어서 좋았다. 또한 경관이 멋진 곳이었다. 농지가격, 접근성, 발전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 밀지지는 않는 거래인 것 같아 구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워낙이 큰 면적이며, 농기구 하나 없고, 농촌에 거주한 경험은 있으나 씨앗 한번 뿌려본 적이 없으며, 농사일에는 문외한인 내가 직접 경영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지역 농민에게 소작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일이란,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될 틈이 있는가! 희비극이 교차하거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하지 않는가! TV 드라마나 영화처럼 말이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반전이 일어난 것이다. 아내가 지구 반대편인 남미의 페루로 떠나고, 딸아이 둘이 해외에 있으니, “에라! 이참에 농사나 짓자”는 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 넓은 밭을! 내가 욕심이 과했나!

DMZ 친환경사과재배 사업자로 등록하다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2월말 입학, 8개월간 운영하는 녹색농업인대학이 있다. 파주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농업경영CEO과정에 입학시킨다. 2012년 2월, 나는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었으나, 농사짓는다는 명분으로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 수강하는 사람들은 30여명이며, 대부분 파주시 농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나름대로 파주시역의 농사전문가들이 와서 수강하는 과정이었다.

내가 이 과정을 선택한 것은 큰 행운이라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파주의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들로부터 많은 농사 정보를 얻게 되는 기회가 된 것이었다. 당시 파주시에서는 'DMZ 친환경사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정보를 이곳 CEO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다. 사과재배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파주시에 거주하며, 1,000평 이상의 과수원 부지가 있어야만 되었다.

2012년 여름(8월), 나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재배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파주시 전체 사과재배 회원은 50여명이며, 대부분 년 초부터 사과사업 준비를 하였으나, 농사 초보인 나만이 뒤늦게 여름부터 뛰어 들었다. 이름 하여 "DMZ 친환경사과 재배", 잘 해낼 수 있을까? 내 스스로도 의문을 가지며, 아무 준비 없이 뛰어 들었다.

늦게 입문하여 사과밭 견학부터 시작함.

예전에는 대구사과가 유명했으나 지금은 사라진지 오래이고, 요즈음은 경북 산간지방(영주, 문경, 청송, 예천 등)이 주산지이다. 그뿐 아니라 사과단지는 충주, 단양을 지나, 강원도(양구, 영월 등)까지 북상하여 파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파주, 연천, 포천 3개 DMZ 접경지역에서의 사과사업 육성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타 지역에 비하여 사과사업자가 적으며, 사과 재배 이력도 길지 않아 재배기술력 축적도 되어있지 않은 낙후된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재배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집중교육도 시키고 있었고, 각계의 유명강사도 초청하였으며, 현장 견학교육도 하고 있었다. 뒤늦게 나도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내가 처음 찾은 곳은 2012년 9월, 포천지역의 과수원이었고, 연이어 파주 민통선 내에 있는 과수원, 그리고 멀리 경북지역의 과수원을 견학할 수 있었다.

2013년 3월에는 1박2일 일정으로 예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재배교육을 받았다. 예천군 공무원은 소개말에서 '예천은 산악지역이라 농경지도 척박하고 협소하며, 인구도 5만

명 정도'라 하였다. 그러나 이곳의 장점은 '우수한 농업분야 공무원이 많으며, 한국양공의 선구자 김진호 선수를 배출하였다'고 자랑한다.

30년간 사과 한 분야에 종사했으며, 사과장인의 반열에 오른 최효열(공무원)씨에게 2일간 사과교육을



플래카드로 회원들을 반기다.

받았다. 파주시 33명의 사과재배자들이 주말(금-토)임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

사과과수원 나들이

2013년 4월 5일 식목일에 맞추어 사과묘목 600주를 심었다.

1개월이 지난 시점, 오랜만에 서울에서 전 가족이 모였다. 아내는 두 달 전 2월, 남미 페루에서 2년간의 봉사활동을 끝내고 귀국하였고, 싱가포르에서 큰 아이가 휴가를 얻어 5월 4일 한국에 도착하였다.

5월5일은 어린이날이며 일요일을 맞아, '전 가족이 과수원에 가자'고 내가 제안하였다. 사과나무 심은 것을 사진으로만 보았지, 현장에는 간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하는 일들이 바쁘기도 하고, 특별히 농사일을 거들일도 없었기에 가족과는 함께 간일이 없었다.

과수원에 꿈을 심고

2012년 8월, 파주 농업기술센터에 사과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지난 2013년 6월 말, 담당공무원이 내가 조성한 사과밭 현장을 답사하여, 사업집행결과를 실사하고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속히 과수원을 완성하였다.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으나, 어쨌든 '다른 과수원에 비해 나무가 잘 크고 있다'며 놀라워하였다. (농사 왕초보에 대한 칭찬인가?)

사실 나의 과수원은 잡초가 꽤나 많은 편이다. 나도 제초제에 대한 유혹을 받았으나, '내가 뭐, 사과 팔 것도 아니고, 나무나 잘 키워보자'는 심산으로 풀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인지 밭에는 온갖 곤충과 거미류, 풀벌레들이 득실하고, 각종 새들과 놀이터가 되었다. 이 놀이터에 편의성을 좀 더 주기 위하여 또 하나의 집(비닐하우스)을 짓기로 하였다.

끝맺는 말

2013년 작년 한해 농사를 되돌아본다. 작년 2월 중순부터 시작된 녹색농업인대학(DMZ 친환경사과재배반) 입학으로 한해 농사일을 시작하였다.

4월에는 사과나무 600주를 심었으며, 이어 5, 6월에는 고추와 파주 장단콩을 심었다. 8월에는 무와 배추를 심었고, 10월 이후에는 추수하느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빴었다. 이곳 파주는 11월말이 되면 겨울이 된다. 몹시 추우며, 겨울에는 딱히 할 일도 없다. 내가 농사지은 무, 배추로 김장을 하면서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하였다.

내년(2014년) 2월 겨울전정(사과나무 가지치기)을 기약하며, 느긋해 하고 있고, 게으름도 피워볼 생각이다. 겨울골프, 겨울여행, 단식수행을 하며 농한기를 보낼까? 우선 푹 쉬고 나중에 생각하자.



감악산 정상이 보이는 과수원

나도 홀로 여행 할 수 있다!



24기 사관 **유원봉**
(여행 사진가)

여행은 왜(WHY HOPE TO TRAVEL) 떠나는가?



「샤를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는 여행을 고귀한 영혼, 탐구하는 영혼의 표시라 여겼고, 고향의 지평 안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항구, 부두, 역, 기차, 배, 호텔 등에 강하게 끌

려 자신의 집보다는 여행을 하다 잠시 머무는 곳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나름의 여행에 대한 백일몽이 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수잔 손택」(Susan Sontag)은 여행이 무엇인가를 사진에 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월 예술의 전당에 「애니 레보비츠」(Annie Leibovitz) 사진전'에 갔었다. 이름만 들으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아~~! 감탄사가 나온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은 바로 「존 레넌」(John Lennon)이 옷을 벗고 누워 있는 「오노 요코」(Ono Yoko)에게 키스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래전 그 당시에는

사진이 정말 쇼킹했었다. 그 사진을 찍은 사진가가「애니 레보비츠」로 「수잔 손택」과는 연인관계라는 것을 알고 사진과 여행에 대해 언급한 것이 이해가 갔다.

나도 여행을 다니다 보니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진이 좋아서 여행을 하고 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사진을 정리하여 「블로그」(blog)에 올리고, 전시회에 걸고, 사진을 보면서 추억을 더듬고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여행을 한다고 바로 무언가가 남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행하던 날들을 되돌아보면, 낯선 거리를 헤매고 다니던 시간은 평생 웃음 지을 수 있는 기억이 된다. 떠나는 건 일상을 버리는 게 아니다. 일상 속으로 돌아와 더 풍요롭고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닐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절감할 때가 종종 있다.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우주 만물이 변하는 것은 사물뿐 만이 아니지 않는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동력이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싶다. 여성들은 입술도 칠하고 귀걸이 목걸이도 걸어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그것이 사치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사치가 여행인 지도 모른다. 그런 면이 여행과 통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래서 매년 배낭 짊어지고 돌아다니는 축적된 「노하우」(know-how)로 TOUR PLANNER, 여행 작가, 여행 사진가로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와는 별개의 분야에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많은 여행자가 버림과 채움으로 여행을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오는가? 길 위에 선 여행자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진 욕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채워서 돌아

오기를 희망한다. 홀로 떠나는 배낭 여행자의 대부분이 그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소득으로 삶의 행복을 꼽는다. 전 세계를 돌며 여행을 하는 동안 당신의 하루는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 맛을 음미하듯, 또 하루는 도전과 모험으로 가득 찬 흥미로운 「블록버스터」 (blockbuster)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 방콕 야경

떠나자!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더 많아지기 전에...
그래서 또 여행을 떠난다!

여행 계획은 어떻게(HOW TO PLAN)?

무조건 떠나는 여행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그런 여행도 나름 멋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시간과 돈이 받쳐주면 그렇게도 해보고 싶다. 그러나 나는 주어진 시간에 효과적 경제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많은 질문을 받은 것을 참고로, 그

동안 50여 개국을 배낭 메고 다녔던 노하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여행 계획과 여행 노하우를 지난겨울 35일간 동남아 여행을 참고로 수립 과정과 경험을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여행 계획을 할 때는 여행국 「가이드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토대로 어디로 여행을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여행 책자는 큰 서점에 가서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지가 확실히 결정이 된 후에 책을 구입해야 한다. 「가이드북」은 lonely planet을 추천한다. 교통편 등의 설명이 잘 되어있고 필요한 최신정보를 「홈페이지(www.lonelyplanet.com)에서 확인가능하다. 나는 동남아로 잡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 사진 출사 지를 여행지로 선정했다. 그래서 선정된 국가가 「미얀마」, 「라오스」,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었다. 물론 이들 국가 들은 두세 번째 가는 국가도 있고, 장소도 있지만 본격적인 사진을 하면서 다시 찾은 곳이다. 그래서 짜인 여행 일정과 「루트」가 지도에 표시된 것이다.



' 14 동남아여행 루트



미얀마 승려

가고 싶은 장소가 정해지면 그다음은 항공노선이었다. 어디로(국가) 들어가서 어디(국가)에서 나올 것 인가!를 정하고 세부 구체적인 항공권 예매로 들어간다.

이것은 항공 노선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주어진 여행기간에 피로 도를 최소화하고 많은 곳을 보기 위해서는 항공 노선을 이용하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료를 줄이기 위해서 저가항공을 이용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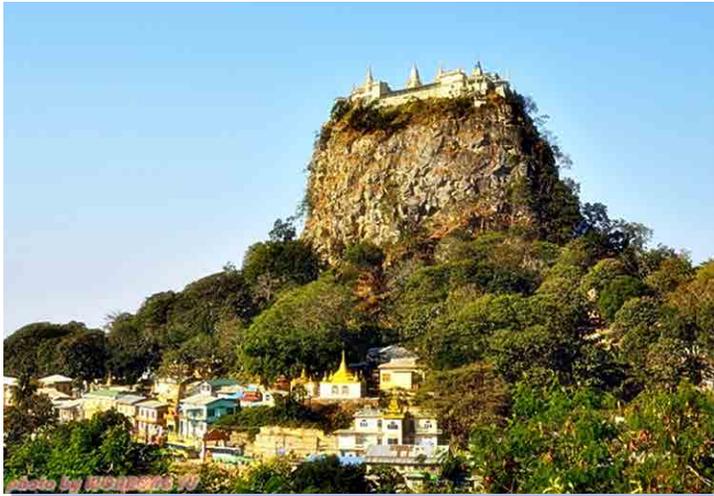
그래서 「이스타」 항공 1회, 「미얀마」 항공 3회, 「라오」 항공 1회, 11회의 「에어 아시아」 이용으로 총 16회를 탑승하게 되었다. 동남아는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우리의 한두 시간 거리가 7~8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번 여행에서 「라오스」에서 만난 한국인 교사 가족은 대학생 아들 2명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왔는

데, 밤새워 오는 도중 몸살이 나서 2일간 여행도 못하고 호텔에서 지냈다고 했다. 시간이 많아서 쉬엄쉬엄 여행을 하면 되겠지만 무리한 여행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근래에 한국에도 저가항공이 많이 설립되었지만, 동남아 국가에는 오래전부터 지역 특성상 저가항공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에어 아시아」는 국제선 운행노선이 많기 때문에 편리하다. 35일간 총 16회의 비행으로 항공료는 1인당 175만 원으로 가능했다.

비행 티켓은 지난해 4월 「에어 아시아」의 「프로모션」 기간에 예약을 했다. 그러나 방학 성수기가 아니라면 좀 더 싼 경비로 갈 수도 있었다. 방학 시기가 아닌 비수기에는 서울에서 호주 「멜버른」까지도 편도 20만 원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언제나 떠날 수 있는 분이 라면 여행하기 좋은 시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다. 「에어 아시아」(AIR ASIA)는 「말레이시아」 국적이라서 운항 「루트」와 「프로모션」이 가능한 날짜를 고려해서 계획하다 보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3번이나 「스톱오버」(STOP OVER)를 하게 되었고, 각 국가에서의 일정도 좀 더 여행 기간을 늘이고 싶었지만 경비를 아끼기 위해 무리한 일정이 될

수는 있었다. 날짜에 따라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날짜를 하루나 이틀 앞뒤로 옮겨서 스케줄을 짜야 했기 때문이다.



미얀마 뽀빠산

어느 항공사를 선택하고 티켓을 예약할 것인가? 는 항공료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여러 옵션을 고려 구간별 최저가 항공사를 선택한다. 한국 출발 항공기의 가격비교 검색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 외국에서 출발하는 것은 「구글」(Google) 검색사이트에서 찾으면 된다. 예약은 항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데, 「에어 아시아」(www.airasia.com)는 프로모션 날짜를 고려해서 「부킹」을 했다.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는 것이 직접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보다 수수료 문제로 더 비쌀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에어 아시아」는 한국어 「홈페이지」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분들도 회원가입하고 단계별로 수행하면 어렵지 않게 실시간 부킹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바로 「이 메일」(E mail)로 받을 수 있다. 「에어 아시아」는 저가 항공이기 때문에 기내에서 음료수도 구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는 구간 당 1 ~ 2시간 정도의 비행이고, 가장 길었던 비행시간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 「쿤밍」까지 3시간 정도로 별문제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행할 경우, 기내식은 탑승 전에 먹거리를 구입하던지 아니면, 홈 페이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미얀마」 국내선 3회는 「에어 미얀마」(www.airmyanmar.com) 사이트에서 AIR KBZ로, 「라오스」 국내선은 「라오」 항공(www.laoairlines.com)을 이용하였다. 여기에서도 방법은 동일하다.

호텔 예약을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공항, 여행목적지 등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인원에 따라 다르지만 2인 이상 가족일 경우는 호텔, 혼자 갈 경우는

「게스트하우스」가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여러 명이 같이 투숙하므로 여러 나라 여행객과 교류 및 정보교환이 가능하고 친교도 나눌 수가 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라면 조식의 포함 여부도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예약은 ‘호텔 가격 비교「사이트」’인「호텔 콤바인」(www.hotelscombined.com)에서 검색하면 동일한 호텔이라도 가격별로 ‘호텔 예약 「사이트」’가 뜨는데 그중에서 가격이 가장 싼 「사이트」에서 시설, 서비스내용을 파악해서 예약하고 결제한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면 그동안 많이 이용해서 누적된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고다」(www.agoda.com)를 많이 이용했다.

예약은 국내에서 꼭 할 필요는 없다. 비행 탑승 등 일정이 고정된 날짜에서는 미리 예약이



쿠알라룸푸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필요하지만, 처음 가는 곳이라서 소요 일정이 불확실하므로, 현지 도착해서 호텔을 잡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역시 항공권 예약과 마찬가지로 「이메일」로 받은 「바우처」(voucher)를 프린트해서 호텔 CHECK IN 시 보여주면 된다.

이번 여행에서 34박에 숙박비 13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서 총 여행 경비는 결산해보니 2인 기준 650 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다.

이렇게 여행 「루트」(Route)와 일정이 정해져서 항공 티켓, 호텔 예약이 끝나면 동남아 국가의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무「비자」(VISA)나 제한적으로 협정이 맺어져 있으므로 여행국에서의 체류 일정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국가가 있다면 「비자」 유효기간을 고려해서 발급받아야 되는데, ‘외교부 안전 여

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비자 관련 국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비자」는 직접 여행국 대사관을 가서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해당국 대사관 「인터넷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국가도 있고 대행 여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비자」까지 발급받았다면 이제 환전만 하면 준비는 거의 마무리되는데 6개국을 여행하기 때문에 미국 달러 \$1000, 여행국의 환전은 「미얀마」와 「라오스」는 할 수가 없어서 제외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화폐는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씩만 환전을 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 시는 미국 달러는 \$100 고액권으로 환전하는 것이 환율이 좋으니까 염두에 둔다. 여행 중 부족한 돈은 미국 달러를 현지 화폐로 환전해서 사용한다. 여행국에 도착하면 일단 공항에서 호텔로 가려면 교통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 화폐가 필요하다. 「라오스」, 「미얀마」는 국내에서 환전을 못했기 때문에 ‘공항 환전소’ (money exchange)에서 체류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100 정도만 하고 필요할 때 추가 환전을 한다. 여러 나라를 여행할 때는 돈이 남으면 안 되니까, 남는 돈이 생기면 기념품, 먹거리 등을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여행 중 환전한 돈이 부족하면 거의 대부분 국가들이 ATM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 인출이 가능한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현금을 사용하고, 환전해간 돈을 고려해서 고가품을 살 때는 카드를 사용한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국내에서와 달리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용카드사 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중에서 수수료가 적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신한카드가 타 은행보다는 저렴하다.

여행 준비의 마지막으로 짐 꾸리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단기간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한 달 이상 장기간 계획했다면 가방은 ‘트렁크’ 보다는 ‘배낭’ 이 좋다. 45리터 정도면 채울시 대략 20Kg 정도 되는데, 추가로 여행지에서 간편하게 메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배낭 정도는 가져가는 것이 좋다. 항공사 마다 다르지만 배낭의 무게 (15~20Kg)에 따라 기준 초과 시 추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가능하다면 기내 「핸드 캐



베트남 닌빈 땀쪽

리」로 나누어서 짐 꾸리기를 고려한다.(「에어아시아」는 기내 7Kg 이내로 제한되고 가방 규격도 한정됨)

옷 종류는 여행지의 기후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기능성으로 건조가 쉽고, 가벼우면서 방수, 방풍이 되는 것이 편리하다. 속내의도 기능성으로 각 2벌 정도로 가능한 배낭을 가볍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서 여권 외에 여행 「가이드북」, 다용도 칼(기내 반입금지), 우산, 「썸 크림」, 구급약, 빨래줄, 알람시계, 세면도구, 「스마트폰」도 거의 필수 수준이고, 「파우치」(pouch)도 여러 개 가져가서 배낭 꾸릴 때 옷 종류도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 외 필요한 것은 현지에서 조달해서 쓴다.

여행은 어떻게(HOW TO TRAVEL) 할 것인가?

주위 분들로부터 듣는 가장 많은 첫 번째 질문은 언어이다. 말은 어떻게 통하느냐? 영어가 통하느냐? 여행 중에 영어를 못하시는데 별 문제 없이 여행하시는 한국인 두 분 만난 적이 있다. 그중 인상에 남는 한 분은 인도 「뭄바이」에서 「아잔타」로 가기 위해 막 열차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타고 있는 객실로 숨 가쁘게 들어오는 20대 여교사였다.



중국 쿤밍 주상

인도 영화 ‘세 얼간이(3 Idiots)’를 보고 인도가 좋아서 무작정 왔단다. 그래서 나는 귀국해서 그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본 적이 있다. 어떤 영화인데 그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하고 말이다. 영화를 보고 난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영화에서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런가 보다 막연히 생각 했는데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다!

어떻게 기차를 탔느냐고 물었더니 시간이 임박하여 급하게 열차표를 흔들었더니 막 떠나려는 차를 태워줘서 타게 됐단다.

이번 여행에서도 겪은 일은 「베트남 닌빈」(Ninh binh, Vietnam)에서 여행을 마치고 「하노이」까지 버스로 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 중국 「쿤밍」으로 가기 위해 예약한 「하노이」공항 근처의 'AIRPORT HOTEL'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그런데 기사가 두 단어가 통하지 않아서 공항 지명과 「보디랭귀지」로 비행기 뜨는 시늉을 하니 공항인지 알고 공항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중에 호텔을 가리키며 확인시켜주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놓은 호텔 위치 지도를 보고 공항 근처 가는 길에서 황당하게 찾아 간 적이 있다. 여행하다 보면 의외로 「보디랭귀지」(body language)가 잘 통한다. 전 세계인 누구나 알 듯한 HOTEL이란 말을 몰라서 황당했던 경험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더욱 여행의 맛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지도 않은 경험을 맛보고 느끼는 것 말이다. 일반적으로 호텔, 공항, 기차역, 버스역등에서는 영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 그동안 많은 여행중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이번 중국 「쿤밍」 여행에서 언어 문제로 답답했던 경우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큰 호텔조차도 영어가 통하지 않아 별도로 사람을 불러서 해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동남아 타 국가와는 비교가 됐다. 그래서 여행할 때는 현지어가 쓰여 있는 지도가 편리하다. 이런 지도는 'TRAVEL INFORMATION CENTER'나 호텔 등에서 구할 수가 있다.

‘여행 안내책자’ (guide book)에도 현지어가 병기되거나 현지어를 우리말로라도 표현된 것이 편리하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현지어로 말하면 잘 통한다. 그리고 여행국의 인사말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접근하기 쉽고 친밀감을 줄 수가 있어 언어는 잘 통하지 않는 분들과도 소통이 가능하다. 인사말과 간단한 필수 언어는 익혀가자! 길을 물어볼 때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영어가 통하므로 용이하다. 특히 중국에서는 택시 탈 때도 현지어로 써서 보여주면 어렵지 않으므로 호텔이나 영어가 가능한 분들에 부탁해서 택시 기사한테 주면 어렵지 않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



미얀마 인레 호수의 어부들

에서 ‘여행 통역사’ 등과 같은 번역 및 통역 「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주 오래전에 이탈리아 「나폴리」 가는 열차에서 신혼부부와 동석하게 되었는데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번역기만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경험을 미뤄볼 때, 지금의 통역기는 아직 사용 경험은 없지만 성능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듯하다.



TUK TUK

여행 중 이동시 택시나 「투투」(TUK TUK;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어느 국가든 바가지요금은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호텔 위치를 프린트해서 가져가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래서 「호텔 바우처」 외에 ‘예

약 사이트’에서 호텔 위치 도를 프린트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여행지 공항이나 버스정류장에 처음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여행안내소’(Travel information center)에 호텔 주소가 적힌 「바우처」를 보여 주면 방법을 가르쳐준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일반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곳이 많다. 공항 내에 「택시 스탠드」(TAXI STAND, TAXI SERVICE)가 있어서 호텔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져 크게 바가지요금은 물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택시 요금을 흥정해서 타야 바가지요금을 물지 않는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국제공항에서는 밖으로 조금만 걸어나와서 택시 타고 거의 반값에 흥정해서 호텔로 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미얀마」는 어느 곳이나 담합으로 가격이 같으므로 흥정할 필요도 없었고, 크게 바가지 쓸 일도 없었다. 가능한 일단 사람이 물리는 공항, 정류장의 호객꾼들을 벗어나서 찾아보고 흥정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공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의 접근성 때문에 호텔의 위치가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 저렴하다고 해도 접근성이 좋지 못하면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호텔에 도착하면 「바우처」와 여권을 보여주고 CHECK IN 절차를 밟는데, 호텔에 따라서 「디포짓」(deposit money)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보증금으로 CHECK OUT 시에 환불받을 수가 있다. CHECK IN 후에는 현지 지도, 호텔 명함과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한다. 그리고 현지 투어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현지 투어를 할 것인가? 걸어서 다닐 것인가? 택시를 「렌트」 할 것인가?를 지역 특성과 여행 기간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 현지 투어에 합류할 경우는 여러 여행사에서 반드시 시장 조사 후에 옵션, PICK UP 지점 등을 확인하고 예약을 한다.



양곤 쉐다공 파고다

여행지가 멀리 흩어져 있어 도보와 대중교통의 접근이 어렵다면 「투투」(Tuk tuk)이 같은 저렴한 교통수단도 있고, 장거리 같으면 택시기사 포함 1일 \$30~40 정도면 충분히 「렌트」 할 수가 있으니까!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 교통수단을 타는 것도 여행의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다.

나는 여행 중에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다. 재래시장(Local market)과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골마을과 골목길 등을 찾는다.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땀 내음과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인간적인 사람들의 만남이 좋아서이다. 그런 만남은 인연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3년 전 인도 여행 시 「스리랑카」 여행가족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가족을 「스리랑카」 여행 시 다시 만나서 집에까지 초청받아서 환대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여행에서는 「베트남 님빈」 호텔 택시기사가 수원 「화성정밀」에서 근무했다는 인연으로 그분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분은 한국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무척이나 기분 좋은 기억이다. 한국에는 많은 동남아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같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마스크에서 가끔 접하게



스리랑카 여행 시 집 초청환대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의 여행객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성이 아닌가 생각한다. 돌아다닐 때는 큰 가방을 호텔에 맡기고 귀중품과 여권 등은 작은 배낭에 넣고 가볍게 다니는 것이 좋다. 시간상 호텔 CHECK OUT 후에도 배낭은 맡기면 된다. 여권은 생명과 같이 보관하며

「스마트폰」에도 저장하고,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을 가방마다 별도로 보관한다.

그리고 여행 중 연락(HOW TO CALL & KEEP IN TOUCH)은 어떻게?

동남아 대부분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Guesthouse)에는 무료로 WI-FI를 사용할 수 있어서, 「스마트폰」의 「카카오 톡」 「밴드」(BAND)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고, 통화를 원할 때는 「바이버」(VIBER)등의 무료 통화 「앱」도 있지만, 「스카이프」(SKYPE) 「앱」을 활용해 저렴하게 품질 좋은 통화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출국 전에 단문 메시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차단하지 말고, 「스마트폰」에서 환경설정으로 차단할 수 있으나 잘 모르면 통신사에 연락해서 반드시 차단시키면 된다. 3년 전에 잘 몰라서 통신요금 150여만 원을 물은 적이 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비일 비재해서 1일 10만여 원으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단기간 여행은 부담이 덜하겠지만 장기간 갈 적에는 큰 부담도 되지만 여행 다니다 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여행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연락을 하더라도 WI-FI가 되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짬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스마트폰」은 항공권 예약, 항공 탑승 CHECK IN, 「이메일」 확인(항공 스케줄 변동사항 확인 등), 호텔 예약/변경, 여권사진 저장, 「호텔 바우처」, 호텔 위치도 등을 「N드라이브」, 「다음 클라우드」 등의 「앱」에 저장해

서 필요시 활용할 수도 있고, 메모 등의 기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기록할 사항이나 돌아다니다가 호텔 찾아올 때 등 길을 찾을 LANDMARK 등을 촬영해서 활용하면 편리하다. 현대는 IT 산업, 수송 수단의 발달로 실시간(Real time) 항공권 및 호텔예약, 신속한 통신, 정보검색, 위치파악 등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행하기가 편리해졌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여행 계획의 수립, 준비, 그리고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인 노하우를 지난겨울 여행 수립 과정을 통해 설명을 했다. 이런 과정과 방법으로 계획한다면 어디라도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지면 제한 상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wbyou2000@hanmail.net, 블로그 wbyou2000.blog.me)

단계적으로 실천(TAKE ACTION STEP BY STEP)해 보자!

무 산소 단독 「에베레스트」 등정에 도전한 일본 등산가 「구리키 노부카즈」는 저서「한걸음 내딛는 용기」에서 “느닷없이 「에베레스트」를 무 산소 단독으로 오를 수는 없다. 그 전에 8,000미터 봉우리를 오르면서 내 몸이 고소에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고산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큰 산에 오르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용기나 결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준비 없는 용기는 만용이 되고,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도 좋지만 그것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처음부터 장기간 오지여행을 떠나는 것보다 일주일 정도의 일본여행부터 시작해보자!

“내가 「로마」 땅을 밟은 그날이야말로 나의 제2의 탄생일이자 내 삶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독일의 문호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가 한 이 말 이상으로 여행의 위대함을 웅변해 주는 증언이 또 있을까 싶다!

끝으로, 인도 영화 ‘세 열간이’의 주인공「란초」(Rancho)의 외침 “Aal izz well!(All is well)”을 상기 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한 나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밤하늘의 보석



24기 사관 하원훈

문득 바라본 밤하늘에는

기억을 더듬어 밤하늘을 쳐다본 기억은 1962년 국민학교 시절 미국의 유인우주비행선 프랜드쉽7호에 글렌중령이 타고 지구궤도를 비행한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광해와 가로등도 없던 시골집 앞에서 맨눈으로 보이는 인공위성의 궤적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전역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눈에 띄는 망원경을 구입하게 되었고,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어 출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촬영한 대상이 메시에 M51로 북두칠성 국자 손잡이 부분에 있는 소용돌이 은하인데 두 은하가 연결되어 부자은하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밤하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맨눈으로는 거의 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개의 아주 밝은 성운과 은하가 맑은 날이면 맨눈으로도 보이기는 하지만 거의 별로 인식됩니다.

또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만 보게 되어 있어 적외선 영역의 붉은 빛은 인지하지 못하며 또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CCD는 적외선을 제거하는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 이것을 제거하고 대략 1분 이상의 장노출을 주면 그야말로 지금껏 보이지 않던 새로운 성운, 성단, 은하 등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성(fixed star, 恒星)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고온의 천체를 말하며, 대부분의 항성은 태양과 같이 열핵융합 반응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여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맑은 밤하늘에서는 약 6,000여 개의 별들을 볼 수 있는데, 마치 천구(天球) 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 항성이라고 합니다. 별들도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데 온도가 높은 별은 푸른색에 가깝게, 상대적으로 낮은 별은 붉은 색으로 보입니다.



M51 부자은하, 13. 4. 13 촬영

행성(planet, 行星)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천체로 항성 주위를 도는 천체를 말하며, 지구를 포함하여 태양계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망원경으로 관찰하면 금성은 달처럼 위상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목성은 줄무늬와 대적반을,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를, 화성은 붉은 표면과 극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M13 구상성단, 13. 5. 5 촬영

은하(galaxy, 銀河)

띠 모양으로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집단으로 통상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수는 우리가 소속된 은하를 속에서 본 것입니다. 은하수가 많은 별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1610년 갈릴레오가 처음 밝혔으며, 자신이 만든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관찰하여 흐릿하게 성운처럼 보이는 은하수가 실제로 개개의 별들로 분해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평균 1,000억개의 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며, 관측이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개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성단(star cluster, 星團)

은하보다 작은 규모로, 수백개에서 수십만 개의 많은 별들이 무리지어 모여 있는 천체를 말하며, 모여 있는 형태에 따라 비교적 젊은 별들이 느슨한 구조로 모여있는 산개성단(散開星團)과 늙은 별들이 공모양으로 뭉쳐 모여 있는 구상성단(球狀星團)으로 구분합니다.



M42 오리온대성운, 12. 1. 23 촬영

성운(nebula, 星雲)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스과 먼지 등의 집합체로, 오리온대성운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성운, 플레이아데스 성운과 같이 주변 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성운, 말머리성운과 같이 밝은 별빛을 앞의 가스와 티끌이 가려서 어둡게 보이는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발광성운은 주로 붉은 빛을 내며, 반사성운은 푸른 빛을 띠고 있어 사진 촬영에서는 가장 화려한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오리온대성운은 겨울철에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자리 내부에 있으며, 가장 많이 촬영되는 대상입니다.

초신성(supernova, 超新星)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별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방출하여 그 밝기가 평소의 수억 배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별로, 새로운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소행성 2012DA14, 13. 2. 16 촬영, 소행성이 레오텐리플 세 은하 부근을 지나는 궤적.

보이기 때문에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 망원경과 CCD 카메라의 발달로 매년 수 백개의 초신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별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소행성(asteroid, 小行星)

태양을 공전궤도로 하여 돌고 있는 천체 중에서 행성(planet)보다 작은 것으로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 둘레에 존재하는 대기인 코마나 꼬리가 보이면 혜성으로 분류합니다. 가장 큰 소행성은 약 500km의 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2000년대 초를 기준으로 약 10만개의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소행성 2012DA14는 지름이 약 45m인 작은 소행성으로 2013년 2월 16일 지구상공을 27,700km로 통과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일부 정지궤도 위성의 고도인 35,800km보다 안쪽으로 지구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국의 천문기관에서는 궤도를 관심있게 추적하였습니다.

혜성은 지구와 가까이 오면 밝아지고 꼬리를 가지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2013년에는 몇 개의 혜성이 지구를 지나쳐 갔지만 예상보다 어두워서 육안 관찰은 어려웠고 사진으로만 그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C2013R1 러브조이 혜성, 13. 11. 7 촬영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

천체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망원경과 카메라, 그리고 적도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렌즈를 이용한 굴절망원경과 반사경을 이용한 반사망원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굴절망원경은 비교적 크기가 작아 다루기 편하지만 대구경으로 가공이 어려워 5인치 이하가 많이 사용되고, 사진촬영에는 대물렌즈에 저분산(ED) 렌즈를 사용하여 색수차를 줄인 아포크로매틱 방식에 f수가 6이하인 굴절망원경이 적합합니다.

반사망원경은 유리재질을 연마하여 오목거울로 만든 망원경이며 비교적 대구경으로 가공

이 용이하여 8~10인치가 많이 사용됩니다. 망원경의 구경이 크면 촬영대상의 디테일이 증가하여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여 다루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밖에 복합광학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목거울을 사용하는 반사망원경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어댑터를 사용하여 망원경과 연결합니다. 일반 카메라로도 천체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반사망원경 촬영장비와 가이드시스템

만, 붉은 성운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적외선 차단필터를 제거하고 장노출에 따른 노이즈를 줄이기 위하여 냉각장치를 붙인 개조 카메라가 많이 사용됩니다. 카메라를 노트북과 USB로 연결하면 찍은 사진을 바로 노트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을 제외한 천체대상은 매우 어두워 육안으로 확인되는 대상은 극소수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상은 최소 1분 이상의 장노출 촬영이 필요합니다. 장노출로 카메라의 셔터를 열어두면 지구가 자전을 하므로 별이 흘러서 선 모양으로 촬영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도의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적도의는 시계와 같은 구조로 작동을 하는데, 극축망원경을 통하여 망원경을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시키고 적도의 내에 부착된 모터가 돌아 톱니바퀴를 통하여 적경축을 지구의 자전속도에 맞추어 하루에 한 바퀴를 회전시켜줌으로써 별이 점처럼 보이게 촬영이 됩니다.

아무리 정밀한 적도의라도 작은 오차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은 보조망원경 즉 가이드용 CCD를 부착한 보조 망원경을 추가로 설치하여 노트북과 전용 프로그램으로 연동시켜, 사진에서 별상이 이동하는 만큼 반대로 적도의에 보정신호를 보내 수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오토가이드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찍을까

다소 논란이 있지만, 망원경은 1600년대 초에 네델란드의 리페헤이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장치로 오늘날과 유사한 망원경을 발명했다고 하며, 이어서 많은 천문학자가 등장하였고 갈릴레오는 현대 천문학을 개척한 사람입니다. 갈릴레오는 망원경을 사용하여 달을 관찰하여 스케치를 남겼고, 목성의 4개 위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별이 아닌 어두운 천체에 이름을 붙인 것은 프랑스의 천문학자 샤를 메시에로 혜성을 관측하던 중 혜성과 혼동되기 쉬운 천체들을 따로 기록해 두었다가 이 기록을 정리하여 메시에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1774년부터 작성된 목록은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M자를 붙여, 추가로 발견된 천체를 추가하여 1781년에 103개의 목록을 만들었고, 그 후 다른 천문학자가 7개를 추가하여 현재의 메시에 110개 목록이 완성되었으며, 당시의 망원경 성능에 따라 비교적 밝은 천체대상으로 초보자들이 촬영을 시도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망원경의 성능과 사진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어두운 성운, 성단, 은하들이 발견됨에 따라 NGC, IC와 같은 새로운 목록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점상촬영

삼각대에 보통 카메라를 설치하여 별이 보이는 풍경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장비로 천체촬영을 즐길 수 있는 촬영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수동모드로 두고 ISO는 800~3200, 조리개는 최대개방치에서 한두 단계를 줄이고 유선 릴리즈를 이용하여 30초 이내로 촬영합니다. 표준렌즈보다 광각이면 대략 20~30초에서는 별이 흐르지 않는 점상사진을 얻을 수 있고, 은하수 부근이나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지게 담으면 아주 멋진 사진이 됩니다.



궁수자리 부근의 은하수, 13. 12. 8 촬영

일주촬영

일주촬영은 점성촬영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지만 대략 30초 노출로 1초 간격으로 다수의 사진(통상 두 시간이상)을 찍어서 Startrail같은 어플로 합성하면 별이 움직이는 궤적으로 나타납니다.

망원경을 사용한 성운, 성단 촬영

망원경은 화각이 좁기 때문에 잠시의 노출에서도 별이 흐르므로, 적도의에 장착하여 촬영하게 됩니다. 대략 탑재중량이 20kg 정도의 적도의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차량을 이용하여 관측지로 가는 아마추어 관측자들이 운용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촬영시는 스타리나잇과 같은 천체지도 어플로 노트북을 이용하여 적도의와 연결하고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적도의를 구동합니다.

DSLR을 사용할 경우 수동모드에 ISO를 800에서 1600 정도로 세트하고 별브릴리즈(리모콘)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셔터를 열어 줍니다. ISO가 높으면 장노출에 따라 노이즈가 심하게 생기게 되는데, 10장 이상 찍어서 누적합성을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을 찍기 위해서 별브릴리즈를 사용하면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고도 노출시간과 촬영간격, 촬영매수를 지정하여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의 사진을 촬영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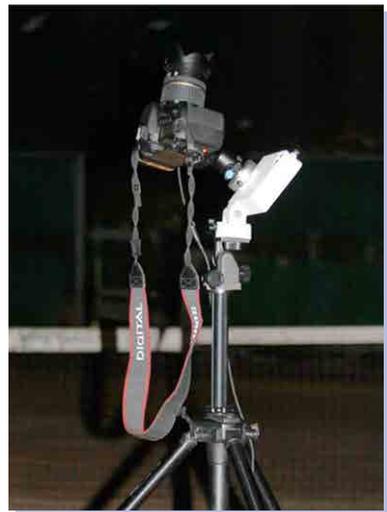


IC434 말머리성운, 13. 11. 7 촬영

카메라와 간이 적도의를 사용한 간편 촬영

망원경과 적도의를 사용하면 더욱 세밀하고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지만, 장비가 무거워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탑재중량이 3kg정도로 카메라를 올려서 촬영할 수 있는 간이 적도의도 출현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가벼워서 간편히 들고 다닐 수 있어 손



간이 적도의를 이용한 촬영

쉽게 천체촬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여행과 같이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곳에서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장소 선정

천체사진의 중요한 요소는 투명도와 씨잉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명도는 안개나 구름 등 시계를 차폐하거나 감소시키는 요소들이며, 씨잉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대기가 흔들리는 것으로 사진촬영에 악영향을 줍니다. 천체사진은 아무 곳에서나 촬영은 가능하지만 도시와 같이 광해가 심한 곳에서는 1분 노출에도 사진이 타버려 세밀하게 찍을 수 없습니다. 또 달이 밝으면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는 안개의 영향도 적게 받습니다. 따라서 천체사진을 찍을 적기는 그믐 부근의 달이 없는 때에 광해가 적고 고도가 높은 강원도의 산간지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대개 주말에 시간여유가 생기므로 금, 토요일에 날씨가 좋으면 많은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관측을 나가게 됩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점차 늘어나는 스키장과 골프장의 광해는 점점 천체사진 촬영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천체사진 촬영에 입문한지 이제 5년이 넘었고, 그동안 메시에 대상 110개를 포함하여 성운, 성단중 밝은 대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찍는 대상들은 대부분 찍어보았습니다.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지만 두 시간여를 달려 강원도 홍천 부근의 관측지에 가면 은하수와 함께 쏟아질듯한 수많은 별들이 반겨줍니다. 밤새 촬영을 하면 다소 피곤하기는 하지만 맑은 공기와 함께 하며 보낸 시간은 기력이 충전되는 느낌이 들고, 촬영된 사진들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기에 충분합니다. 영화 킨텍에 나오는 대사중에 “이렇게 넓은 우주를 우리만 사용하고 있다면 낭비겠죠”라는 조디 포스터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아직 태양계를 갓 벗어난 정도입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를 밖에서 볼 수도 없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은하계 천억개 이상이 우리의 시야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미미한 존재를 의식하게 합니다. 비싼 장비가 없더라도 간단히 쌍안경부터 카메라와 삼각대 정도만 있어도 밤하늘의 보석들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성취감을 얻고 싶은 분들은 과감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문

장군과 모나리자와의 만남



21기 사관 신문식

1930년대 중반 소련 군사학교에 외국문화의 강좌가 개설되어 나는 시민전쟁이라는 과목을 준비하여 강의를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강의를 정성스럽게 준비하였고, 학생들이 문학을 배워 이 문학이 전쟁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정말로 오셀로¹⁾와 에그몬트²⁾가 장군이었던 것처럼....

나는 첫 강의를 문자 그대로 준비를 잘 했으며 그 것을 아주 훌륭하게 읽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강의 중간에 고개를 들었을 때 바로 앞에 앉은, 가슴에는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장군(교장)을 보게 되었고, 이내 나는 주눅이 들어 준비된 강의내용을 완전히 까먹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교안을 빠른 속도로 읽는 것으로 첫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강의실 분위기는 아주 삭막했고 나는 청중들과의 래포가 전혀 안되었음을 느꼈다. 강의 중 교안에서 눈을 떼고 소소적인 표정의 교장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 화상의 흉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나의 강의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중간 휴식시간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어왔다.

“왜 우리는 이러한 과목을 들어야 한단 말인가? 사실 괴테가 전쟁에 도움이 될 수는

저자: 이스바흐 (А. Исбах, 1904~ 러시아 소설가, 문예학자, 기자)

1) 오셀로 Otello(Otello): 오셀로의 이탈리아 이름으로서 셰익스피어 희극에 나오는 베니스의 흑인 장군

2) 에그몬트 Эгмонт (Egmont): 괴테의 작품속 백작 이름, 스페인이 독일을 침공했을 때 항거한 인물

없다. 파우스트³⁾가 우리를 위해 사단을 지휘할 수는 없다.....” 내가 들은 이 소리는 교장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이 소리를 듣고 의기소침하였으나, 이내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괴테가 필요 없다고? 좋다! 어디보자!”

다음 강의는 괴테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는 이를 밤낮으로 꼬박 괴테의 수많은 시를 암기하기 시작하였다. 강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청중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괴테의 위대한 업적과, 파우스트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파우스트의 마지막 독백을 읽어 나갔다.

『그렇다. 나는 이런 정신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차지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위험에 둘러싸여서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보람 있는 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유로운 땅에 자유로운 백성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

‘멈춰라, 너는 진정으로 아름답구나!’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은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드높은 행복을 예감하면서 나는 이제 최고의 순간을 즐기는 것이다.』⁴⁾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차지하는.....” 대목을 읽어갈 때 나는 이 잔혹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곧, 나는 교장인 판텔레이몬 쿠즈네초프 장군과 친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일찍이 전투에 가담하여 훌륭한 군사경험을 갖고 있었으나 충분한 교양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 그는 미술/문학을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전쟁소설이 전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다.

갑자기 쿠즈네초프 장군은 문학에 열중하기 시작하였고 저녁마다 푸시킨 서적을, 그리고

3) 파우스트: 괴테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 ‘선량한 학자 파우스트를 두고 신과 악마가 내기를 하고, 처음엔 악마의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욕망을 떨쳐버리고 선행을 쌓고 성스럽게 죽는다.’는 내용임

4) 원문에는 파우스트의 마지막 독백 내용이 없었으나 번역 과정에서 추가하였음

네르몬토프의 ‘견습 수도사’를 소리 내어 읽었으며 빅토르 위고의 ‘부랑자’를 처음 읽었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40세였다.

어느 날 강의 후 쿠즈네초프 장군과 길거리를 걸었다. 푸시킨으로부터 티미랴제프, 그리고 고골까지⁵⁾.....나는 그의 가슴에 문학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과연 내 없이도 그가 푸시킨이나 바이론을 좋아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강의시간에 ‘모나리자’⁶⁾라는 대목이 나왔다.

“모나리자가 누구입니까?” 나중에 쿠즈네초프 장군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는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누구도 네오날도 다빈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도 알았다. 어떻게 하면 모나리자의 매력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다음 강의에 나는 모나리자의 작은 그림을 가져와 설명을 해 줬으나 별 효과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술관을 방문하였고 그곳에는 아주 훌륭한 모나리자 그림을 볼 수 있었다. 물론 모사품⁷⁾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신비스러운 아름다움이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쿠즈네초프 장군은 한동안 모나리자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험상 굳은 얼굴이 매우 부드럽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 나는 오랫동안 쿠즈네초프 장군과의 만남이 없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며, 나는 전선으로 가 통역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에 나는 독일지역에 가 있었으며, 어느 날 나는 군 사령부로 호출되었다.

“쿠즈네초프 장군을 압니까?”

“압니다”

“쿠즈네초프 장군이 시골 작은 도시 시청 지하실에서 어느 유명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쿠즈네초프 장군은 그림보다는 탱크가 전문이시라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전문내용은 ‘확보한 그림은 네오날도 다빈치 작품 같은데 전문가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나는 화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를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5) 모스크바의 거리에 유명 작가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6) 원문에는 ‘조콘다’로 표기되었으나 번역과정에서 모나리자로 바꿈(원래의 본 이름은 ‘모나 리자 델 조콘다’임)

7) 모사품은 위작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모방한 작품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군 사령부에는 화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의 그림은 매우 귀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대위가 있으니 같이 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같이 가게 되었고 쿠즈네초프 장군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에 나는 흥분하였다. 정말 쿠즈네초프 장군이 그때의 학교장인 쿠즈네초프 장군인가? 물론 맞겠지, 레오날도 다빈지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면.....

깊은 밤에 작은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고, 차에서 내려 초병의 안내를 받았다.

“장군님이 당신들을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안내를 받았고, 문 입구에서 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쿠즈네초프 장군을....., 계급의 차이를 잊고 나는 그의 목에 매달려 열렬하게 포옹을 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근엄한 얼굴의 쿠즈네초프 장군은 당혹해 하면서도 감동적으로 나를 맞이하였다. 장군의 머리는 이미 반백이었으나 그의 눈은 아직도 날카로웠고 긴장하였다. 가슴에는 역시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아마도 파우스트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사단을 지휘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나는 속삭였다.

장군은 시청 창고로 우리를 안내했다. 이곳은 따듯했으며 건조했다. 불을 켜다. 크고 별로 두껍지 않은 상자들과 두꺼운 가죽 케이스 안에 그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상자들 중



하나를 열었다. 거기에서 쿠즈네초프 장군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림이 있었다.

우리들은 말없이 조용히 그것을 끌어냈다. 나는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장군을 바라보았다. 장군은 마치 자신이 이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바로 모나리자 그림이었다. 보석반지 하나 없는 통통한 손, 비밀스러운 미소....., 레오날도 다빈지. 그러나 그럴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나치들이 이 조용한 작은 도시에 그 위대한 작품을 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주의 깊게 그림을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센티미터 단위로.....

“찾았다!” 대위가 소리쳤다.

그림 뒷면 코너에 “브레슬레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렇다, 모나리자는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걸려 있다. 그러므로 결국 이 그림은 진품이 아닌 모사품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그림이 비록 모사품이라 하더라도 전선의 시골도시에서 모나리자를 볼 수 있다니.....

나는 또다시 모나리자의 미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그 그림을 독일 민주정부에 전달하는 행사에서 말이다. 역시 진품은 루블 박물관에, 그리고 그 그림은 모사품이었다.

나는 이날 쿠즈네초프 장군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나 쿠즈네초프 장군은 모스크바에 없었다. 아니 그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몰랐다.

몇 달이 지났다.

5월 9일 전승의 날 기념일에 나는 파리로부터 소포를 받았다. 그것은 두꺼운 종이에 들들 말은 케이스였다. 급하게 뜯어 펼쳐 보았다. 모나리자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미소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 내가 파리에 갔을 때 루블 박물관에서 직업적으로 모나리자 모사품을 그리는 화가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어느 화상 입은 얼굴의 러시아 장군이 찾아 와서 모나리자 그림을 사갔던 사실을 말하였다. 그 그림이 바로 전승의 날 기념일에 내가 받은 것으로서 쿠즈네초프 장군이 보내준 것이었다.



에필로그

번역자 역시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면서 ‘문학에의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돌이켜 봅니다.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 이스바흐 작가의 수필을 읽게 되는 기회가 있어 현역 혹은 예비역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번역해 보았습니다. 마치 군사지식이 핵심적인 기계라면 문학은 이를 원활히 해주는 윤활유가 아닐지?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7기 사관 허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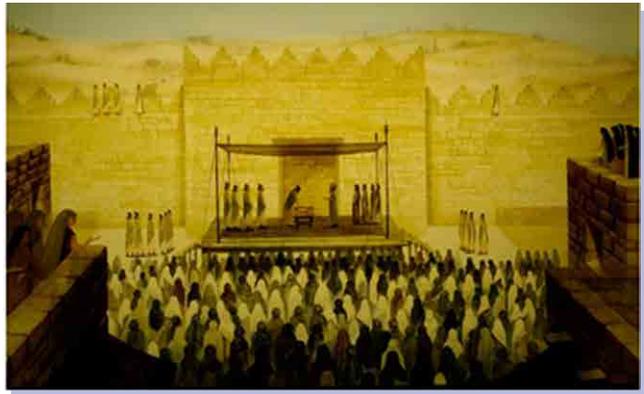
초막절(草幕節)이란 풀로 집을 만들어 살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초막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 하나이며 시기는 유대력으로 7월 (태양력 9~10월) 15~21일 일주일 동안 진행된다. 이스라엘 2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을 기하여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 대한항공에 탑승하고 보니 마치 유대인 전용기에 탑승한 듯 승객 대다수가 유대인이며, 기내 식단도 미리 주문한 메뉴였다. 동아시아권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국으로 모여드는 민족이동과 같이 보였다. 마치 이산가족 상봉과 흡사한 광경이다.

유대민족은 2,500여년간 나라 잃은 설움을 겪으면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유랑생활을 한 민족이기에 애국심이 대단하다. 국가 존망에 직접 결부되는 국가안보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 정책으로 펼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공장소 특히 관공서, 학교, 시장 등 어느 곳에든지 검문검색이 철저하다.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정도의 조그마한 면적에 인구 800만명, 이 중 600만명이

유대인(러시아계 120만명)이고, 170만명이 아랍인, 나머지 30만명이 기타 이주자로 구성되고 있다. 이 중 한국교포는 약 600명 정도이며, 유학생을 비롯하여 연구원,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연간 약 3만불 정도이지만 국방 및 안보분야에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생활수준은 한국보다 못하다. 물가도 비싼 편이며, 공산품, 소비재는 수입에 의존하는 관계로 비싸고 특히 자동차 값은 한국의 거의 2배에 이른다. 음식값도 비싼편이며, 텃도 18%정도 추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다. 또한 물 부족 국가이기에 절수가 생활화되어 있다. 공중화장실을 비롯하여 각 가정마다 태양 집열판이 지붕에 설치되어 온수공급을 하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마다 크고 작은 레버가 있는데 작은 것은 소변용이고, 큰 것은 대변용으로 물 절약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 달력 ‘Tishrei’ 을 기준으로 절기가 구분되는데 유대 새해를 맞이하여 약 15일동안 사실상 공휴일로써 모든 국민이 축제 분위기이다. 유대 새해 10일째는 대속죄일(욘키푸르)로 정하여 모든 교통을 차단, 공항, 도로 모두 폐쇄한다. 유대 달력 15일째는 초막절로 조상들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초막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명절 분위기이다. 공공장소와 각 가정마다 종려나무가지와 천으로 ‘쑥곳’ 이라는 초막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들의 뼈아픈 과거체험을 상기시킴으로써 애국과 애족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시기에 4가지 식물인 ‘에트로그’ (레몬모양크기 과일), 종려나무가지, 도금 향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를 한데 묶어 동서남북을 향해 흔들며, 소원을 기원하는 관습이 전해지고 있다.



성서시대의 초막절 행사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 라고 하며, ‘말씀이 주어진 곳’, ‘사건이 일어난 곳’ 이라는 뜻으로 단순한 황무한 곳이 아닌 광야에는

4가지가 없는데 물과 음식, 사람과 집이 없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밤 하늘아래 고요의 정막이 흐르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만 같다. 공교롭게도 세계 3대 종교의 발생지가 바로 광야란 사실이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내광야,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기독교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었던 곳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시험을 받으신 곳이 바로 유대광야였고, 이슬람교는 모하메드가 계시를 받은 곳이 바로 메카, 메디나 광야였다고 한다. 황무지 광야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나무가 있는데 법궤, 성막을 지을 때 쓰는 싯딤나무, 덩불같은 로렘 나무, 그늘을 이루는 에셀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948년 독립하면서 국토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협의과정에서 아프리카의 넓은 땅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옛 조상의 가나안 땅을 고집하고 토지매입 과정에서 유대인 부호 한 사람이 다 지불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벤 구리온(Ben Gurion)’ 초대 대통령은 임기를 끝마친 후 고향에 낙향하여 ‘네게브(Negev)’ 광야에 집단농장 ‘기브스’ 를 만들어 이 곳에서 여생을 바쳤다고 한다. 그의 업적을 기념하여 ‘아비브’ 국제공항을 ‘벤 구리온’ 공항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도처에 유랑하면서도 인류사 전반에 뚜렷한 종적을 남긴 인물이 많다. 그 중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를 비롯하여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금융투자가 ‘조지 소로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미국 중앙은행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벤 버냉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원자폭탄 개발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지휘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 등 수많은 인재들이 유대인 후손들이며, 역대 노벨수상자 중 22%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미국내 유대인 인물에는 구글(세르게이 브린), 페이스북(래리 페이지) 설립자를 비롯하여 할리우드 영화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우는 제작자 ‘제거 브룩 하이머’, 영향력있는 언론인 ‘토마스 프리드먼’ (폴리처상 3번 수상), 연방 대법관(종신직) 9명 중 3명이 유대인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하에서 각료 공직에 대거 포진하여 국정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현직 대통령의 모계 쪽으로 유대인 피를 받았다는 설이 있어 미국 주류사회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걷고 싶은 산티아고 순례길



23기 사관 장석원

산티아고를 향해서



산타아고로 가는 프랑스길(붉은색)

카미노 데 산티아고(Camino de Santiago)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성 야고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걸었던 길로 성 야고보의 유해가 묻힌 산티아고(Santiago del Compostela)까지 가는 길을 말한다. 프랑스 국경 마을 생장(St. Jean pied de port)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프랑스 길은 약 800km의 거리로 한해 2~3만 명의 순례자 가운데 70%가 전통적인 이 길을 걷는다. 성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약1000년 전부터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1993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가톨릭 신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는데 모두 종교적인 이유뿐만은 아니다.

가톨릭 신자로 등록하여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을 무렵 산티아고 순례길에 관한 책을 읽고



순례자 증명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내가 가보아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준비를 하면 할수록 환갑을 지난 내가 아내와 단 둘이서 갈 수 있을까? 말을 못해 길을 잃고 헤매는 국제미아가 되지는 않을까? 두 달 가까이 집을 비워

두고 떠나 있어도 문제는 없을까? 체력은 괜찮을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도 꼭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출발을 결심하였다.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비행기, 기차, 호텔 등을 예약하고 짐을 챙겨보니 내 배낭은 12kg, 비비안나 배낭은 10kg 이다. 걷는 동안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넣게 되면 더 늘어나겠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챙겨서 출발했다.

인천공항에서 11시간30분 걸려 프랑스 파리 드골 공항에 도착, 호텔에 여장을 풀고 3

일 동안 시차적응을 겸해서 파리를 구경을 하고, 순레길로 떠나는 날 긴장과 설레임으로 Montparnasse 역에 가니까 우리와 같은 차림의 사람들이 한두명 보였으나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Montparnasse에서 Bayonne까지 TGV기차로, Bayonne에서 조그만 기차로 갈아타고 출발지인 생장으로 가는데 온통 순레자뿐이다.

아침에 파리를 출발, 오후 생장 기차역에 도착 순레자 사무소를 찾아가 순레자 여권(Credencial)도 받고, 순레자 표시인 조가비를 사가지고 알베르계(순레자 숙소)에 도착, 짐을 풀고 마을 구경을 하는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다.

순레자로서 발걸음

아름다운 생장을 뒤로하고 피레네 산맥의 여명을 보면서 목적지인 산티아고를 향해 34일간 800여km의 대장정을 매일 묵주 기도로 시작했다.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공할 때 넘었다는 1450m의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부터 시련의 시작이다. 비바람이 불어 몸을 지탱하기도 힘들고, 진흙길, 눈길을 걷다가도 평탄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잠시 여유를 보이기도 한다. 마치 인생의 여정을 보는 듯하다. 순레자의 상징인 조개 모양의 문양과 노란 화살표만 따라 가면 산티아고까지 갈 수 있다. 조개껍질을 배낭에 달고 지팡이 하나 들고 좋은 순레길 되라는 “부엔 까미노(Buen Camino)”를 서로 주고 받으며 걷는다. 서로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아프면 약을 내놓고, 짐을 들어 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먹을 것도 나누어 먹기도 하며, 쉬 때는 같이 앉아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용서의 언덕(Alto del Perdon)을 오를 때는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용서를 한단다. 나 역시 용서할 것들이 무수히 많음을 깨닫게 된다.

하루를 걷고 성당에 들러 오늘도 무사히 도착함에 감사기도를 하고, 순레자 숙소로 간다. 숙소는 깨끗하고 좋은 곳도 있으나, 옛날 마구간을 개조해 난간도 없는 침대만 놓고 사용하는 곳도 있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순레자로서 서로 배려하며 하루 밤을 보낸다. 며칠 걷는 동안 다리에 염증이 생기고, 어깨가 너무 아팠다. 순레 시에 필요하다고 배낭에 넣어 둔 물건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 동안 무겁게 메고 걸었는데, Logrono에서 짐을 털어 산티아고 우체국으로 보내고 나니 아프던 다리도 좋아지고 어깨도 덜 아팠다. 스페인의 낮잠(Siesta) 시간 때문에 우체국 근무 시간에 맞출 수 없어 여러 날을 메고 다녔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결국 나의 욕심이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일주일 정도 걷고 나니 배낭도 나의 몸의 일부가 된 듯하다. 출발할 때는 겨울이었는데 어느새 무더운 여름을 느낀다. 스페인



의 강력한 태양과 한국음식, 고향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 어떤 날은 침낭을 숙소에 두고 나서거나, 하필 1500m까지 올라가야 하는 날인데 컴컴한 새벽에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투덜거리며 갈 수 밖에 없다. 끝없는 평원에 펼쳐진 밀밭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메세타 지역을 몇 시간 동안 걸을 때는 지루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비가 오는 날은 옆에 가는 비비안나와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자연스럽게 묵언 수행이 되기도 한다. 힘들 때면 바(Bar)에 들려 커피 한잔에 샌드위치 한 조각을 먹고, 덥고 목마르면 맥주 한잔 마시고, 저녁때는 평소에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둘이 나누어 마시며 행복해 한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

성당에 들려 미사를 볼 때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순례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말씀은 못 알아들어 마음은 통하는 듯 편안하다. Burgos 대성당이나 Leon 대성당을 명동성당과 비교 해보면 차이가 많지만 화려한 외형적인 모습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네 사람들도 똑 같을 텐데 너무 외적인 모습에 매달리는 것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부부가, 부자간에, 모녀간에, 친구간에 걷기도 하지만, 순례길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예상치 못한 만남도 얻을 때도 있다. 우리도 여러 나라 사람을 만났다. 출발 전에 생각했던 언어 문제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순례자로서는 문제가 없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면 스페인 사람이나 유럽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았다. 서로 말은 못해도 눈치로 몸짓으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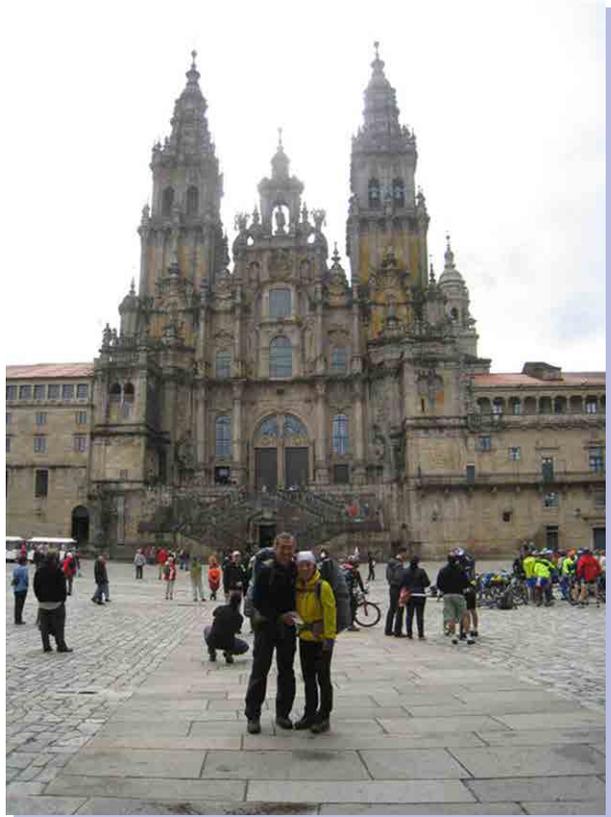
최근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상업적으로 변해 가고, 순례자들도 편안함을 찾기 위해 짐은 택시로 보내고 맨몸으로 걷는 사람, 순례길 완주 증명을 받기 위해 100km 만을 걷는 사람

등 순례의 본 목적이 많이 퇴색 되어간다고 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순례길을 찾는다. 사는 동안 한번쯤은 걸어 볼만한 길이라 말한다. 완주 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느끼는 감정과 자신과의 싸움이 중요한 것 같다. 산티아고 대성당 탑들이 보인다는 기쁨의 언덕(Monte del Gozo)을 지나 산티아고 대성당 광장에 도착하여 느끼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수많은 도보 또는 자전거 순례자들이 각자의 느낌과 생각으로 순례길을 완주하고 광장에 도착하는 순간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기도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등 감동의 순간을 표현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벽찬 마음은 모두가 같은가 보다. “다니엘, 비비안나 정말 장하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해냈지? 비비안나 정말 고생했다”. 순례자들 틈에서 우리도 서로를 격려 한다. 무엇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정열을 투자했으며,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많은 순례자들이 무엇을 위해 800여km를 걸어 이 곳에 올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라고 반문 해보기도 한다.

순례길을 마치고

순례자 사무실에 들러 그 동안 지나온 숙소, Bar, 성당의 확인 도장이 찍힌 순례자 여권을 보이며 완주했다는 증명서를 받았다. 비록 종이 한 장이지만 우리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증명서를 받아 든 순간, 무거운 짐을 지고 견느라 온몸이 땀이 뒤범벅

이 되고, 힘든 여정을 보낸 것과 걷는 동안 생각하고, 느끼고, 감동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그 가치는 돈과 시간과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순례를 마치고 숙소에서 깨끗하게 몸을 단장 하고, 다음날 대성당 미사에 참석하면 미사시간에 전날 도착한



산티아고 대성당

순례자들의 국적을 일일이 불러 격려해 준다.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가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기도 한다.

미사를 마치고 유럽의 땅끝이라는 Fisterra까지 가는 순례자들은 새로운 삶을 위하여 관례적으로 그 동안 지고 왔던 짐의 일부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그곳에서 태우고 간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같은 길을 프랑스에서부터 걸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순례자를 보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 하며,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마음과 정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순례길을 걷는다. 모두에게 순례길이 해답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례길을 걷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한다. 순례길과 인생길을 비교하면서, 순례자(Peregrino)로서 걸었던 Camino가 앞으로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소중한하고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순례자의 감동은 영원히 나의 가슴속에서 나의 인생을 응원 하리라!



순례자 여권과 완주 증명서

사찰(寺刹)속에 깃든 의미



21기 사관 오진교

산이 좋기도 하거니와 걷는 것이 체질인지 일주일에 한두번은 근교 산행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산행 중 사찰이나 암자를 지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그럴 때면 동행하는 친구들이 종종 사찰의 건축과 조형물의 의미와 용도에 관해 묻고는 한다. 수년전에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글에서 맹화 그리는 일에 도전하는 나를 소개한 적이 있고, 불화를 그리는 일을 취미로 하다 보니 벌써 주위에서는 나를 이 분야 전문가로 보는 모양인데 사실은 어디에 내어 놓고 말하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런 계기로 아는 것을 조금 정리하고 적어 놓으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산행 중 만나는 사찰과 암자가 조금은 친숙해 보일수도 있지 않을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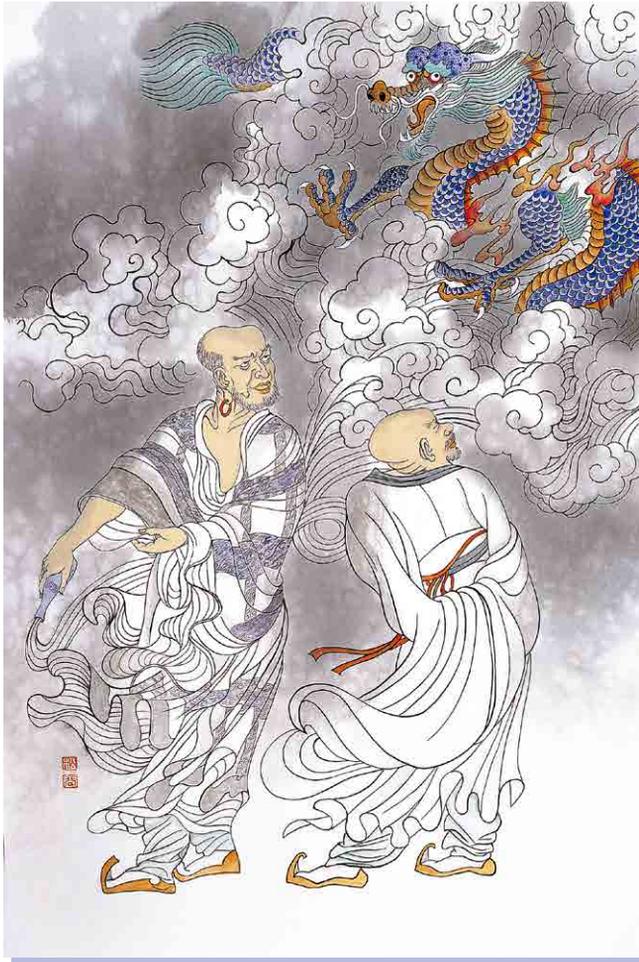


영산회상도 | 오진교작

이런 글을 쓰려하면 종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시작은 영어의 religion을 일본인들이 종교라고 번역하여 통용됨으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본다. 유교, 불교를 religion의 개념에 포함되어도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학자 라크탄티우스(AD3~4세기)는 religion을 신과 인간의 재결합, 또는 적어도 인간이 신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의 본질은 지혜의 완성이 실천과 관련하여 이해 될 때만 그 이론의 정당함과 사고방식의 엄밀함, 표현의 치밀함이 긍정되는 실천이 밑바탕이 되는 증득(證得)의 철학인 것이다. 대부분의 동양 사상은 이러한 근본바탕에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종교 철학자의 관심사항이고 보통사람의 관점에는 별 의미 없는 사항일 수도 있다.

산행이 목적인 우리에게겐 눈에 보이는 건축과 조형물의 의미와 용도다. 절 초입에서 처음 마주치는 것은 외기둥에 지붕을 얹은 불안정한 모습의 일주문이다. 그것이 왜 초입에 있



나한도 | 오진교작

나? 신성한 정토(淨土), 가람에 들어서기 전에 세속의 번뇌,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진리의 세계로 향하라는 무언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 그 다음 만나는 곳은 천왕문으로 사천왕을 모신 곳이다. 불법(佛法)을 수호하며 정토의 동, 남, 서, 북 방을 지키는 외호신으로 불국토인 가람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보면 되겠다. 동쪽은 지국천왕으로 칼을 들고 있으며 피부는 청색이다. 남쪽은 증장천왕으로 용과 여의주를 잡고 피부는 적색이다. 서쪽은 광목천왕으로 삼지창(또는 보탑)을 들고 피부는 백색이다. 북쪽은 다문천왕으로 비파를 들고 있고 피부는 흑색이다. 그 곳을 지나면 보통 왼편으로 범종각이 보인다. 소리는 스스로를 맑게 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울림

으로 쓰인다. 범종각 안에는 범종(梵鐘), 법고(法鼓), 운판(雲板), 목어(木魚)가 불전사물로 함께 있게 된다. 그리고 절 마당에는 석등(石燈)과 탑(塔)이 있다. 석등은 불을 밝혀 진리의 광명을 선사하는 상징으로 힘들고 답답한 중생의 마음에 부처의 진리를 비춰 평안을 향한 불성을 밝혀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조형미를 나타내는 석등이 곳곳에 있는데 조금의 관심으로 선조의 지혜와 예술성을 느낄 수 있다. 탑은 불교의 상징으로 모두 알고 있듯이 부처의 유골(사리)을 모신 곳으로 시작됐으나 신행(信行)의 대상이 되면서 나라와 시대 환경에 따라 형태와 재질은 물론 각기 특색을 지닌 문화와 예술이 접목되면서 불교를 상징하는 형상을 보이며 무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뒤로는 제일 크고 웅장한 건물로 사찰의 중심에 법당이 있다. 법당의 현판을 보면 의문이 생긴다. 그것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대웅전, 대웅보전으로 역사의 실존인으로 불교도의 근본 스승인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협시(脇侍)로 가섭과 아난, 또는 문수와 보현보살을 모셔놓으며 후불탱화로는 영산회상도, 삼여래탱화를 건다. 다음은 진리의 빛이 가득한 대적광전, 비로전, 대광명전으로 청정한 진리의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을 중앙에 모시고 좌,우협시로 노사나불과 석가모니불을 모시며 후불탱화는 삼신탱화, 화엄탱화를 건다. 지혜로운 수행을 통해 행복의 세계를 추구하는 극락전, 무량수전, 미타전으로 수행을 통해 완덕(完德)을 이룬 보신(報身)인 아미타불을 중앙에 좌,우협시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고 후불탱화는 극락회상도, 아미타삼존탱화를 건다. 그리고 적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협시도 탱화도 없이 사리를 모신 곳이 직접 보이도록 되어있다. 이외에도 약사전, 용화전, 미륵전, 영산전, 원통전등이 있다.

앞에 말한 탱화는 법당 본존 뒤에 걸린 상단탱화이고 불단 좌,우벽에 탱화는 중단탱화로 불법을 수호하는 호위무사도로 신중탱화라 한다. 그 외에 죽은 이를 위한 영단, 명부전 이외의 별도 전각에 탱화를 하단탱화라 한다. 탱화는 일반회화와 유사성 시대성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나 목적이 다른 그림으로 첫째 감상대상으로의 그림이 아니라 신행의 대상이나 교화적 의미를 갖는 내용을 도설화 한 것이다. 둘째 원근법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불화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셋째 5색의 조화 즉 청,황,적,백,흑색의 상징성에 따라 적용되고 표현된다. 이 때문에 탱화는 교리와 의례에 근거하여 제작된다. 일반적으로 불화(佛畵)로 분류하는 속에는 추상성이 강한 선화(禪畵)와 교화(敎化)의 상징성

이 강한 신행(信行)대상의 탱화가 있다. 화려한 색상, 섬세한 문양, 복식, 다양한 표정의 인물이 그려진 탱화를 보면 작업자의 정성과 노고가 눈에 선한데 전체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으며 고도의 집중력과 치밀함, 인내심을 요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간추려 소개하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출초(出草)라 하고 이것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고 배접(裱接)을 같은 재질의 종이를 5~7겹 붙이고 비단이나 천을 붙여 말린 후 포수과정을 통하여 보존성을 높이고 채색이 가능토록 한 다음 본격 도채(塗彩), 바림(渲染), 끝내림 후 금선, 금박장식, 얼굴의 눈,코,입,수염 그리기 개안 및 마무리의 전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는 작업 전 과정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한 탱화는 건물의 규모와 본존, 좌 우 협시의 배치와 절의 교의에 의해 형식과 크기가 결정되고 작업 기간 작업 방식의 의사결정, 작업에 필요한 도구 확보, 안료의 선택, 배합 등 상상을 넘는 시간과 노력, 집중력, 보조자와 이심전심의 동기화와 섬세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물 이기에 오래 보존 될 수 있으며 신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많은 것들이 산행 중 우리 곁에 있음을 알고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본다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새로운 세계를 그리고 조상의 사상, 건축, 예술을 경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합천 영암사지 쌍사자 석등



1기 사관

지난 4월 25일 1기 사관 임원진은 공사 발전기금으로 일천만 원을 기증하였다.

기탁금은 1기 동기생회에서 공사발전을 더욱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가로 기금을 마련하여 기증한 것이다.



5기 사관

지난 3월 21일 5기 사관은 모교의 요청으로 이재우 박사의 특별 강연을 가졌다.

이재우 박사와 회장 외 2명의 임원이 동행하여 후배들에게 팔십 노장 대선배들의 건장한 활동사항을 과시하며 생도생활로 다져진 체력, 건강, 정신력의 결과임을 역설하여 생도생활의 보람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특히 현대사회의 미디어 속에서 현명하게

사는 방법과 북한의 Cyber 전력 구축에 대응하는 우리의 Cyber전 관련 특강은 생도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6기 사관

6기 사관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만난지 60년 80대 부부 봄나들이' 행사를 강원도 춘천, 인제, 설악산, 속초 지역의 산과 해변에서 갖고, 참가 부부들의 노익장 자량은 물론 춘색을 즐기는 시간을 보냈다.

6월 14일 15시, 경기도 용인 시청 문화홀에서 이재규 동문이 2010년 1차 서예전 이후 그간 모아둔 작품들을 행초서 위주로 2차 서예전을 개최하여 서예가의 숨씨를 뽐냈다.



12기 사관

12기 사관은 졸업/임관 50주년행사차 귀국한 재미 동기생 및 가족들이 세월호 침몰사고 50주년 행사가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5월 2일 모교방문을 했다. 학교장의 영접과 생도식당에서 생도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50년전의 생도시절을 회상해 보기도 했다. 생도 생활관과 박물관을 돌아보고, 청남대를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와 공군회관에서 재미동기생 및 가족을 위한 만찬으로 환영행사를 조촐하게 마무리했다.





12기 사관

또한, 임관행사 참석차 모국을 방문한 송창희 동문 부부를 환영하는 모임을 5월 1일 공군회관에서 가졌다. 송창희 동문은 미국 애틀란타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몇십년 동안 미공군 대학에 유학을 오거나 미국을 방문하는 동문들을 초청하여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기에 그곳을 다녀간 동문들이 함께 오찬을 하면서 감사패와 선물을 증정하고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7기 사관

케냐 나이로비에서 세종학원을 설립하고 한국의 열을 심고 있는 17기 사관 김응수 회원이 '14년 공군전우회 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군인' 상을 수상하였다. 김응수 회원은 한국에서 2년간 연대 어학원에서 한글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받고 자격증을 획득한 후 케냐로 떠났다. 자비로 작은 사무실을 얻어 한글을 가르친 지 2년 만에 정부로부터 '세종학원'으로 인가 받아 정부가 70%, 김응수 회원이 30%를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년간 540명이 교육을 받았고 250명이 수료한 바 있다.





21기 사관

21기 사관은 2013년 송년의 밤을 통하여 총동창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기수로서 공사총동창회의 업무 내실화를 위해 전 동기생이 일심단결하여 노력함으로써 지난 6월 말 부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다.



지난 6월 5일에는 이천호국원, 대전현충원 및 서울현충원에서 먼저간 동기생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에어부산 정용운 기장(아들은 부기장으로 근무중)은 42년간 '무사고 안전운항' 기록을 달성하며, 6월 22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가진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의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안전점검의 습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2기 사관

22기 사관은 올해 7월부터 예정된 공사총동창회 운영 준비를 위해 2년전부터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총동창회 운영을 준비해 왔으며, 김은기 동문을 차기 총동창회장, 민형기 동문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마무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공헌 공동체 협의회 '다사랑월드' 총재 (이사장)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영하 동문이 최근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는 공군회관에서 제2차 정기총회를 열어 회원 수 550여 명의 비영리 시민단체(사단법인)로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23기 사관

23기 사관은 '15년 7월부터 공사 총동창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13년 말부터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장 이계훈)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돈독한 동기애를 구축하기 위하여 월 1회 골프와 등산 등의 주기적인 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39년 3개월이란 오랜 기간을 공군에 몸담았던 강치행 동문(공사 항공우주공학 교수)이 지난 6월말 정년퇴임하였다. '91년 프랑스 공삐엔느 공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 동문은 '78년부터 35년 이상을 모교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열성을 다해왔다.



25기 사관

25기 사관은 '13년도 송년 모임시 멀리 창원에서 참석한 이성재 회원이 즉석에서 은수네(초등3학년), 주영이네(중등3학년) 돕기를 제안하여 모임에서 모금한 돈으로 아이들 생애 처음인 서울 나들이를 주선하였다.

은수네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참석과 롯데월드를 구경하며 가족들이 좋은 시간을 함께 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은수 아버지가 새롭게 일을 시작할 의욕을 갖게 해주었고, 주영이네는 태릉선수촌 여행을 통해 빙상 선수의 꿈을 키워가도록 해주었다.





총동창회 알림

✈ 정기총회	194
✈ 회비 납부 안내	198
✈ 평생회비 납부현황	199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202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3
✈ 전역자 현황	206
✈ 주소 변경	210
✈ 각 기생회 임원현황	212
✈ 편집후기/기고안내	213

夏成臺



정기총회

- 제21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21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5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22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무 보고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9,430명
- 현재 인원 : 8,654명
- 예비역 인원 : 4,160명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710,876,963	20차년도
21차년도 적립	25,608,843	평생회비: 8,980,000 이자수입: 16,628,843
적립 총액	736,485,806	



21차년도 운영중점

■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통해 성과 확산'

1. 동문간 상호 화합을 위한 활동 적극 전개
2. 모교 및 공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3. 안보 전문집단 역할 수행

주요 추진사업 현황

■ 1. 부대 격려 방문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군수사, 교육사, 남부사

나. 일선부대 : 11전비, 3훈비

※ 부대 방문시 총동창회 현황소개 및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 2. 친목의 날 행사

가. 등산대회

- 과천대공원('14. 4. 23) : 250명 참석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13. 11. 13) : 50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대국

■ 3. 62기 사관 졸업식 대표보라매상 수여

가. 소위 김진현

나. 공사 추천자 표창

■ 4.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발

가. 18기 사관 전영훈



■ 5.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홍보 활동

- 가. 공사 졸업생(62기) 특강 및 기념품 증정 ('14. 2. 14)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 ('13. 9. 14)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3. 9. 12)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 ('13. 9. 25)
- 마. 현역후배 임원기수 간담회 ('13. 10. 17)
- 바. 기타 간담회 (수시)

■ 6. 조문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 공지
 - SMS 전파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상하 10개 기수)
 - 조기를 통한 조문 (79건)
- 나. 현역 순직자 조문 (1회)
 - 회장단 직접 조문
 - 유가족 위로 및 조의금 전달

■ 7. 순직 조종사 부인회 초청 간담회 개최

- 가. 일시 및 장소 : '13. 12. 5, 공군회관
- 나. 참석 인원 : 순조회 회원 및 총동창회 임원 등 30여명

■ 8. 공군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

- 가. 공군 인트라넷을 활용한 현역과의 소통 확대
- 나. 순직 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 기부 (1천만원)
- 다. 총동창회 홈페이지 공군 주요 현안 적극 홍보



심의의결 안건

- ▶ 안건 1. 21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 안건 2. 22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 안건 3. 22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운영금 현황

▶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21기 찬조	8,300	7,8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3~41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700	1,070	
광고비	3,000	4,670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3,780	15,320	

▶ 회원/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회장 지인	300
이기동 (20기)	100	심인태 (30기)	25
윤자중 (1기)	20	최홍선 (5기)	10
정지수 (11기)	10	박찬태 (18기)	5

▶ 행사 후원

김광진 (21기)

등산, 바둑대회 기념품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 319-239049-01-001 |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씩 만 분담하는 회비로서 회원 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요망합니다.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 1002-051-559006 | 예금주 : 민형기 (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당연직 임원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4~21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22~42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22차년도 운영기수는 22기로 임원기수는 14기~42기 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회비 납부현황

▶ 평생회비 완납기수

- 1~28기 완납

▶ 21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3.07.01~'14.06.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29	138	81	57	노종호				
30	155	75	80	강주윤, 최영훈				
31	164	118	46	노병균, 박우형, 손윤호, 이문홍, 이종희, 이찬경				
32	166	83	83					
33	174	47	127	송택환, 황성진				
34	167	62	105	최재훈, 최중문, 한중호				
35	249	25	224	195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명단	
37	255	11	244		17	246	김원수, 박영준	
39	223	15	208		16	221	김용운, 이수만	
41	241	6	235		16	225	서철모	
43	271	8	263		29	248	김현준, 민경욱	
45	220	19	201		11	212		
47	201	2	199		1	226		
49	200	1	199		105	87		
51	203	1	202	50	193	4	189	최성신
53	211	3	208	52	202	1	202	
55	186	0	186	54	192	0	192	
57	157	0	157	56	155	1	154	
59	137	0	137	58	134	0	134	
61	156	0	156	60	148	1	147	
62	145	3만원 분납	강민중, 강상구, 강준석, 고준형, 광수덕, 구교안, 구자빈, 권기수, 권순호, 권오현, 권현화, 김건주, 김경민, 김기영, 김동인, 김동환, 김두환, 김명환, 김무원, 김법석, 김사덕, 김성룡, 김아휘, 김영건, 김우중, 김재성, 김정동, 김주성, 김주희, 김진현, 김태주, 김현우, 김현욱, 김현호, 김환곤, 김희성, 김희우, 나정모, 남동우, 남형성, 명의연, 문영언, 문원빈, 문정훈, 민보경, 박명우, 박성현, 박애진, 박영민, 박의환, 박인용, 박인준, 박재학, 박중훈, 박지훈, 박진명, 박진상, 박 찬, 반석진, 배준철, 백승령, 성대해, 성 룡, 성민규, 손병준, 손성민, 송승규, 신명호, 신민형, 신해철, 안성혁, 안중훈, 양동경, 양우혁, 여준구, 염규빈, 염지희, 오정식, 오행서, 위라왓, 위찬웅, 유은상, 윤석민, 윤정환, 윤지섭, 윤필상, 이상인, 이성진, 이순철, 이승엽, 이승진, 이용찬, 이용현, 이우창, 이원중, 이은규, 이창준, 이태형, 이형건, 이후인, 임선혁, 임성빈, 임영민, 임정민, 임준수, 장 민, 장용운, 장중현, 장준하, 장철원, 장호제, 전성렬, 전성빈, 정우철, 정중안, 정준영, 정지수, 조기강, 조성민, 조승윤, 조영욱, 조용범, 조현웅, 주 연, 진서영, 진형빈, 최병철, 최영원, 최영현, 최원석, 최유림, 최은태, 최정호, 최충하, 최태영, 한두희, 한승훈, 허재훈, 허 준, 홍준기, 황도빈, 황동민, 황인선, 황현중					
합	현재인원 : 8,654		납부인원 : 2,851		미납인원 : 5,803			

※ 입금명 '공사총동창회비' (7/27), '공34사관' (11/12) 로 납부하신 회원께서는 기수 및 성명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납부자 현황

(2013. 6. 30 이전)

기 수	납 부 자 명 단
29	강동운, 강명흠, 구용우, 권오봉, 김경호, 김광수, 김규진, 김덕중, 김석중, 김성진, 김순노, 김영권,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용환, 김용희, 김정식, 김철생, 김희영, 김홍운, 나총렬, 남승우, 문병규, 박성기, 박장경, 박재복, 박춘기, 박종민, 변우경,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심평기, 양철환, 오승교, 오영봉, 오한두, 위진호, 윤정용, 윤주혁, 윤한두, 윤항재, 이경달, 이규복, 이남건, 이동우, 이두희, 이명길, 이병두, 이상번, 이수억, 이승호, 이완식, 이유인, 이인섭, 이일수, 이장근, 임영선, 전동기, 정남범, 정대경, 정덕용, 정재순, 조병호, 조평환, 진호영, 차영현, 최상철, 최성욱, 최승철, 최용준, 최정근, 표상욱, 한봉규, 한봉완, 한홍수, 홍상기, 홍승조, 홍완표, 홍재욱
30	강구영, 강병희, 강성호, 강지순, 고영문, 구 정,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상기,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용환, 김용훈, 김일형, 김정수, 김종석, 김종선, 김진완, 김철보, 김호식, 나시중, 박국서, 박상근, 박성희, 박재현, 박종완, 박호성, 서희석, 손한섭, 신완희, 심인태, 안창경, 양승주, 염동선, 우정규, 윤기성, 이경훈, 이광수, 이성남, 이연수, 이옥규, 이용근, 이종돈, 이종식, 이지영, 이학주, 장기석, 장덕진, 장석현, 장조원, 장현동, 정경두, 정규호, 정기영, 정병수, 정 수, 정재수, 정중규, 조보근, 조영봉, 차주섭, 최종욱, 채덕상, 채종목, 채지광, 최성규, 한상덕, 한진국, 황성돈
31	강경한, 강윤성, 강호석, 고석목, 고영대, 고종봉, 고형규, 공기명, 권태호, 김기중, 김기현, 김길수, 김남호, 김동철, 김명근, 김수복, 김시완, 김용덕, 김용복, 김유인, 김인택, 김재환, 김정석, 김정철, 김종명, 김종출, 김진수, 김철승, 김홍준, 김현주, 김홍천, 남보우, 류전수, 마권용, 문승주, 박갑용, 박동진, 박병근, 박병진, 박봉수, 박승필, 박양기, 박우일, 박정규, 박창일, 박항윤, 박해구, 박해룡, 반석태, 방은상, 배상욱, 배순근, 서상원, 성덕용, 송병근, 송상준, 손영철, 신기근, 신재현, 오재현, 위중성, 유병길, 유보형, 윤용인, 윤흥기, 이남희, 이덕수, 이동규, 이동환, 이병근, 이병욱,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이왕근, 이재환, 이종근, 이종영, 이준희, 이창희, 이현주, 임동훈, 임봉수, 임완재, 임현구, 장덕봉, 장동현, 장영익, 장춘석, 전권천, 전병승, 정석환, 정승진, 정재형, 조병수, 조성욱, 조승교, 조철수, 조한구, 조현기, 조환기, 채관석, 최대영, 최병석, 최승준, 최영준, 한동석, 한상훈, 허기주, 현용희, 황영균, 황중서
32	권혁철, 김석운, 김성수, 김성재, 김성환, 김연환, 김영권, 김영기, 김영수,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진식, 김진호, 김창석, 김창훈, 김충원, 김태승, 김현근,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문채복, 박대홍, 박동성, 박동창, 박세권, 박승룡, 박지업, 박천신, 박호영, 부성철, 손형규, 송기표, 송인수, 송재윤, 신영호, 신익현, 심부수, 심청용, 안상훈, 양용규, 원인철, 윤석준, 윤영배, 이건설, 이건완, 이광준, 이동호, 이문수, 이성우, 이성형, 이일하, 이재웅, 이재환, 이정대, 이종선, 이준행, 이창훈, 이창희, 이한균, 이형걸, 임상선, 장화용, 전종일, 전진문, 정광선, 정만해, 정영식, 조우호, 조준로, 천상필, 최원기, 최인영, 최재동, 최재영, 최환중, 탄명훈, 하성룡, 허창희, 황영하, 황인우
33	김대기, 김동수, 김수태, 김순길,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성용, 박수철, 박진용, 박찬혁, 백호달, 신용인, 심동섭, 오창규, 오홍재, 유준중, 윤병훈, 윤왕준, 윤준로, 위강복, 이성우, 이경재, 이동교, 이재홍, 임경수, 장경식A, 장경식B, 장병노, 정남진, 정영철, 정희주, 조광제, 조성호, 최근영, 최병호, 최용섭, 최현국, 한상균, 홍재기
34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김승수, 김신욱, 김영림, 김용복, 김일용, 김정열, 김종모, 김종명, 김종범, 김진우, 김학근,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김 훈, 노승환, 박기근, 박상로, 박장수, 박종용, 박홍식, 백윤형, 서종대,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윤기철, 윤진철, 이권표, 이성렬, 이성용, 이성호, 이인영, 이재소, 이재한, 이해원, 임삼규, 임상수, 임수훈, 임 원, 장기주, 장명수, 정병학, 정상길, 정찬기, 정찬영, 조현상, 차용재, 최상수, 편완주, 허남희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운, 강효석, 강 훈,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강래, 이영배, 이치원, 임채원, 정수성, 조철희, 최병오



총동창회알림



기 수	납 부 자 명 단
36	김남돈, 김보현, 김성규,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윤성모, 이수성, 이준모, 임이철, 최혁준
37	기노신, 김연규, 나은일, 박상균,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최윤곤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구, 권상범, 김순태,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종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문일,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박종운,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42	강문중,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섭,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경덕, 김상진, 김용재, 오동식, 이종원, 이종훈, 조진호, 주성규
44	김도현, 김상훈,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박정수, 이강희, 이수훈, 이재욱, 이한기, 전용성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금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신범수,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승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수,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식, 니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역,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항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흥,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제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전찬삼,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안,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이수리
50	안성민, 양정환
51	정진규
52	박인철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60	이승우
	54, 55, 57~59기, 61기 납부자 없음.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설립목적

-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 액 (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36	(주)부영 등 62개 단체
동 문	26	학교동문 3,000명
학부모/후원자	4	학부모 등 420명
합 계	66	총 3,420명, 62개 단체

■ '13년 기금 사용액 및 '14년 기금 사용 계획

구 분	'13년 사용액(억)	'14년 사용계획(억)	비 고
생도 건문화대 사업	2.1	2.0	생도 1인 110만원 지원
생도 학술·문화·체육사업	0.5	0.2	생도 대외학술대회 참가 등
지정기부사업	0.1	0.5	풍석군사학기금 등 3개 사업
재단운영비	0.1	0.1	재단운영비 등
합 계	3.2	2.8	'96~'13 사용 총액(30억)

※ 기금원금은 영구 보존, 이자수입(2.90~7.3%)으로 사업 운영

■ 기부자 예우

-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 (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등) 및 연말소득공제 혜택
- 학교본부 및 박물관 기부자 사진 및 명부 유지, 고액출연자 기금출연행사 등

■ 참여 안내

- 무통장입금 (예금주 : (재)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 국민은행 401-01-0662-701 / 농협 303-01-345036 / 우체국 300038-01-003768
- 문의전화 : 043-290-5716~7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기금총액 : 66억원

1억원 이상 (11)

삼성테크윈(주)	10억1천	삼양화학공업(주)	6억3천1백	대우중공업(주)	5억
(주)부영	4억	이종학(공사3)	2억6천2백	최동환(공사27)	1억5천
보잉코리아	1억2천6백	장지량(9대총장)	1억5백	(주)메타바이오메드	1억약정
(주)한국로스트웍스	1억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억		

5천만원 이상 (8)

(주)블루니어	(주)원일인터내쇼날	다음카페 공.학.모	공사발전후원회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6기생회

1천만원 이상 (85)

강민수(공사9)	곽현성(공군가족)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대중(역대대통령)	김도영(공사1)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용찬(공사11)	김용철(공군가족)	김은기(공사22)
김재식(공군가족)	김재현(란스튜디오)	김진수(공사31)	김진호(공사27)	김홍래(공사10)
(주)바이텍정보통신	박영민(사후53)	박원석(사후2)	박진숙(공사5)	보라매법당
(주)서로윈	서정욱(사후37)	서진태(공사8)	소망교회	승진기술(주)
신승호(대진침대대표)	(주)실리콘화일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4)	원불교총북교구
유상신(공사8)	윤대봉(공사8)	이광학(공사11)	이성재(공사25)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임용환(공군가족)	장덕수(공사13)	정제훈(공군가족)	최성열(공사15)
최용철(공군가족)	故최진형(공사56)	하정호(전경련MI GAMP회장)	한광희(공사9)	(주)한길씨앤씨
해인사(대한불교조계종)	허차동(공사11)	홍재학(공사4)	공사총동창회	공사1기생회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0기생회	공사11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공사59기생회	공사60기생회	



총동창회알림



5백만원 이상 (47)

강홍직(초정노인병원이사장)	경주전장	공영희(공사7)	국제라이온스협회충북지구	김규태(공군가족)
김남돈(공군가족)	김대욱(공사15)	김탁은(공군가족)	김문숙(군무원)	김선곤(공군가족)
김인기(공사3)	박종철(공사23)	박찬옥(공군가족)	안창명(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윤익수(사후37)	조광제(공사33)	최홍훈(독지가)	공군2사관학교충동문회	공사14기생회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공사50기생회

1백만원 이상 (312)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치행(공사23)	강수준(공사22)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강남,평택서울안과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발전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27기지용3편대원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사과학대학원	권혁달(공사9)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경복(공사3)
김경중(공사12)	김광은(교수)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두만(사후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보현(공사36)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양수(공사13)	김연호(공사34)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사후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군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주식(공사15)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 현(공사14)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남완수(공사39)	농협(청주물류센터지점)	(주)다우산업
도성한정식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주)루시컨설팅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자(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성국(공사16)	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선(공사14)	박준범(공사49)
박지훈(공군가족)	박창권(공사27)	박준택(공사12)	박흥식(공사34)	배기준(공사12)
배양일(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동기(공사16)	비씨카드



총동창회알림



사후77기동기회	서동열(공사4)	서명교(공사46)	(주)서울고속	(주)선우캠텍
설현주(공사41)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주)세일하이텍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대성(공사17)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군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신표근(공사18)	심성용(공사46)	심인태(공사30)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병철(공사13)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안택순(공사14)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양철환(공사29)	엄상영(공사24)	연양희(공사21)
오윤희(공군가족)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피환(공사23)	외환카드	위강복(공사33)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흥(공사21)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상주(공사25)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지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경훈(공사30)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현(공사13)	이기호(공사41)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식(공사43)	이문호(공사17)	이봉운(공사24)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억수(공사14)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윤(공사45)	이정은(공군가족)
이정일(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숙(공군가족)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식(공사11)	이태윤(공군가족)
이한호(공사17)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주)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상훈(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주)원플로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세현(공사33)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승혜(군교수)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귀균(공군가족)	정민우(공사47)
정석환(공사31)	정성규(공사14)	정중구(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정희두(공사45)	조규식(공사17)	조미행(공군가족)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사후59)	조환기(공사31)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채관석(공사31)	천기광(공사18)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곤(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용환(공사15)	최정봉(참사랑병원이사장)
최현국(공사33)가족	최호준(공사22)	하만윤(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봉철(공군가족)	(주)한드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룡(공사27)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원동(공사24)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13기생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공사44기순직자(5명)
공사48기생회	공사62기생회			



전역자 현황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3.7.31	대령	이명환	7509	28	'13.9.30	중령	이동환	1418F	42	
	대령	김성원	7509사	30		소령	홍준현	1407F	46	
	준장	이종식	2	30		소령	이경태	4507	49	
	준장	정수	2	30	'13.10.31	대령	김주혁	3009	30	
	대령	이문홍	8109	31		대령	김우근	7009	32	
	대령	박승룡	4509	32		대령	양용규	4509	32	
	대령	황용연	4509	36		중령	진태범	1438F	41	
	'13.8.28	중령	오인기	1428F(J)	39	'13.11.30	대령	강명흥	1449W(J)	29
		소령	차원도	1807	39		대령	위진호	1429O	29
		중령	이동규	1428F(J)	40		준장	최영훈	2	30
		소령	이계종	1807	45		중령	편일범	7508사	32
		소령	김민호	3007	50		대령	황선태	6708	32
대위		김준기	4507	51	대령		홍준표	1428F(J)	38	
'13.8.31	중령	노세권	1407F	50	'13.12.19	중령	선천규	4508	36	
	소령	정진규	1407F	51	'13.12.31	준장	강지순	2	30	
'13.8.31	대령	장기석	7508사	30		대령	권혁승	1419C	30	
	대령	송재윤	3008S	32		대령	김광희	4509	30	
	소령	심형수	5507	40		준장	김철포	2	30	
	소령	나재욱	1427H	42		대령	김호식	1439H	30	
	소령	지주연	8007	49		대령	서휘석	7509	30	
	소령	엄홍식	1407R	50		대령	손한섭	4509	30	
'13.9.30	대령	박종국	1429F	30		대령	신종철	1419C	30	
	중령	최영화	1708	32		대령	윤영식	1429W	30	
	중령	오흥재	4508	33		대령	이성남	4509	30	
	대령	김기철	1438F(J)	38		대령	이옥규	1419F	30	
	소령	김만진	8107	39		대령	이재현	1709	30	
	중령	김성훈	1438F(J)	40	대령	이종돈	1419H	30		
	중령	조희창	1418C	40	대령	최성규	4509	30		
	중령	김민호	7508사	41	대령	최준영	8009	30		
	중령	박희현	1428F	42	대령	한상덕	1709	30		



총동창회알림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3.12.31	준장	김동철	2	31	'14.1.31	소장	윤우	2	28
	준장	문승주	2	31		대령	이성만	7509사	29
	준장	박승필	2	31		대령	권규홍	1419H	30
	준장	전병승	2	31		중령	윤영배	7508	32
	준장	김연환	2	32		대령	정문수	5508	33
	대령	김장욱	7009	32		소령	박주희	1417C	46
	중령	박정희	8108	32		소령	김성민	8007	50
	중령	신영호	4508	32		'14.2.28	대령	전성구	1429F
	중령	이성형	1428W	32	대령		이동호	8008	32
	대령	김기수	8109	33	중령		조용호	4508	32
	대령	김재오	4509	33	대령		류춘득	7008	33
	대령	김정태	8109	33	대령		이종원	7008	33
	대령	노준갑	8009	33	대령		윤봉구	4509	34
	대령	윤병훈	1419H	33	중령		전승준	5508	35
	대령	이찬홍	4509	33	대령		이수탁	1438F	37
	대령	조성호	8009(S)	33	중령		김세종	1438F	38
	중령	황경구	3008(J)	33	중령		민경욱	1807	42
	대령	김현수	1429F(J)	34	소령		김규성	1417F	45
	대령	류완규	1719C(J)	35	소령		서경석	1417F	45
	중령	류치성	8008(J)	35	소령		설재욱	1417F	45
	중령	한은철	1418H(J)	37	소령		유용호	1417F	45
	중령	권일호	4508	38	소령		이인재	1417F	45
	중령	박종수	1438F(J)	39	소령		조총석	1417F	45
	중령	한윤기	7508	39	소령		최영오	1417F	45
	중령	홍국환	4508	39	소령		한우현	1427C(J)	45
	중령	강정현	3008	40	소령	모상복	1417F	46	
중령	유호룡	1428F(J)	40	소령	홍성인	1417F	46		
대위	강일정	4507	56	소령	강금석	1407F	47		
대위	현대곤	7007	56	소령	강홍철	1407F	47		
'14.1.31	대령	안창경	4509	20	소령	김기춘	1407F	47	



총동창회알림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4.2.28	소령	김남수	1407F	47	'14.2.28	소령	이상수	1407F	47
	소령	김병윤	1407F	47		소령	이영찬	1407F	47
	소령	김부찬	1407F	47		소령	이재환	1407C	47
	소령	김석호	1407F	47		소령	이준호	1407F	47
	소령	김성준	1407F	47		소령	이호신	1407F	47
	소령	김성훈	1407F	47		소령	이흥균	1407C	47
	소령	김재용	1407F	47		소령	인성호	1407F	47
	소령	김재진	1407F	47		소령	임문수	1047C	47
	소령	김정민	1407F	47		소령	전국현	1407F	47
	소령	김진완	1407F	47		소령	전동일	1407F	47
	소령	김진화	1407F	47		소령	전준언	1407F	47
	소령	김태경	1407F	47		소령	정민우	1407F	47
	소령	김판경	1407C	47		소령	정민철	1407F	47
	소령	류시윤	1407F	47		소령	정석환	1407F	47
	소령	류재원	1407F	47		소령	정윤석	1407F	47
	소령	문병교	1407F	47		소령	조석호	1407C	47
	소령	문성욱	1407F	47		소령	조세희	1407C	47
	소령	박래욱	1407C	47		소령	채춘식	1407F	47
	소령	박상륙	1407F	47		소령	최민수	1407F	47
	소령	박신연	1407C	47		소령	최환석	1407F	47
	소령	박재우	1407F	47		소령	한상준	1407F	47
	소령	석용호	1407F	47		소령	한승우	1407F	47
	소령	송승엽	1407F	47		소령	홍철의	1407F	47
	소령	송치승	1407F	47		대위	이나겸	1407C	52
	소령	신영훈	1407F	47		대위	강태훈	3007	57
	소령	양태영	1407F	47		대위	배영진	1807	57
	소령	오신훈	1407F	47		대위	서영민	7007	57
	소령	윤준오	1407F	47		대위	송성욱	4507	57
소령	음창환	1407F	47	대위	양선열	1407W	57		
소령	이균근	1407F	47	대위	오연훈	4507	57		



총동창회알림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4.2.28	대위	이승준	1407H	57	'14.5.31	중령	이현기	3008(J)	33	
	대위	조준희	1707항	57		중령	김영성	1428F(J)	40	
	대위	한재선	1407H	57		중령	김영삼	1418H(J)	42	
	대위	이정훈	4507	57		소령	노경춘	4507	42	
'14.3.9	대위	민병철	1707	52		소령	배성우	1407F	47	
'14.3.28	중령	장은석	7508사	37		소령	장병욱	1457F	47	
'14.3.31	대령	김진호	1429W	31		'14.6.30	중령	이기욱	4508	33
	대령	김동수	7509사	31			중령	이남석	8108	33
	대령	김승표	4509	32	중령		윤진철	4508(J)	34	
	중령	송인수	2508	32	중령		강이식	1428F(J)	37	
	대령	장화영	4509	32	중령		배주근	1448F	40	
	대위	이주현	4507	52	중령		성낙훈	1418F	42	
'14.4.11	대장	성일환	2	26	소령		심대철	7507	42	
'14.4.30	대령	강병희	7509	30	중령		진경언	1428F(J)	42	
	소령	이일용	2507	41	소령		홍성복	1707	42	
	대위	박세휘	9607	57	소령		주진국	1407H	47	
'14.5.31	대령	박병진	1429F	31	소령		정재우	5507	50	
	중령	김태원	8008	33	대위		최형일	4507	57	



주소 변경

('13년 7월 ~ '14년 6월)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1	김상동	대구 수성구 수성동3가 57 롯데캐슬 102-606	706-948
7	강상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네이처힐 107-402	137-140
7	권유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3, 443-280	442-718
7	김동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74, 115-1001(수내동,양지마을금호A)	463-919
7	이용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3 티루벤스카운티 1045호	410-360
7	전상환	경기 광주시 쌍령동 현대2차(아) 203-501	464-718
7	조재민	대구 수성구 두산동 SK리더스뷰 102-2101	706-962
9	정원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267, 806-2003(내대지마을건영캐스빌)	448-538
11	박용이	서울 송파구 문정1동 삼성래미안(아) 125-1504	138-764
11	신보연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주공(아) 111-503	137-811
12	안봉열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1 대림(아) 107-405	156-761
15	이우경	인천 서구 크리스탈로 74번길 26, 451-4002 (청라더샵레이크파크)	404-170
16	김문기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아) 108-604	137-797
17	김석우	경기 의왕시 내손순환로 8, 201-1601 (내손동,우미리아파트)	437-080
17	유현준	서울 노원구 노원로 62, 311-902 (공릉동,효성화운트빌아파트)	139-853
17	이철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30-1 현대5차(아) 503-1402	150-754
17	임흥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은행마을1단지 102-1004	410-784
18	구세환	충북 충주시 안림동 166 충주엘리시아 104-307	380-110
19	김우태	서울 송파구 위례광장로 121, 2148-804 (장기동,위례24단지)	138-927
19	이계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15, 501-603 (가경e편한세상)	361-869
21	권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로 88, 104-202 (보정동,죽현마을LG자이)	446-858
21	권이현	대전 유성구 계산동 오뚜그란데미학(아) 205-1203	305-365
21	김태욱B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 112-503 (판교동,판교원마을1단지)	463-951
21	박경석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49-12, 603호 (염창동,강남타워)	157-864



총동창회알림



기수	성명	주소	우편번호
21	배창식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35 한라비발디(아) 208-1902	360-182
21	백인철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115-16, 203-202 (신갈동,도현마을현대A)	463-718
21	이찬	경기 양평군 청운면 신론뒷골길 14-13 (신론리 518-1)	476-863
22	김장호	인천시 연수구 해송로 143길, 137동 5-1호 (송도동,웰카운티1단지)	406-840
22	이영하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14길 33, 209-303 (냉천동,돈의문센트레빌)	120-050
23	김수환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이펜하우스1단지 102-402	158-796
24	권영우	서울 은평구 진관동 81 은평뉴타운 우물골 255-401	122-732
24	조진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225-1402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151-016
24	황군택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45, 21-401 (여의도동,시범아파트)	150-761
25	고경윤	서울 성동구 성동2로 137, 107-704 (성수아이파크)	133-726
25	한인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5, 104-204 (마북동,연원마을LG아파트)	446-936
26	권영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583 동원마을 동원로알듀크 102-1701	446-707
26	최상문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2 현대1차(아) 102-1801	156-760
27	박경중	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 110-1704	156-725
27	이광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2, 102-1703 (죽전동,동성아파트)	448-753
27	정표수	서울 은평구 진관2로 57-37, 228-401 (우물골아파트)	122-732
28	이재원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74번길 17, 201-806 (선학동,대동아파트)	406-727
28	최승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44 삼성래미안(아) 104-302	440-723
28	최정배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현대(아) 101-202	361-751
29	김규진	서울 성북구 안암동1가 삼성래미안 107-403	136-797
31	김진수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2 양재리본타워 101-302	137-130
31	장춘석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LG빌리지 3차 303-803	443-773
42	민경욱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91, B동 1005호 (목동,현대파크빌)	158-727



각 기생회 임원 현황

('14년 06월 현재)

기 수	회 장	총 무	기 수	회 장	총 무	기 수	회 장	총 무
1기	김순경		22기	민형기	정갑순	43기	김상진	이중훈
2기	고영근	명의창	23기	이정욱	장수환	44기	김범창	김호년
3기	정규혁		24기	권영우	이남진	45기	이강훈	김도형
4기	김재운	유진여	25기	김종수	임종호	46기	서정민	
5기	정재식	정봉수	26기	김유상	정진기	47기	이영진	문성훈
6기	이윤우		27기	홍성룡	고봉홍	48기	고종진	원기탁
7기	김진수	최화섭	28기	김영민	김명현	49기	이정영	
8기	조현효	송재선	29기	남웅우	이병일	50기	정병식	손다혜
9기	천왕봉		30기	정경두	박성준	51기	김계한	이현석
10기	한정복	김한용	31기	조성욱	황명균	52기	윤민록	조효희
11기	최문강	한영석	32기	허창희	안상훈	53기	조영임	
12기	배양일	엄수남	33기	정영진	정영철	54기	조원기	권선영
13기	최종덕	김종식	34기	김형호	최상수	55기	이재환	강수정
14기	이우덕	임길순	35기	강규식	이동규	56기	권혁준	정신기
15기	유성봉	김덕훈	36기	홍순천	김재영	57기	정인식	김혜미
16기	최동철	양길수	37기	이종호	기균도	58기	박전규	최나라
17기	어수연	최복현	38기	최정현	황선웅	59기	차규식	백승우
18기	이기택	정윤태	39기	박해영	김택선	60기	이상우	구상협
19기	정하섭	전재구	40기	김태욱	김종원	61기	이건혁	남용운
20기	홍민	최병철	41기	허강철	설현주	62기	유은상	황인선
21기	신문식	유근국	42기	이종서	이동현			



편집후기

끝없는 시간의 흐름 위에 묶어두고 싶은 많은 사연들을 잠시나마 머물게 하기 위해 성무인들의 일상과 선, 후배님들의 주옥같은 글들을 모아 정리하다가 보니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동창회지 발간 환경의 변화와 지면의 제한으로 모든 원고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음 호로 또는 제외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을 선, 후배님들께서 너그럽게 받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무지가 부드럽고, 아름다워져 곁에 두고 싶은, 그리고 다시 펼쳐 보고 싶은 동창회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편집에 애써주신 김동기, 오제상, 정호영 편집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사 총동창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선, 후배님들과 물심양면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여명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다 훌륭한 성무지가 될 수 있도록 성무인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성무지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오진교 편집위원장과 홍림출판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편집인 〉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 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 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4호 성무지 원고는 2015. 3. 20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14. 7. 1
발행인 : 배 창 식
편집인 : 성 봉 환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 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 사서함 5-1호
전 화 : 02-823-1091
팩 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35th Anniversary

한국석유공사

'가능성의 날개'를 달다

동해-1 가스전 개발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된 대한민국

전국 9개 비축기지에 확보된
1억 4천 6백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

한국석유공사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것을 알기에
1%의 가능성에 날개를 달아, 100%의 성과를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한국석유공사의 의지를 담아낸 새로운 비전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KNO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8년 연속

초우량기업 신용등급 AAA

군인공제회!

변화와 혁신은 계속됩니다.



AAA

8년 연속 (2007 ~ 2014년)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 평가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135-700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군인공제회 | www.mmaa.or.kr | 문의전화 1544-9090, 1599-9090

- 제일 F & C
- 군인공제회 C & C
- 한국캐피탈(주)
- 대한토지신탁(주)
- 덕평관광개발(주)
- 고려종합물류(주)
- 공우이엔씨(주)
- 문학개발(주)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The company thinking about the safety

www.samgongkorea.co.kr

Samgong

삼공물산(주)은 1950년에 설립, 1973년 방위산업체(제1호)로 지정된 이래 주요 방산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국가 방위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용품과 산업안전용품 전문업체로서 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K-1防毒面



고무보트



화생방 보호의



일반방독면



전면형 방독마스크



방진 마스크

FRASCA

FLIGHT SIMULATION



Looking for Reliable Flight Simulation? 믿을 수 있는 비행 시뮬레이터를 찾고 계십니까?

프라스카는 미 FAA에서 인증한 모의비행 훈련장치를 전세계 80여개 국가의 비행학교 및 조종사 훈련 단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프라스카 시뮬레이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어떠한 항공기, 어떠한 훈련 요구사항에도 충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프라스카 시뮬레이터가 어떻게 여러분의 비행 훈련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을 지, 지금 바로 연락해 보십시오.

국내 주요 고객

- 경운대, 극동대, 군장대
- 산림항공본부
- 삼성항공
- 아시아나 항공
- OSAN AERO CLUB
- E-WEST
- 항공대, 한서대



프라스카 시뮬레이터 한국 대리점
MT 교역

<http://mti7436.com>
TEL 032-327-7436~8
FAX 032-327-7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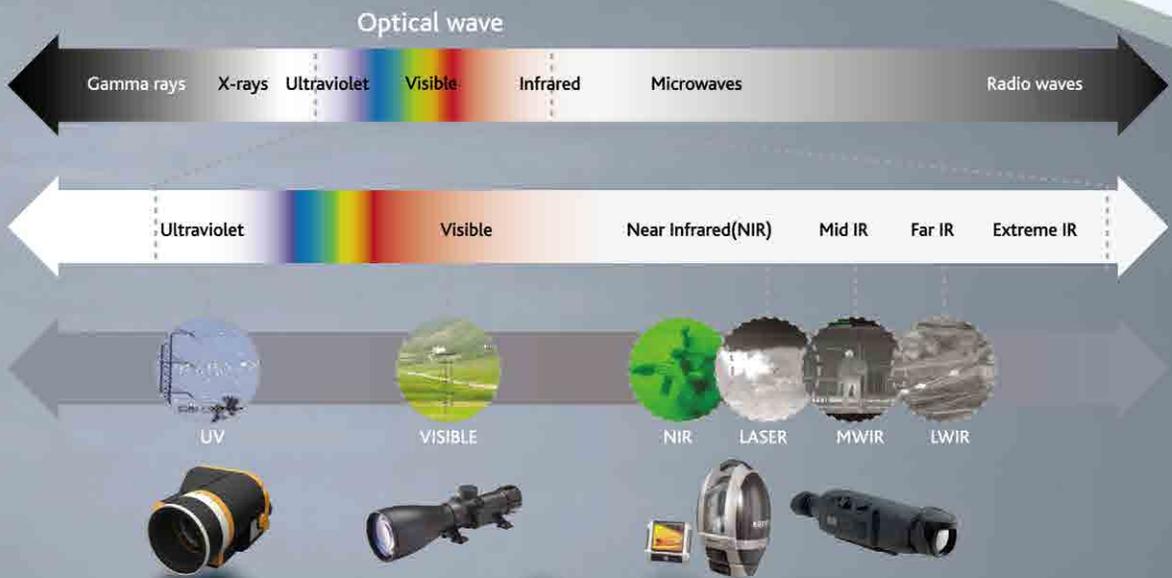
E-mail : sales@mti7436.com

Better Simulators, Safer Pilot



See Beyond^o

한계를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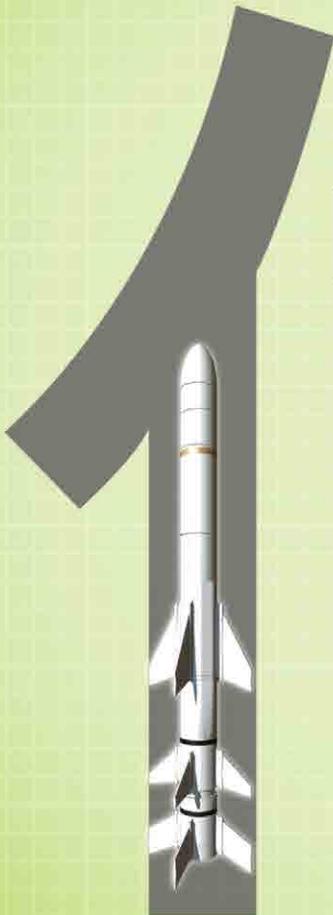


(주)이오시스템은 1979년 설립된 이래 광학기술을 기반으로 확보된 전지광학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광학 장비 제조 및 연구 개발에 주력하는 첨단 연구개발 제조업체입니다. 전자광학분야에서 국내최고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심경쟁력 확보, 공존경영, 열린경영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VISION 2020 매출 5000억 달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EOST^o
 (주) 이 오 시 스 템
 404-250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2-7
 Tel. 032.290.1400 Fax. 032.290.1600
 www.eosystem.com

믿음으로 앞서갑니다!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책임져 온 믿음의 이름, LIG넥스원!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더 믿음직한 내일을 만듭니다.



LIG넥스원은 정밀타격체계, 지휘통제통신체계, 감시정찰체계, 전자전체계, 항공전자, 무인시스템 등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및 국산화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희망을 열어가는 종합방위산업체**입니다.

◀ LIG Nex1 R&D Center



세계 수준의 역량

**BAE 시스템스는
기술 공유와 지역별로 특화된 파트너십을 통해
맞춤화된 방위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BAE SYSTEMS

REAL INNOVATION. REAL ADVANTAGE.



진정한 스텔스. 진정한 안보력. 진정한 억지력.

F-35
LIGHTNING II

5세대 전투기인 F-35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전력입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스텔스 성능을 반영하여 제작된 F-35는, 진화하는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한반도에 향후 30년의 강력한 안보를 보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LMF35.com 에서 참조바랍니다.

THE F-35 LIGHTNING II TEAM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PRATT & WHITNEY
LOCKHEED MARTIN

WWW.LMF35.COM





튼튼한 파트너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보잉은 한국치공구(주) 박영욱 사장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래를 위한 가치를 창출해 왔습니다. 한국치공구(주)는 보잉 항공기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전문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보잉은 그 전문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BOEING